목 차

06 설 교

정일웅 목사(前 총신대 총장)

12 개회사

김영한 원장 (본원 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

18 발 표

이승구 교수(합신대 석좌교수)
유종필 박사(동산교회 담임, 선교학)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100 논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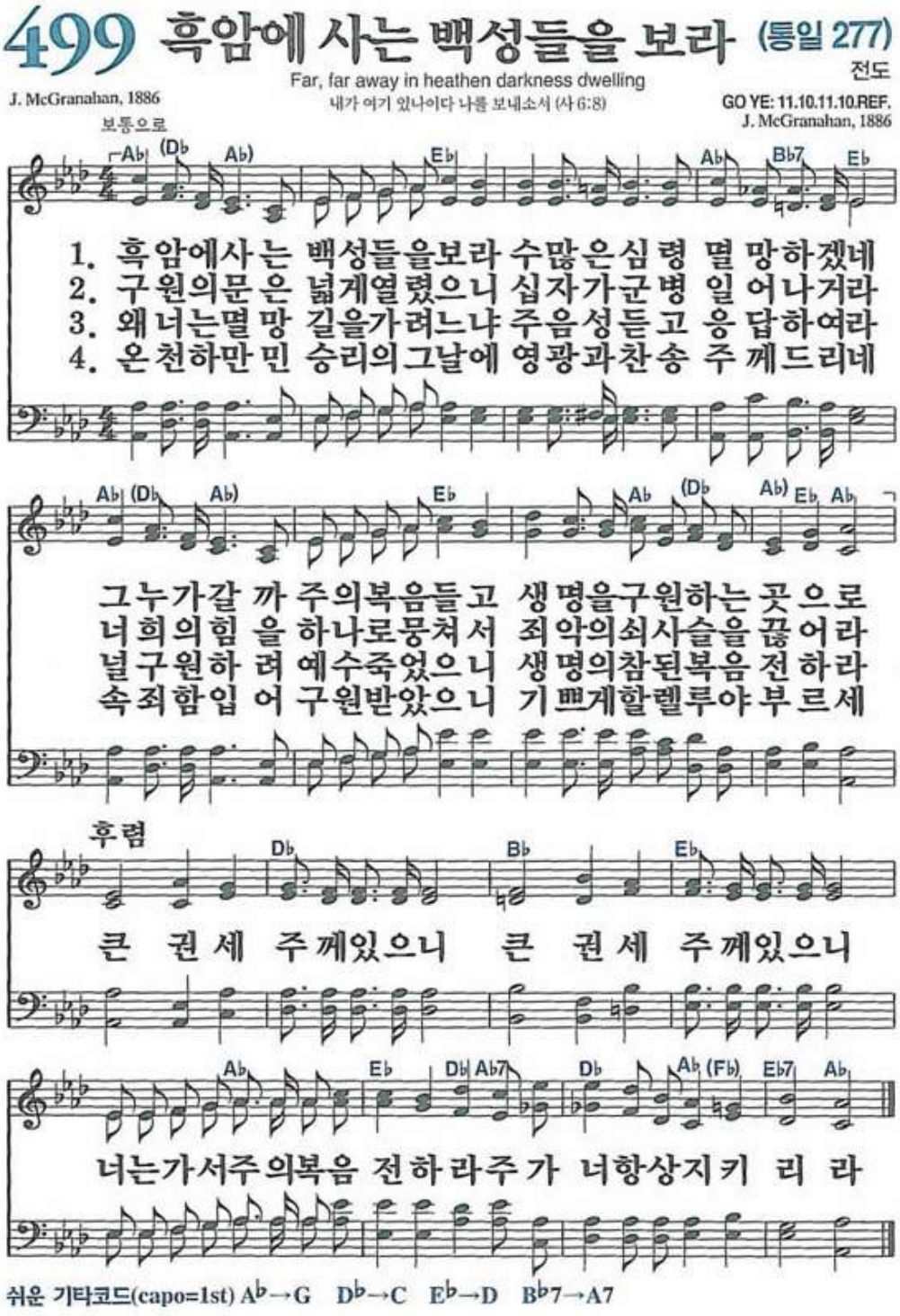
이동주 교수(아신대 은퇴교수, 선교학)
최형근 교수(서울신대, 한국로잔위 사무총장)

129 기독교학술원 언론보도기사

크리스천투데이
기독일보

3:00-3:40	경건회 인도 :	오성종(본원 교무부장, 전 칼빈대신대원장)
	개 회 선 언 :	인도자
	찬 송 :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기 도 :	국가를 위하여 - 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사) 한국교회와 북한구원을 위하여 - 양희종 목사(예수바로전하기학술원장)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 박인용 목사(수사 6기생, 월드와이드교회)
	성 경 봉 독 :	인도자
	설 교 :	정일웅 목사(前 총신대 총장)
	합 심 기 도 :	다 함께(성령의 기름부음을 간구하면서)
3:40-6:10	발표회 사회 :	김영한(본원 원장, 샬롬나비 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3:40-4:00	개 회 사 :	김영한 원장
4:00-4:50	발 표 :	1. 이승구 교수(합신 대 석좌교수) 2. 유종필 박사(동산교회 담임, 선교학)
4;50-5:00		휴 식
5:00-5:25	발 표 :	3.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5:25-5:55	논 평 :	1. 이동주 교수(아신대 은퇴교수, 선교학) 2. 최형근 교수(서울신대, 한국로잔위 사무총장)
5:55-6:10	종 합 토 론 :	다같이
6:10-6:15	종 합 :	김영한(본원 원장, 샬롬나비 대표, 숭실대 명예교수)
6:15-6:18	광 고 :	박봉규(본원 사무총장)
6:18-6:20	축 도 :	정일웅 목사(前 총신대 총장)

찬 송


499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통일 277)
Far, far away in heathen darkness dwelling
J. McGranahan, 1886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전도
GO YE: 11.10.11.10.REF.
J. McGranahan, 1886
보통으로
1. 흑암에사는 백성들을보라 수많은심령 멸망하겠네
2. 구원의문은 넓게열렸으니 십자가군병 일어나거라
3. 왜너는멸망 길을가려느냐 주음성듣고 응답하여라
4. 온천하만민 승리의그날에 영광과찬송 주께드리네
그누가갈까 주의복음들고 생명을구원하는곳으로
너희의힘을 하나로뭉쳐서 죄악의쇠사슬을끊어라
널구원하려 예수죽었으니 생명의참된복음 전하라
속죄함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할렐루야 부르세
후렴
큰 권세 주께있으니 큰 권세 주께있으니
너는가서주의복음 전하라주가 너항상지키 리 라
쉬운 기타코드(capo=1st) A♭→G D♭→C E♭→D B♭7→A7

알 리 는 말 씀

“바울 칭의론에 대한 새관점 문제점”

일 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후 3시

장 소 :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설 교 : 박요한 교수(前 대전신대 구약학)

발 표 : 오성종 교수(前 칼빈대 신대원장)

논 평 : 박찬호 교수(백석대)
박요한 교수(前 대전신대 구약학)

성 경 봉 독

전도서 4:12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7:11, 21, 23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에베소서 4:3-4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설 교

로잔 복음 선교의 정신을 본받자!

정일웅 목사
前 총신대 총장, 現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 소장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독교학술원이 기획한 “제4차 로잔 세계대회를 되돌아보는” 학술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역시 든든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설교자로 저를 초대해 주신 기독학술원 원장이신 김영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하나, 많이 고심하다가 이번 인천에서 개최된 로잔 세계대회가 보여준 복음 선교의 정신을 한국교회가 본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로잔대회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도서 1장 2-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란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요즘은 전도서 말씀이 너무 좋고, 잠언서와 함께 자주 읽으며, 많은 지혜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전4:12절 말씀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서로 뭉치고 연합하여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독불장군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개교회 적이며, 개 교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처음부터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르쳤거나,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복음 전도에 참으로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에는 복음 전도가 교회끼리 경쟁이 되어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는데, 실천신학 과목 중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교회 성장학 강의하는 선생이었는데, 그 강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꽁잡는 게 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 결과 수적으로 꽤 큰 교회들이 생겨났고, 외적으로는 자칭 세계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대형 교회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내적으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라는 일체감의 정신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끼리 경쟁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목회 사역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큰 교회들은 우리 사회의 재벌기업체들이 보여준 것처럼, 자식이나 친인척이 대를 잇게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우리 사회로부터 크게 불신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교회의 사유화 문제지요! 이러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영향은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전보다 복음 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것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의 급증과 함께 한국교회는 오늘날 크고 작은 여러 교파로 분열하고 있는 것이 또한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최근 한국교회는 약 4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파(그룹)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기독 신앙의 동질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이단적인 무리가 많이 한국교회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형국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연합의 정신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경쟁의식과 교파 의식은 여전히 한국교회연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지난 12월 27일 서울 시청 앞에서 속한 약 100만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우리나라 정치권이 입법 추진하려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낸 예배는 그나마 한국교회연합의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보는 듯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주로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힘을 과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나? 반문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여러 더 좋은 방안이 숙고 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적으로 기독 지성인들(전 분야의 학

자들이)이 대거 동원되어 창조 질서 보존의 중요성과 인간의 참된 자유와 인권과 책임의 관계를 더욱 설득력 있게 증언하는 학술적인 노력이 대대적으로 뒤따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에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나서서 주도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일러주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이 주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뭉쳐 힘을 자랑하고 세를 과시하던 저 이전 유럽 역사에서의 로마가톨릭교회처럼, 세상에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힘의 과시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됨을 확인하며,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가치인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 겹줄의 연합한 모습처럼 뭉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준 종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인 복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것이 아닐까요? 그 일에 세 겹줄이 필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인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17장에서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시기 전, 지상에 두고 가는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요17: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특히 21절 하반부에서는 "하나가 되어,...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으며, 23절 중반부와 하반부에는 "....하나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자들의 연합을 강조한 이유는 자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일러준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결단코 기독교 세력의 과시나 힘 자랑이나, 그 어떤 굴림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준 헌신의 섬김이며, 그러한 일은 세 겹줄의 뭉침처럼,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 됨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이러한 기독교회의 하나 됨이 예수님의 뜻임을 일찍이 간파하고, 마침내 엡4: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고하였으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선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처럼 서로 다투고 대립하며 경쟁적인 힘 자랑의 방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제자답게 하나 되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의 매는 줄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연합 정신을 따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선교를 수행하는 일이 이 21세기 전반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복음 선교의 길과 방향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지난 9월 23-28일 인천에서 개최한 제4차 로잔 세계대회를 되돌아보는 일 때문입니다. 아마도 로잔 세계대회와 관련하여 많은 것들을 말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하여 정중히 로잔대회의 실황을 시청하였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4차 인천 로잔 세계대회를 주목한 것은 그 대회가 전 세계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연합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로잔의 그 연합 정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로잔이 보여준 연합 정신을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로잔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보면, 로잔 세계대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까운 동편 작은 도시 로잔에서 1974년 구미지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하여 시작된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교회협의회"로 불리던 WCC는 주로 제3세계 나라들에서 제기된 정치문제, 즉 백성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권력과 빈곤 문제 등을 주목하면서, 정치권력과 사회제도변화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선교 방향과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WCC는 한마디로 전통적인 복음 전파의 선교 목표를 포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1973년 방콕대회 모라토리움 선언이 결정적이었음), 로잔대회는 이러한 WCC의 선교 방향 전환에 대항하여 새롭게 일어섰으며, 전통적인 교회의 복음 전파의 선교적 과제를 확고히 붙들면서, 그러나 역시 WCC가 지향했던 복음의 사회적 책임의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로잔언약 15개항 가운데서 제5항에 그것이 잘 명시됨). 다시 말하면 로잔 운동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병행한 것입니다. 1982년 그랜드 래피드에서 모였던 로잔 위원회는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복음의 사회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회봉사의 영역과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복음의 윤리적 책임소재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잔대회 15년 후인 1986년 마닐라에서 개최한 제2차 로잔 세계대회는 전반부 21개 항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고백을 다루었으며, 후반부 12개 항목에서는 온전한 복음과 온 교회와 온 세상이란 주제 하에서 죄와 타락으로 고난에 처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전파되어야 할 온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천명하면서, 여전히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은 나란히 병행되어야 할 복음 선교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15년 후,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로잔의 제3차 세계대회 역시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내 세웠고, 이 대회가 발표한 서약문은 제1부와 2부로 구분하여,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란 소주제 하에 10가지 항의 신앙고백을 제시하였고, 제2부는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독인의 행동 요령을 제시했는데, 특히 다원주의적이며 세속화된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기, 분열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세우기, 타(이웃) 종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 분별하기, 기독교회의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 회복하기, 선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협력하기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잔 세계 선교 운동은 첫 대회에서부터 케이프타운에서의 제3차 로잔대회에 이르기까지 선교 신학적인 방향은 크게 두 영역인, 즉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일과 이웃을 위한 복음의 사회적 책임수행의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저의 신학적 판단으로 로잔은 처음부터 그 두 영역의 과제를 하나의 시각으로 통찰한 통전 적 구원론(Holistic Redamtion)의 제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번 인천에서 개최된 제4차 로잔 세계대회의 선교 신학적인 방향도 이런 맥락에서 전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인천 로잔대회가 내건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란 것입니다. 이 짧은 슬로건 안에 복음 선포와 사회적 책임과 교회 연합의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대회가 발표한 95개 항의 선언문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복음 선교의 역사가 아직 140년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때로는 복음 전도와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통전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한국교회의 한쪽에 있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WCC 내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제4차 로잔

세계대회는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적인 선교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는 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로잔 운동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또한 한국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로잔 운동이 보여주는 복음적이며, 그런 점에서 연대하는 정신을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로잔을 너무 극찬하고 있나요?

원래 교회가 연합하는 일, 즉 연합운동은 말이 많은 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각자의 방식대로 믿어온 신앙 인식과 관습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차이는 좁혀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 우리의 신앙은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의 방향으로 진전하는 모습이어야 하며, 여전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복음 사역의 대의에 참여하려는 자는 더 많은 이해와 인내와 관용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각자의 기독 영성을 넉넉히 성숙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넓게 이해하지 않고, 좁쌀 같은 마음으로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고 외쳤던 말씀을 한국교회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넓혀진 마음으로 한국교회는 로잔이 복음 선교와 연합의 정신을 본받아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 운동에 모범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로잔 인천 세계대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하여 행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뜻을 가진 복음주의적인 지도자 들이 연합하여 로잔 세계대회 개최를 감당해 주어, 전 세계교회를 섬기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의 한국 대표로서, 또한 주빈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한 이재훈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섬김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로잔 세계대회가 개최되던 그 기간이 하필이면, 한국장로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총회 기간과 맞물려, 로잔에 한국장로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한 기독교학술원에 감사드리며, 참여한 여러분의 인천 로잔대회에 관한 평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본받아 세계 복음 선교에 약진하며 새롭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회 사

2024년 11월 포럼
제 4차 로잔 인천대회 성과와 전망 개회사.

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머리말

4차 로잔대회는 21세기 들어와 서구, 북미기독교 쇠퇴 속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기독교의 선교동력을 확인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참신한 지구촌 선교 축제였다

로잔 제4차 대회는 2024년 9월 22일~28일 대한민국 인천(서울)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회가 2013년 부산 WCC 대회와 함께 이번 인천대회에 참석한 5천명의 참가자들을 질서정연하게 편안하게 대접하고 한주간의 선교대회를 잘 개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세계교회를 향한 지난 140년 역사의 한국교회의 역량과 성숙을 보여준 것이다

로잔 4차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은 로잔 4차 대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방향을 제시했다: "모든 로잔 문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지역에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와 사회 분야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생생하게 지속되는 대화의 일부이다."[1)]

I. 복음전파의 우위성 강조.

로잔 4차 대회는 3차 대회 때 복음전도에 다소 느슨해진 모습에서 다시 본래의 복음주의적 경향을 회복하였다.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 세

1) 로잔운동, 서울 선언 소개, https://lausanne.org/ko/korean-ko/blog-ko/%ec%84%9c%ec%9a%b8-%ec%84%a0%ec%96%b8-%ec%86%8c%ea%b0%9c. 2024. 10. 23. 접속.

상, 화해 등의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WCC 선교로선에 기울어졌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케이프타운에 가톨릭대표, 정교회 대표, WCC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복음주의 정체성 우려를 말할 수 없다. 국제대회에는 얼마든지 참관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4차 로잔대회 선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 등'을 통해 대위임령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서울 선언 43항에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따라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Christ-filled presence),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Christ-centred proclamation),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Christlike practice)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마 28:18-20)."[2)]
4차 대회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에서 교회, 그리스도, 선포와 나타냄 등의 용어를 통해 고전적인 복음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II. 동성애 등의 죄성 선언

서구교회와 사회가 대부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더 이상 동성애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로잔이 동성애를 분명한 어조로 죄로 선언하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왜곡 행위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거부한 것은 큰 성과다.

서울선언 57항은 "우리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성[性])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gender)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 또한, 우리는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3)]라고 선언하였다.

서울선언 68항에서도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

III. WCC 부산 총회가 언급하지 못한 북한 주민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언급

제4차 로잔 서울선언 86항에 "정치적으로 강제로 분단된 북한과 남한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한반도와 그 국민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것이 "부당한 분단"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6.25에 있었던 "수백만 민간인의 죽음과 트라우마를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언급하며, "1953년 휴전에도 불구하고,

2)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43항. 접속일자. 2024. 10. 23.
3)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7항. 접속일자. 2024. 10. 23.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화해와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 속에서 불안정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잘 드러내면서 "언젠가 남북한(Korea)과 남북한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IV. 기술 문화에 대한 선언(7장)

제4차 로잔 서울선언 VII장 '기술'에서 유전공학, 복제, 생명공학, 마인드 업로드, 디지털 미디어,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시대 그리스도인은 기술을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관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청지기가 되어 디지털 기술을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선용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제4차 로잔 서울선언 7장은 "기술적 능력(technological ability)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성을 반영한다."고 선언하고, 88항에 "인간의 창의성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확언한다." 89항에 죄는 기술의 사용과 발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90항에 확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 개발과 사용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의 번영과 자연 세계에 대한 돌봄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혁신은 종종 깊은 불안감, 잘못된 의존과 집중,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해로운 조작, 거짓 안정감, 또는 비인간적인 표현을 야기하기도 한다."
유전자 조합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유전자 조합에서 벗어나 재구성될 경우 어떤 함의가 있는가?."(93항). 유전자 조합의 우생학적 오용 가능성, 말하자면, 인간 자의성과 비윤리성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미디어와 인공 지능의 선교적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기독교인,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고 공평하며 존엄한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조주와 인간의 창조성을 존중하는 이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94항)

.

V. 비서구교회가 세계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되었다.

오늘날 서구교회가 기독교이후시대를 맞이하여 선교동력이 떨어지고 쇠퇴하는 가운데 지구촌 남반부(아프리카, 남미 등)와 중국. 한국 등 아시아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중국교회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박해받으면서 특히 지하교회는 중국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개척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남미 브라질 상파우르 교회는 성경번역과 선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통합선교(integral mission)을 추진하여 남미 미지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교회도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경의 위대한 진리에 마음을 쏟는 독실한 남녀를 배출하여 성경을 더욱 풍성한 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V. 복음주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1. 신실한 성경 읽기에 대한 헌신을 갱신함(section II)

서울 선언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신적으로 영감되고(a divinely inspir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드신(God-breathed) 일련의[4] 문서들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God’s word written)임을 확언한다.”고 하였다.[5]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God’s self-revelation)요, 따라서 “교회의 성경”(the church’s Scripture)이라는 것도 확언하고(17항), 성경이 “권위가 있으며 무오하다”는 것도 확언하고, 전적으로 참되고 전적으로 신실하며 (wholly true and trustworthy), “교회의 삶에 대한 최고의 규범”(the supreme norm for the church’s life)임도 확언한다(17항).

2. 성령의 지속적 역사를 강조하였다.

월요일에는 성령 사역의 지속성이 선교이야기로 보고되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교회사에서 그대로 지속된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1907년 한국 평양 부흥에서 성령의 지속 사역이 보고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21세기 오늘날 아프리카 전역과 남미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지역 지도자들의 증언은 하나님 약속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VI. 한국교회의 선교적 공헌

한국교회가 제4차대회에서 아시아교회들과 함께 4차 로잔대회를 준바하고 개최하게 되어 세계교회를 섬기게되었다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가 1만 3천여명의 서계선교사를 보내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항간에 성격이 논난된 로잔운동을 확실한 복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6] 한국교회가 복음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4차로잔대회가 2013년에 있었던 부산 WCC대회의 성격과 같이되지 않으가하는 한국교회 내부의 비판을 수용하고 총체적 복음을 주제로 하면서도 복음전파의 우위성을 강조하였다.

VII. 전망 : 미종족 선교 이행, 문화 마르크시즘 등 세속주의에 대하여 총체적 선교 수행

1. 다중심 선교(Polycentric Mission)

21세기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바같이 구미교회의 쇠퇴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선교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쌍방향의 선교시대가 되었다. 20세기 선교가 서구 중심의 선교였다면 21세기 선교는 “다중심적 선교”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이다. “다중심적 선교”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선교”(partnership mission)로도 이해된다

2. 보다 넓은 선교개념, 세계를 향하여 협력하는 선교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남반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의 진

4) 우리말 번역본의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이라는 말을 정통적 용어를 풀어서 쓴 말로 대치하여 제시하였다.

5)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17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살려 다시 번역하였다.

6) 최승연, ““로잔대회 통해 세계교회서 한국교회 역할 확인”,” 《기독일보》, 2024. 10. 19 일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9913#share. 접속일자. 2024. 10. 21.

정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4차 로잔대회는 복음주의 선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근본주의는 복음전도과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고 자유주의는 둘을 혼동하나 종교개혁신앙은 이 둘을 분리하거나 혼동하지 않고 복음전도의 우위성 안에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종교개혁신앙은 분리주의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혼합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영혼구원과 참된 사회적 삶의 회복으로 구현한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반추(反芻)해야할 로잔운동의 총체적 선교의 의미다.

3. 총체적 선교를 수행: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 균형

세계선교에서 로잔이 이바지한 것 중의 하나는 "복음의 우선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강조이다. 로잔은 처음부터 그 두 영역의 과제를 하나의 시각으로 통찰한 통전적 구원론(Holistic Redemption)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진행된 프로그램과 서울 선언을 통하여 이것이 확인되었다.

제4차 로잔 서울선언은 1차 로잔언약, 2차 마닐라 선언, 3차 케이프타운 서약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오늘날 지구촌의 이슈인, 동성애 죄, 지구촌 종족 사이의 분쟁과 갈등, 특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 첨단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관하여 언급한 것은 선교학적 공헌이다. 그런데 오늘날 역시 중요한 지구촌 이슈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기후변화 이슈, 오늘날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화해와 평화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 보편적 이슈에 관한 하나님 선교에 입각한 복음주의적 언급이 요청된다.

4. 근본주의와 인본주의 피해가는 성경적 복음주의의 균형잡힌 선언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들은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서 놓칠 수 없다. 서울선언 최종본에는 이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성경적 복음주의적 보완된 언급이 있었으면 한다.
서울선언문은 9월 24일 1차 수정 후에 공개됐으며, 추후 피드백을 반영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제4차 로잔 서울 선언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 보편적 교회의 선언으로서 근본주의로의 퇴각 또는 인본주의로의 이탈이라는 두 가지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성경적 복음주의(biblical evangelicalism)의 균형잡힌 길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맺음말

4차 로잔대회는 세계 교회의 지형이 북미와 서구에서 남반구와 동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으로 비서구교회가 기독교선교의 중심축이 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서울선언문(67항-70항)은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분명히 천명하였다. 그런데 로잔반대자들은 대회현장에까지 와서 전혀 근거없는 주장과 시위를 하면서 대회를 훼방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로잔 참가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은 WCC 내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로잔 서울선언문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가감(加減)하지 않는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의 선포다. 미혹의 시대, 어둠을 밝히는 선명한 진리의 빛이다.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서구 교회 안에 젠더 정체성과 동성결혼 교리화를 통한 집단 세속적 타협과 혼합, 배교(背教)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잔 서울선언문은 우리 시대를 세속주의라는 인본주의적 종교혼합과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진리의 등대요 소금과 빛의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종교적 기구가 되어 있는 WCC의 세계 종교의 통합시도에 대하여 로잔은 복음주의적 순수성을 보존하기 바란다. 로잔의 모든 봉사자는 겸허함(Humility)과 순수함(Integrity)과 검소함(Simplicity)을 잃지 말아야 한다.

발 표 1

로잔 4차 대회와 서울 선언에 대한 신학적 분석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남송 석좌교수

먼저 로잔 4차 대회가 마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야 한다. 현장에 참여한 5,000명의 식사를 잘 감당한 진행팀에 대해서 (그런 일에 쉽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 모두 깊이 감사해야 한다. 특히 진행 전반을 위해서 애쓰신 1천 7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수가 온누리교회 교우들과 한동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일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부에서 30억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국제대회를 할 때 지원한 것보다 많이 지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30억을 지원한 여러 교회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 계속해서 로잔 국제 본부와 연결하며 로잔 신학위원회와 의논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울 선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만 한다. 이 정도의 선언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관여하신 여러분들의 정말 지난한 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높이 사야 한다. 이재훈 목사님과 최형근 교수님께서 특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이분들의 강력한 항의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선언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로잔 4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의 하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선언서가 나오게 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보수적 교회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다.

이전에 1차 로잔대회와 로잔 언약의 의미를 밝히고 로잔 4차 대회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하였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1] 이 짧은 글에서는 이 대회가 마

쳐진 상황에서 서울 선언에 대해서 신학적인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서울 선언에 대한 신학적 논의

서울 선언은 어떤 면에서 그동안 로잔 운동에 대해 있어 온 여러 비판을 의식하면서 그에 대항하면서 성경적인 입장을 잘 표현하려고 애써 진술한 선언으로 보인다. 곳곳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입장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 서문에서도 이번 4차 대회가 1974년 1차 로잔대회 이후 50년 만에 모이는 대회임을 의식하면서 "제1차 로잔대회 이후 전 세계 교회(the global church)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를 가속화하기'(collaboratively accelerate worldwide evangelization)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이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의 수백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변혁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전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여 **로잔 운동이 세계복음화 운동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적 우선순위**(the *great apostolic priority* of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에 대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한다."고 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분명히 하고 교회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의식하면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서문에서부터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부디 로잔 운동에 이런 성격을 계속 유지해서 로잔은 과연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말하는가에 대한 의혹이 일절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라고 밝혀 로잔 운동은 **세계복음화 운동**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세계 곳곳의 교회는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신앙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지(nurture the faith and discipleship)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여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도 잘 드러낸다(서문).[1]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

1) 이승구, "성경적 샬롬과 로잔 운동", 전인건강학회와 한국 성경신학회 공동 세미나, 2023년 6월 2일 발제문; "로잔 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 (충현교회) 발제문, 2024년 4월 18일, 이를 중심으로 이승구, 『성경적 신앙의 응답』 (서울: 말씀과 언약, 2024), 제12장인 "성경적 샬롬과 로잔 운동"이 쓰였음을 밝힌다.

2)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https://lausanne.org/statement/the-seoul-statement), 서문 중에서.

1)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제자도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국어

게는 하였는데 그들이 과연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18-20의 위임령을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복음전도적 과업(evangelistic task)과 (2) "[그리스도]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목회적 과업(pastoral task)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복잡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2)]

그러나 이를 말하는 분들의 '제자됨에 대한 강조'를 높이 사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드러낸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을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지난 50년이라는 복음 전도 추수 기간에, 세계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이 진정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3)]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가정, 학교, 교회, 이웃, 그리고 시장에서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강조한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신앙을 부식시키고, 주 예수의 교회의 연합과 교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내는, 그저 주어진 사회의 가치관에 따르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하였다.**"고[4)] 하여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드러낸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결과, 수많은 신자들을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가르침과 사이비 기독교적 생활방식"이 나타난 것을 반성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낸 것이다.

복음의 중심성에 대한 헌신을 갱신하는 부분(section 1)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전하는 이야기"(The Story We Live and Tell)라고 표현한(제1장) 것과 성경을 정경적 맥락에서 읽으면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통일된 이야기,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한 것(20항)에 대해서 일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이야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역사적 사실성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표현

번역본을 좀 의역하여 그 의미를 드러내었음을 밝힌다.

2) 이 대위임령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서울: SFC, 2003, 최근판, 2022), 제8장, 특히 202-12를 보라.

3) 한국 안에서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조로 1970년대 말 부터의 손봉호 교수님과 기독교 학문 연구소의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과 함께 위의 책과 이와 연관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을 보라.

4) 전반적으로 이 문장 전체와 특히 "구비하려고 고군분투해 왔다."는 직역은 문맥에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역하여 영문의 본의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5] 만일 서울 선언을 쓰신 분들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라는 말을 썼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는 복음주의적 접근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용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방식으로 오날날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작성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닌 복음 역사를 역사적 사실성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라고 썼다면 이 용어의 사용이 별문제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렇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한국 사람으로 이 위원회에 속해 작업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6]

신실한 성경 읽기에 대한 헌신을 갱신함(section II)에 대하여

서울 선언은 이전의 로잔 언약이 선언한 성경에 대한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 성경 해석을 위한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언에서 작성자들은 로잔 운동이 시작부터(from its inception) 지속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높이 인정해 왔다고, 즉 로잔 운동은 항상 "높은 성경관"(a high view of Scripture)을 가져왔다고 확언한다. 서울 선언에서도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신적으로 영감되고(a divinely inspir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만드신(God-breathed) 일련의[7] 문서들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God's word written)임을 확언한다."고 하였다.[8]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God's self-revelation)요, 따라서 "교회의 성경"(the church's Scripture)이라는 것도 확언하고(17항), 성경이 "권위가 있으며 무오하다"는 것

---

5) 기사 신학(narrative theology)을 다음에 언급할 두 종류를 나누어 논의한 대표적 예로 Gary L. Comstock, "Two Types of Narrative The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5/4 (1987): 687-717을 보라. 기사 신학을 말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카고학파 사람들(Sallie McFague, *Metaphorical Theology: Models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2);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위 예일학파(Hans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 a Study in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Hermeneu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4]; 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4]; Stanley Hauerwas & L. Gregory Jones, eds., *Why Narrative? Readings in Narrative Theology* [Eugene, OR: Wipf & Stock, 1997])에 속한 분들도 구약 초기와 심지어 후기의 역사들의 역사적 사실성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의미에서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저 기사 안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복음주의자들의 논의 속에 성경이 말하는 것의 역사적 사실성을 의문시하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이야기나 기사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복음주의적 논의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7) 우리말 번역본의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이라는 말을 정통적 용어를 풀어서 쓴 말로 대치하여 제시하였다.

8)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17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살려 다시 번역하였다.

도 확언하고, 전적으로 참되고 전적으로 신실하며 (wholly true and trustworthy), "교회의 삶에 대한 최고의 규범"(the supreme norm for the church's life)임도 확언한다(17항). 요약해서 "성경을 영감하신 같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 진리와 은혜를 전하신다."고 말한다.[9] 이를 성경을 영감하신 성령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경 해석에 있어 교회를 계속하여 인도하신다**"고 표현한(21항,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것도 의미 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안은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와 문학 장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증언**을 형성한다"고 말할 때 주어질 수 있다.[10] 이 작성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몰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오랫동안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라고 주장하시던 분들의 주장이[11] 떠올라 그런 주장의 함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된다. 이런 함의가 있으면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주어질 수 있다.[12] 여기서 자세하게 말할 수 없으나 이 작성자들의 생각에 그런 함의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는 부분을 좀 더 신임하기로 한다. 불안해 하면서 이 문서의 작성자들의 마음에 참으로 높은 성경관(high view of the Scripture)이 함의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정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복음을 옹호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삼는 '교회의 선교'를 강화하는 신실한 성경 해석"이라고 한다.[13]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18항의 제목)고 파악하고 선언하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 복음에 따라 그리고 이 복음의 안내에 따라 읽는다."(18항)고 한 것은 매우 귀한 진술이다. 또한 "**복음을 믿는**

---

9)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17항 중. 우리 말 번역본을 조금 가다듬었기에 원문 대조: "The same Spirit who inspired the Bible continues to illuminate it, communicating God's light and life, truth and grace."

10)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17항 중,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번역하려 제시하였다. 영문 참조: "Through a diversity of human authors and literary genres, the Bible forms *a unified and coherent testimony* to the story of God's electing a people for himself in Jesus Christ."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11) 이에 대해서 『우리 이웃의 신학들』 (서울: 나눔과 섬김, 2014; 개정판, 말씀과 언약, 2024), 155-90. 191-233, 특히 220-22를 보라.

12) 피터 엔스의 이런 표현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불안과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으로 이승구, "성경에 대한 성육신적 유비의 의의와 문제점", 『우리 이웃의 신학들』, 234-66을 보라.

13)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2장(17-24항)의 서언.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의해 변화된다(사 52:7; 막 1:14-15; 창 12:1-3; 18:18-19; 갈 3:16, 19).”고 한 것도(18항) 귀하다. 또한 “성경의 목적은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19항 제목) 한 것도 매우 잘 말한 것이다.

신실한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1) “성경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고”(20항), (2) “성령의 조명을 받아”(21항), (3) “전통과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22항), (4) “지역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23항), 그리고 (5) “지역 교회를 (성경을) 읽고 듣는 문화를 가지도록 형성함으로써”(24항)[14] 신실하게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 것은 그런대로 좋은 정리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20항), “성경 본문을 적절한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 배치하는 것은, 저자가 의도한 본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잘 지적하고(20항), “교회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경 해석에 있어 교회를 계속하여 인도하신다”고 표현하여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21항), **교회를 “성경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행하는 공동체”로 규정**한 것(21항), 그리고 “**성령은 성경의 진정성, 신뢰성, 충족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내적 증언을 제공한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해준다(벧후 1:21).”고 전통적 이해를 잘 제시한 점(21항), 그리고 **“복음주의적(복음 중심적) 성경 해석이 최근의 발전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은 사도적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해석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확언하면서(22항),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일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믿은 과거 세대의 신실한 성경 읽기의 연속성을 전승하는 전통의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확언”하는(22항) 것이 중세 때의 천주교회와 같이 바른 성경의 해석 전통에서 벗어난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성경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확언”하면서 성경을 읽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23항) 의미 있게 생각한다. 한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전제, 개인적 경험, 그리고 문화가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왜곡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다.”(23항)라고 한 것과 “**그리**

14)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24항 제목을 “forming local churches into reading and listening cultures”를 직역하여 “지역 교회를 읽고 듣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라고 매우 어색하게 만들 것을 조정하였다. 그 뜻은 그 아래에 잘 표현한 것과 같이 “지역 교회들이 개인, 그룹,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공동체 성경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듣는 신자들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 보다는 “성경의 공적 읽기”라고 좀 더 전통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의 전 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동시에 "교회 전통에 대한 주의"할 것을 언급한(24항) 것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하던 많은 분들과 같이 과거 수십 년의 복잡한 논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봐 걱정스럽다. 이어서 "지역 공동체는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심화하는 데 있어서 그들 각각의 상황 가운데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각 지역 교회는 각자의 상황에서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데 있어 전체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에서 얻은 독특한 통찰력을 통해 전체 교회에 유익을 준다."(23항)는 말에 대해서도 일면 동감하면서도 과거에 이와 비슷하게 주장하면서 그저 다양한 해석을 다 허용하는 상대적 해석으로 인도하던 것과 같이 될 것이나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 그런 함의를 지닌 것이 아니고 참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경을 각자 신실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본의를 드러내자는 요청이라면 언제나 환영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를 "성경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행하는 공동체"로 규정한 것(21항),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개인, 그룹,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공적인 성경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듣는 신자들을 형성하는 데 헌신할 것을 요청"한 것을(24항) 높이 산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과 삶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24항) 요청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따라서 **오도(誤導)하려는 의도가 진정 없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청유를 의미 있게 생각하게 된다.

>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달된 신앙에 닻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번성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되심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경청하는 공동체'(faithful Bible reading and listening communities)로 우리 자신을 형성해야 한다.[15]

우리가 사랑하고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The People of God We Love and Build Up)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선언(제3장)에 대하여

이미 교회를 "성경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행하는 공동체"로 규정한 것(21항),

15)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24항 마지막 부분.

다른 말로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경청하는 공동체"(faithful Bible reading and listening communities)로 규정한 것(24항)에 이어서, 3장에서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확히 성경을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이미 로잔 언약(1974)에서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주제를 가진 제4차 로잔대회는 교회를 좀 더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를 말하면서도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43항)는 것을 반복해서 적절한 곳에서 잘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에서 기독교가 놀랍게 확장되는 동안 교회의 교리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중요성 그리고 교리와 세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합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것(3장 서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마음이 든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와 그 분의 복음의 가치를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교회"가 나타났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 가운데 환멸이 커져서 공식적 또는 제도적 교회와 거리를 두게 했다."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 선언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성경적 이해, 즉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 3:15) 안에서 행하므로 깊은 감사와 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경적 이해"를 잘 말한 분들이 이미 많이 있었다.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지난 수십년간 교회에 대한 이해 제시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과거에 성경에 충실한 분들이 여러 번 잘 지적한 것을 서울 선언도 잘 정리해 제시하여 교회는 사도신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백성의 교제"(25, 26항 제목)인데, 그 교회는, 니케아 신경이 잘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27-32항 제목), 이런 교회가 이 땅에서 "순례하는 교회"(Pilgrim church)로 항상 내외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나(33항-35항 제목과 33항), 이런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성장하고(36항-40항 제목), 이런 교회는 다양하나 신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41항-42항 제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의 선교를 수행한다(43항-47항)고 잘 표현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가장 전통적 입장의 교회와 교회의 사명을 잘 제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교회의 선교"(the

mission of the church)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뜻을 잘 전달하는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특히 43항)은 의미 있는 기여이다.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로잔 운동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pilgrim church)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순례하는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한다."고 잘 지적하고(33항),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시련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질 언급하였다(33항). 그런데 "교회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대한" 것이니, 모든 박해와 시련에 대해서 순례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권세나 무기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영적 무기로 온전히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딘다."고 하여 교회의 대응 방식을 정확시 드러내었다(34항). 또한 "교회가 항상 이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슬퍼한다."고 하면서(35항), "더 큰 위험은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는 성경의 말씀을 잘 드러낸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포기하고 너무 자주 정치적 권력의 유혹, 문화적 인식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에 굴복해 왔다."는 사실과 문제도 잘 드러낸다(35항). 그래서 때때로 "교회는 억압의 도구가 되고 불의한 행위에 연루되며 세상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고 사실을 적시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단순한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성경의 권위에서 멀어진 결과이거나 그 원인이 된다."고 정확히 지적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눈을 돌릴수록 신실한 믿음과 실천의 두 기둥인 정통 교리와 정통 실천(orthodoxy and orthopraxy)은 약화된다."고 말한다(35항). 이에 대해서는 회개함이 마땅하니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와 죄를 애통해하며 성령의 확신과 주님의 명령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회개한다(딤전 4:16)."고 회개의 고백을 한 것도 귀하다(3항). 교회가 성경을 애곡하고 성경의 권위에서 멀어질 때, 특히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면 문제가 발생함을 잘 지적한 것을 높이 산다.

또한 "성도의 교제"(communion of saints)는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으신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25항), 즉 "오순절 날,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므로 이 연합을 드러내셨다."고 이해한 것(25항),

그리하여 복음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25항).[16] 이 성령의 부어주심과 내주하심은 공동체와 개인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한 것(25항)을 높이 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를 강조한 것도 옳다(26항). 따라서 “기독교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충성과 그의 교회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자 인봉(sign and seal)이다(고전 12:13).”라고 표현한 것도(26항) 성경을 따라 전통적 표현을 잘 따른 것이다.

또 전통적 교회의 속성을 잘 생각하면서 “전 세계와 역사를 통틀어 교회는 하나의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 성령의 한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한 신부이다.”라고 표현한 것도(28항) 아주 옳다. 후에 교회는 “지역적이고 대항-문화적 공동체들”(local, counter-cultural communities)이라고 한 것도 정확한 것이다(41항).

이렇게 성경적 전통을 따라 표현하면서 서울 선언은 때때로 현대적 함의를 잘 드러내는 일도 시도하였으니 특히 보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 데서 이런 현대적 적용이 잘 나타난다.

> 보편적 교회에서는 어떤 인간 문화도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모든 인간 문화는 모든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머리를 숙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문화는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공헌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다양성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신다.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의 유일한 가시적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고전 3:16-17, 12:12-27; 엡 2:20-21; 벧전 2:4-10).(31항)

이 중에서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의 유일한 가시적 표현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모든 성도는 지 교회에 속하여 있음으로로 보편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 성도가 지교회의 성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6) “indwelt by the Spirit as the Temple of God.”이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 가운데 내주하도록 하셨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사도성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중심으로 이해한 것도(32항) 종교개혁 전통을 따른 매우 중요한 기여이다. 그래서 서울 선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새 생명을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만드신다(롬 10:17; 벧전 1:23; 유 3)."(32항,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단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인 교회(the visible expression of Christ in the world)"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29항)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후에 이어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거룩함(Christlike holiness)으로 부름 받았으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딤후 2:21; 벧전 1:14-16)."고 주장한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인 교회"라는 표현은 이전 천주교에서 그리고 본회퍼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을 인도하려고 한 바와 연관될 위험성이 있어 불안하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후에도, 아니 어쩌면 그로부터 큰 교훈을 얻으면서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성장한다."(The church grows *as it gathers for worship*.)는 것을 잘 지적한 것도(36-40항의 제목,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귀하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도록 주께서 교회를 부르시기에 교회는 마땅히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것을 담담히 말하고(36항),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한 성령의 성전인 교회는 **주로(primarily) 예배를 통해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한 것도 모든 사태를 잘 아는 증언이다(36항). 또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선교적 노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Worship is the ultimate end to which all our mission endeavours are directed)이라고 하면서, "**선교 사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날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38항)**고 정확히 지적하면서, 그러기에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교회됨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배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사건(essentially a corporate event)**"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36항).

예배의 대상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37항, 41항, 47항), "교회는 말씀과 성만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신을 교회로 구별한다."고 잘 말한다(37항). 말씀과 성찬을 "교회를 정의하는 표지(marks)"라고 한 것은(38항) 세례를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여겨서 그냥 받아들일 만하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의 표지를 더 분명히 하면서, 이를 은혜의 방도(은혜의 수단, *media gratiae*)

로 표현하던 교회의 바른 전통을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도 교회의 표지를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거나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려는[17] 오늘날 상황에서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의 표지를 언급하려고 노력한 것은 가상한 일이다.

실천적으로는 "올바르게 질서 잡힌 예배(Properly ordered worship)는 지역 교회의 권위와 규율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모든 기독교인이 지역 교회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청한다."(39항)는 요청은 고린도 교회나 몬타누스주의 이래로 때때로 일어나는 예배에서의 무질서함에 대한 좋은 경보요 요청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성숙하게 하고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사역과 섬김의 은사를 두셨다."고 정확히 지적한다(40항).

교회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역사와 전 세계에 걸쳐 지역 교회는 고유한 문화의 영향과 그들이 직면한 독특한 상황적 도전에 의해 형성된 전통과 형태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성을 보여준다."(41항)과 하면서, "비밀리에 모이는 작은 소그룹 모임(small bands)부터 가정 교회와 공개적으로 모이는 대규모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지적한 것도 옳다(41항) 그런데 "디지털 공간의 출현은 기독교 신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했으며, 지역 교회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지속적인 신학적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41항)은 신학적 논의의 시작 점을 말하는 것이라면 좋지만,[18] 이것이 또 다른 교회 형태를 용인하는 이미 함의하는 것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서울 선언의 **가장 큰 기여는 역시 "교회의 선교"(the mission of the church)를 다시 앞장 세운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 그리고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다."고 명시한 것**은[20] 큰 기여이다. 이를 말할 때 복음 증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Christ-filled presence),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Christ-centred proclamation), 그리고 그

17) 교회의 표지를 말하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린 대표적인 예로 J. Moltmann, *Kirche in der Krift des Geistes* (1974), 박봉랑 외 4인 역,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서울: 우리 한국신학연구소 출판부, 1980)을 보라.

18) 이에 대한 논의들로 다음도 보라. 이승구, "정보 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2004),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서울: SFC, 2005, 개정판, 서울: CCP, 2018);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개혁파 교회와 개혁파적 목회"(2020), "메타버스 시대의 메타 쳐치에 관한 신학적 견해"(2024), 『세상과 이단의 도전에 대한 성경적 신앙의 반응』 (서울: 말씀과 언약, 2025년 출간 예정).

19) 진보적 입장에서 평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퇴조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데서 신학적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20)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43항-47항의 제목. 또한 71항: "*mission is properly aimed toward the formation of disciples* whose love for God and love for others are united in an undivided heart."(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따라서 "지역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선교의 수단이자 목적(the means and the end of mission)"이라고 선언된다(71항).

리스도를 닮은 실천(Christlike practice)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 것도 큰 기여이다(43항). 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17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증거에 필수적이며, 이 과업을 위해 주님은 신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선언한 것(45항)은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이를 위한 성령님의 임재를 확언하는 매우 중요한 진술이다. 그 후에라야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은 실천을 통해 증언한다."라고 한 것(46항)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앞세우면서 우리들의 실천을 강조하는 1974년 로잔 언약의 구조를 잘 반영했다. 단지 다음 같은 진술이 복음에 대한 증언이 말로 되는 것도 있고, 실천으로 되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실천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전달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세상이 복음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에 관해 듣는 것처럼, 서로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을 돌보고 일상적인 소명에서 훌륭한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믿음이 들음으로 인하듯이,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수반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동선을 증진하고,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며, 주님의 본을 따라 정의의 대의를 진전시킨다(마 5:16; 요 13:35; 엡 2:8-10; 눅 4:18-19)(46항).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후에 나올 73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제자 삼을 수 없으며"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 전도에 우선성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오는 "깨어진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에서 의혹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깨어진 세상에 진정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해를 일으키는 말은 항상 피하려고 해야 한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의 복음 선포와 그에 부합하는 실천 노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됨을 잘 표현하였다(47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는 존재인 인간(4장)에 대하여

이 항목은 '오늘날 세상이 하는 질문을 의식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시

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세상에서 증언과 교회의 삶에 깊은 함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 질문은 (1) 정체성, (2) 인간의 성, 그리고 (3) 발전하는 기술의 함의와 같은 이슈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격변의 핵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4) “교회 내에서 초인적인 힘과 신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다루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 논의로 들어간다(4장 서문).

그래서 시작된 논의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임을 매우 의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아서 아쉬우나[21] 이것은 서울 선언이 신학적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에서 논의한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1)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됨의 본질이다.”고 명확히 한 것,[22]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23] 등은 매우 중요한 기여이다. 특히 인간의 하나의 형상 됨에는 “세상에서의 청지기 역할과 책임이 포함된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선언**한 것(48항)은 길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다른 것에 근거해서는 유지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영육 단일체(an integrated physical and spiritual unity)인 것을 강조하고, “몸과 영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한 특권을 갖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 있는데(49항), 이것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또한 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강조하였다(50항). 그런데 “때때로 기독교인조차도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여 자기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해석했다.”는 말의 함의가 어디까지를 포괄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불안하다.

그리스도께서 (1)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밝힌 것, (2) “그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따라서 인류를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구속할 자격을” 갖추셨음을 명확히 한 것, (3)

---

21) 하나님의 형상을 서울 선언에 시사된 청지기됨, 관계적 존재 됨(48항) 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됨의 독특성이라는 그 포괄적 의미가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50항에서 이를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 우리의 고유한 인간 본성과 능력(our inherent human nature and capacities), (2) 타인과의 관계(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그리고 (3) 세상에서 인간의 소명(our human vocation in the world)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앞 부분에서 잘 드러내고, 특히 하나님을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을 더 잘 드러내야 한다. 이런 신학적 아쉬움을 말하면서 일일이 따지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잔 대회가 세계 복음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임이지 아주 엄밀한 신학적 논의의 장이 아니므로 이런 것은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 형상에 대한 논의로 이승구, “인간의 창조와 그 상태의 변화”,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제5장을 보라.

22)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48항-50항의 제목.

23)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1항-55항의 제목.

“하나님의 탁월하고 완전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가 성령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의 이상”이라고 한 것, (4)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 (5) 예수님의 “재림 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형상으로 변화”(51항과 55항)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점(51항)에서 서울 선언은 성경과 복음주의 입장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1)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라는 것을 드러내고(52항), (2) 그들은 “다양한 은사와 소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잘 말하고(53항), 동시에 “이러한 모든 표현과 실천은 복음과 성경에 대한 사도적 증거와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거짓 복음에 속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전 12:4-7; 롬 12:4-8; 엡 4:11-16; 고전 1:4-8; 벧전 4:10-11; 마 7:15-16; 갈 1:6-9; 요일 2:19; 유 3-4).”고(53항) 검증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데대로 성경과 사도적 가르침으로 검증하지 않아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한 거짓된 개념을” 제시하는 것, 특히 인간이 “신성을 소유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잘못된 주장응 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번영을 강조하고 명성에 근거한 사역”(prosperity and fame-based ministries)과 관련되 가르침, 즉 번영신학과 특정한 사람을 강조하는 사역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매우 큰 기여이다(53항). 또한 “그러한 주장과 영적 권위의 표시로써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도 큰 기여이다.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는 “겸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을 나타나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삶의 특징이다(눅 9:23; 빌 2:8-11; 3:18-19; 고전 15:9-10; 요일 1:8-10).”**라고 잘 밝혀 준 것(54항)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문제를 인간의 섹슈얼리티와 연관하여 선언한 것도 서울 선언의 득특하며 큰 기여이다(56항-70항). 먼저 “성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루면서(56-58항)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과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계적 특징을 가진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다루고 있다.”고(56항) 성경에 근거한 논의를 출발시킨다. 여기서 성과 젠더를 언급한다. “개인의 ‘성'(sex)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언급하며, ‘젠더(gender, 성별)’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언급한다.”(56항)[24] 개인적으로는 “성(sex)과

24) 이 번역어를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성'(sex)이라는 용어는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지칭하며, ‘젠더(gender, 성별)’라는 용어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지칭한다.”

젠더(gender)가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인데 '성'(sex)이라는 용어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지칭하며, '젠더(gender, 성별)'라는 용어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연관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흔히 사용된다."고 했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성[性])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gender)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57항)는 주장과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57항)도 매우 잘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59항), 더 나아가 "평생 서로 사랑과 나눔의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결합에 헌신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독특하고 배타적인 언약 관계임을 확언한" 것(59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임을 확언"한 것(62항)은 큰 기여이다. 이에 따라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성관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의도를 무시하는 악"이라고 하였고(60항) 따라서 "동성 파트너십을 성경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정의하려는 교회 내 모든 시도를 애통해한다."고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61항). 동성 결혼을 허용하려는 것은 "교회가 문화의 요구에 굴복"하는(have acquiesced to the demands of culture) 것이라고 선언한 것도 큰 기여이다(61항).

"동성 성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67항-70항)를 다루면서 먼저 성경의 입장을 잘 드러내면서(69항), "인류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다는 증거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의 만연한 관행을 언급한다. 바울은 성적 불순결과 관련하여 특히 여성 간의 성관계와 남성 간의 성관계가 당시 관행이었음에도 이를 정죄하였다."(67항)고 성경적 입장을 잘 드러내었다.[25] 그러면서 동성 관계가 죄임임을 분명히 하는 다음과 같은 하였다.

>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68항).

25) 이런 표현으로 제시되도록 마지막 순간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해 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에 따라 나오는 69항과 70문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그런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런 진술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켰고, 또 계속 논란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끌림이라는 것을 인지한다."(69항)는 표현의 표현에 대해 그것이 사람들의 느낌과 주장인지 사실인지를,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69항)의 표현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 하면서그 함의를물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을 넣을 이유는 없다.[26] 그러나 이를 작성하신 분들의 의도는 "기독교인은 유혹에 저항하고 욕망과 행위 모두에서 성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성경의 주장은 동성에게 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끌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선언하고(69항),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70항), 즉 진정한 제자가 되어 동성애적 관계에 성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제자도에 대해서(5장)

교회를 말하면서 제자 되는 일과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도에 대한 장(5장)이 나온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제자 됨을 아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자도(discipleship)를 "거룩함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소명"(Our Calling to Holiness and Mission)이라고 제시하고 있다.[27] 이 5장 서문에 나타난 아주 솔직한 반성과 회개는 매우 중요하다다. 그러므로 다시 인용할 만하다.

>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운동을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맞서 사회적 관심을 심어 주기 위해 역사하셨다. 이러한 이중 강조점(dual emphases)은 종종 '통전적 선교'(intergral mission)라는 개념 안에 통합되었지만, **통전적 선교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위임을 항상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26) 그래서 로잔대회 기간 동안 그리고 서울 선언을 수정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69항과 70항을 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다.

27)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71항-76항의 제목.

> 본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데 **종종 실패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 잘못된 재정 관리, 성추행과 학대,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이러한 실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그리고 영적 빈혈과 미성숙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슬퍼하며 우리의 죄를 탄식한다. 또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지속적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한다(히 12:14).(5장 제자도의 서문)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만드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1) 먼저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한다. “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복음으로 형성되어(formed by the Gospel) 예수님을 따르는 자(a follower of Jesus)이다”(71항 제목). (2)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일과 제자를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확언한다(72항).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임, 즉 하나님이 반역적이고 깨어진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확언한다.”(72항) 그런 점에서 “성숙한 제자의 형성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신자 개개인의 사역을 통해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마 22:37-40; 28:18-20; 엡 4:11-14).”고 선언한 것(72항)은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관연와 제자됨을 깊이 연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제자 삼을 수 없으며, 깨어진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다”(73항 제목).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앞부분의 매우 중요한 말(“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제자 삼을 수 없으며”)에 따라 나오는 이 명제의 뒷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설명으로 대치하는 것이 더 좋다. 즉, “제자로 형성된 사람들이 가족, 이웃, 학교,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불의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을 확언한다.”는 그 뒤의 설명(73항)이 오해를 덜 일으키고 오히려 이해를 촉구한다. 그 뒤의 말도 그와 비슷하게 고쳐지는 것이 오해를 방지할 것이다. “복음 전도는 복음의 말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제자가 되어, 제자답게 살게 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듯이, 개인 생활,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복음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는

(73항)의 말은 구원론의 복잡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또 다른 오해하게 하는 말이 된다. (4) 그 후에는 제자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나 계속 은혜 받아가는 사람들임을 잘 선언한다.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경험하면서 변화를 경험한다."(74항 제목) 이를 구체화하면서 "제자가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지만, "복음은 단번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변화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 일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거룩함과 사랑의 증가가 복음의 변혁적 능력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잘 설명한다(74항). (5) 제자가 되는 일과 교회를 연관시키면서 "지역교회는 복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실행하고 공동체의 삶에서 변혁적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제자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선언한 것(75항)도 매우 중요한 기여다. 마지막으로 (6) 지역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잘 규정하여 선언했다.

> 우리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지역 교회와 중요한 교제를 유지하고, 지역 교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지만, 지역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지역 교회 안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을 반영해야** 한다. 주님은 섭리 가운데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자신의 백성을 제자 삼고 훈련하기(sharpen and equip) 위해 사역과 선교의 동반자 협력(partnership)을 일으키셨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하시는 새로운 인류의 구현으로서 지역 교회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언**한다. 이러한 사역은 책무, 투명성, 그리고 감독의 형태와 원칙을 위해 성경에서 지역 교회에 주어진 가르침을 따를 때,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 개인보다는 복음 안에서 영적 권위의 위치를 보존하는 다수 리더십과 거버넌스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행 6:1-6; 15:1-35; 20:17-38).(76항,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

76항의 이 진술은 지역 교회와 교회 밖 선교 단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규정적 진술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항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제대로 따르는 것이 된다.

열방과 국가적 분쟁 문제(6장)에 대하여

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인 열방에 대한 6장은 이 세상의 여러 문제, 특히 민족들과 국가들의 분쟁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지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장으로 보인다. 세상의 여러 문제 중의 하나인 분쟁 문제에 답하기 위해 마련한 장인데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일으킨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복음화를 위한 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어디까지 논의해야 하는가가 늘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이 장의 서문의 맨 마지막 말이 이 장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잘 드러내어 준다. “분쟁으로 찢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 받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그의 교회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VI. 열방의 가족: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 섬기는 분쟁 중인 민족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개인 간과 개인과 민족 간에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은 평화의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양한 민족이 공정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각자의 은사와 지구의 자원을 공유하면서 번영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라는 성경의 일관된 요청을 구현한 기독교 공동체와 개인의 많은 사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자신의 평판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를 규정하는 특성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존중해 온 것은 아니다. 교회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폭력을 옹호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활동과 사업에 관여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이는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분쟁으로 찢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그의 교회에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1) “우리는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을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언한다.”고 하면서(77항 제목), “로잔운동은 모든 민족, 나아가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라는 좋은 소식을 문화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이 들어야 한다는 인식 가운데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현대적 의미의 ‘국가’)이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77항).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잘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라와 나라의 좋은 관계가 과연 어디서 오는지를 시사하니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민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상호 간의 축복을 하는 관계로 화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민

족들과 나라들이 서로를 위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들과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성취될 수 있음을 확언한다.”고 하였다(77항) 즉,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잘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적 평화가 온 사례들도 있음을 밝히고 그런 상대적 평화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아일랜드 분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 르완다 대학살, 그리고 스리랑카 내전이 그 실례”가 되는 “이 세계에서 심각한 갈등이 약화되고, 소외된 공동체가 화해와 화합의 기회를 얻은 많은 상황을 함께 기뻐한다.”고 하였다(78항). 그런데 이런 것이 상대적 평화를 이룬 것이었음을 늘 의식하고 강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에 “하나님이 교회, 기독교 단체,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분쟁 당사자들 간의 최상의 평화 조성자(frontline peacemakers)나 분쟁의 배후에서 협상과 영향력, 중보기도를 통해 평화의 대의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할 때 질문이 발생한다(78항). 기도를 통해 이런 상대적 평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나 “교회, 기독교 단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분쟁 당사자들 간의 최상의 평화 조성자(frontline peacemakers)나 분쟁의 배후에서 협상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성격의 사역인지 그런 일이 힘쓰는 것과 현지인들이 제자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조절한 것인가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분쟁 중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것을 헌신한다.”고 하는 것에[28]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그 문제가 제대로 된 관점 속에서 조망된다면 제자 삼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가 일반은총을 위한 기도와 일방 은총적 사역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ia-Ukraine war)과 가자지구의 전쟁(the war in Gaza)” 밖에도 “시리아, 미얀마, 수단, 에티오피아의 심각한 분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s)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비록 그런 지역의 분쟁이 대중적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신다.”는 것(79항)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활동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 손실과 미래 세대가 번영할 기회를 박탈하는 사회에 대한 막대한 파괴를 슬퍼한다.”는 정도의 말만 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79항) 이 모든 것에는 특별은총을 일반 은총과 명확히 구별하면서

28) 서울 선언 86-87항의 제목.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상대적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역은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래 언급된 좋은 진술들의 본의가 왜곡될 수 있다.

우선 심지어 교회도 잘 못 행한 일에 대한 반성과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 있다. 그리고 교회가 침묵하여 문제를 더 조장한 것에 대한 회개도 의미 있다(83항).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파괴적인 인종 간 폭력과 억압의 상황에서 공모한 것과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교회가 통탄할 정도로 침묵한 것을 슬픔과 부끄러움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예로 든 "인종주의와 흑인 노예제, 유대인 대학살, 인종 분리주의, '인종 청소,' 기독교 종파 간 폭력, 원주민 학살, 정치 및 종족 간 폭력, 팔레스타인인의 고통, 카스트 제도의 억압, 그리고 부족 학살과 같은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분쟁과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 것을 회개해야 한다.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지만,[29]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민족주의와 민족 및 인종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주장"은 개탄스럽고 죄라는 것이다(86항). 그러나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인데, 그런 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로잔의 서울 선언에서는 이렇게 일반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되지 않아서 후에 복잡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특별 은총의 빛에서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활동을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계속하여 침묵하며 민족주의를 조장하거나 신학적 정당성이 결여된 갈등을 부당하게 지지"하지 말하야 한다고 한다(80-85항의 제목). 민족주의(특히 85항을 보라)와 신학적 정당성이 결여된 갈등은 지지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폭력과 전쟁을 조장"하지 말고, "그러한 잔혹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예언자적 진실성과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82항).

(2) "피할 수 있는 분쟁과 전쟁을 조장하고 단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80항). 이것은 건전한 시민이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이

29) 역사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 후예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역사 해석에 늘 관여된다.

세상에 이런 경제적, 정치적 유익을 위한 활동이 늘어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회의 건전한 시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초래한 엄청난 고통에 슬픔을" 느끼면서(80항), 그들의 질목헤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노력을 넓혀 가야 한다는 것이다.

(3) 일반 전쟁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원을 모으고 분쟁 지역 근처에 있는 교회와 인도주의 단체의 구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쟁 상황에 취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81항).

(4) 그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지원하고, 무고한 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와 배상을 촉구함으로써 중재자(peacemakers)로 섬겨야" 한다(81항). 그런데 이런 활동이 일반은총 가운데서 일반 시민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5) 여러 민족이 같이 어울려 사는 (현대적) 국가 안에서 민족들이나 종족들 간의 분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현대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자비로운 대우를 해야 한다는 신적 요구에 대해 책무가 있음을 확언한다."고 선언한 것(83항)은 의미 있다. 그런 의미의 하나로 "중동과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부당한 폭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국제적 인도주의법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84항, 강조점은 덧붙인 것임)도 의미 있다.[30] 이는 결국 유대인이 고서에 선민이었으니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 준재의 문제는 민족들을 분쟁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어떤 현대 국가도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특별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85항)고 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적 맥락에서는 미국을 겨냥한 이런 표현은 다들 깊이 새겨야 한다.

한국에서 모였기에" 정치적으로 강제로 분단된 북한과 남한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한반도와 그 국민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고 한 것(86항)에 대해서 감사한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것이 "부당한 분단"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6.25에 있었던 "수백만 민간인의 죽음과 트라우마를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언급하며, "1953년 휴전에도 불구하고, 분

30) 로잔대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의미를 과연 생각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인가 궁금하다.

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화해와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 속에서 불안정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현실을 잘 드러내면서 "언젠가 남북한(Korea)과 남북한 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86항) 있다. 그러나 남북의 통일을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한반도와 그 국민에게 임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우려스럽다. 여기서도 상대적인 평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 평화를 구별해야만 한다. 이 선언에서는 그 둘이 너무 얽혀 있다.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북쪽의 국민들 가운데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the great Pyongyang Revival of 1907)을 기억하며, 북한 정부의 기독교 형제자매들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기를 촉구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북한에서 방해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나타나서 한반도 전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것(86항)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시사 된대로 남북의 통일은 그저 복음이 북녘에도 자유롭게 전파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종국적 평화라고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지만, 남북 통일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전쟁과 분쟁의 공포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의 민족과 국가 가운데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87항).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자(peacemakers)로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본을 보여주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중요한 실천으로서 평화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할 때의 다양한 의미를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역시 일반은총 가운데서의 상대적 평화를 위한 노력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오는 절대적 평화를 구별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일반은총 안에서의 상대적 평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마지작에 있는 "이를 통해 우리는 갈등으로 깊이 상처를 입은 세상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다."(87항)는 말이 참된 힘을 얻는다. 일반은총 가운데서 주어지는 상대적 평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 문화에 대한 선언(7장)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기술적 능력(technological ability)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창조성을 반영한다."고 선언하면서, 먼저 "기술"(technology)이란 말이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뿐 아니라 발명과 혁신의 지식과 과정, 그리고 나아가 기술 개발과 활용에 의해 형성된 문화를 언급한다."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31]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 속에 인간이 "인간의 번영을 촉진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볼 수 있도록 세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 그래서 이를 "기술적(technological) 존재"라고도 표현한다. 이런 재형성을 위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창의성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확언한다."는 대담한 선언까지 한다(88항).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혁신도 있고, 모든 혁신이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32]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적 창의성도 의미 있게 주어진 것음을 확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하나님 형상의 한 반영(as a reflection of God's image, technology)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은 (한국어 번역에는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기술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들을 부르셔서 관여하게 하신 일과 소명에 속하는 한 부분이다"(is integral to the work and vocations that the Creator has called all human beings to engage in)라고 한다.[33] 루터와 모든 개신교도들, 특히 청교도들의 소명 개념이 잘 녹아 있는 이 표현 속에 이제는 기술 문화까지를 그 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이 확언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 활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써 이웃과 세상을 돌보고 우리의 창조적 능력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고 하여 기술 문화의 적극적 의미를 잘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영역에 대해 그러하듯이, "**죄는 기술의 사용과 발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혁신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언한다(89항).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 개발과 사용이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인간의 번영과 자연 세계에 대한 돌봄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혁신은 종종 깊은 불안감, 잘못된 의존과 집중,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해로운 조작, 거짓 안정감, 또는 비인간적인 표현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정확히 말하며, 더 나아가서 "죄의 영향으로 인해 기술은 종종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숭배함으로써 **우상숭배적이게** 된다(롬 1:25)."라도 강하게 말한다.[34] "기술은

31)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88항.

32) 그것은 다음에 언급할 89항에서 인정되고 표현되고 있다.

33)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88항. "창조주가 모든 인간을 부르신 일과 직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한 우리 말 번역본을 좀 수정하였다.

우리의 집중적 환경이 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35] "모든 기술 개발과 적용은 가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형성되는데, 그중 상당수가 참되고 고귀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에 적극적으로 집중하라는 성경의 권고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행 17:28; 빌 4:8)."[36] 또한 "미디어 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했음"을 말한다(91항). 더 나아가서 "많은 기독교인, 특히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시간이 불균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을 '추종하고'(discipled) 있음"도 강하게 지적한다(92항).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술을 예언자적으로 비판하고 관여하도록 부름 받았다.**"[37]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가운데 항상 '은밀하고 부끄러운 방법을 포기'하거나 청중을 속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하려는 유혹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91항), 오히려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을 **제자 훈련**에 활용할 것(engage technologies of the digital age for *disciple-making*)을 요청한다."고 한다(92항). 다른 말로, "디지털 공간에서 신실한 현존, 연결된 기기를 통한 신실한 상황화, 신실한 디지털 문해교육, 그리고 건전한 사용 습관 형성을 위한 신실한 환대의 실천을 요청한다."고 말한다(92항). 아주 잘 된 정리라고 할 수 있다. 기술 문화에 대한 이런 비판적 관여를 "기술을 분별하는(discern) 것"이라고도 하면서,[38] 그것은 마치 "자연이나 인간 본성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술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근자에 "육체적 인간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재구성하여 인간 능력의 증대"하려는 일과 관련하여, "그 윤리적 사용과 장기적 영향에 관해 매우 실제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전자 기술을 신중하게 분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93항). "복잡한 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유전자 치료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이러한 기술적용에는 (1) 우리는 유전자 산물로만 존재하는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39] (2) 유전 가능한 유전자 변형의 함의는 무엇인가? (3) 우리 인간성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전자 조합과 연관되어 있으며, 만일 우리가 유전자 조합에서 벗어나 재구성될 경우 어떤 함

34)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89항. "우상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한글판 번역을 조금 다듬었다.

35)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90항. "쉽게 잊도록" 한다는 한글판 번역을 조금 다듬었다.

36)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90항. 중간 부분을 애매하게 번역하여 마치 가치 전체가 무시될 것 같은 인상을 주기에 한글 번역판을 조금 조정하였다.

37)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91-92항의 표제.

38)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93-94항의 표제.

39) "Are we reduced to being the product of our genes?"라는 영문을 "우리는 유전자 산물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말을 좀 가다듬었다.

의가 있는가? 등의 질문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4)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굴복과 그러한 기술 접근 및 기존의 차별 형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추가적인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93항)고 정확히 지적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하여 한 항을 따로 할애해서 논의하면서 인공지능의 개발로 제기되는 일반적인 문제들([1] 인공지능이 인류와 더 넓은 세계에 실존적 위협이 될 것인가? [2] 인공지능이 일터와 인간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3] 정부와 다른 기관들이 감시 및 보안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을 그저 열거한 후에 “인공지능의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기독교인,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고 공평하며 존엄한 적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조주와 인간의 창조성을 존중하는 이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94항)고 결론내리고 있다.

종합적으로 “기독교인은 기술을 신실하게 관리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하면서,[40]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95항)고 하면서, “기독교적 기술 개발과 사용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더욱 온전히 직시하며 이웃과 원수의 복지를 추구하고 인간의 번영과 존엄성을 증진해야 한다(미 6:8; 눅 10:25-37; 창 9:6; 약 3:9; 창 1:31; 계 21:1-8).”고 한다(95항).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열을 해소하며,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기독교 제자도 사역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탐구하고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96항)고 하고, 마지막으로 “기술 적응력을 높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로 연결된 교회의 복음 전도 활동”을 환연하고 더 촉구하면서 기술문화의 발달로 (1)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세계 여러 지역으로 복음의 범위를 넓히고, (2) 성경 번역 사역을 촉진하며, (3) 전 세계 하나님 백성의 이동과 사역을 촉진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기술적으로 진보되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신실한 기술의 청지기 됨’이 새로운 세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97항).[41]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는 기술 문화 영역에서도 신실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천명했다.

그러므로 비록 구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이번 서울 선언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충실하게 발언한 균형 잡

40)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95-97항의 표제.
41) 한국어 번역을 조금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혀진 좋은 선언이라고 해야 한다.

4차 대회를 마친 이 시점에서 로잔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얼마 후에 이 서울 선언을 마지막으로 손보아서 최종적 문서가 나온다고 한다. 그 최종 문서가 좀 더 성경적인 방향으로 표현된 선언서로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복음주의 신학계가 아닌 곳과 좀 더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이 서울 선언이 근본주의로 후퇴했다고 평가할 정도로[42] 이 선언서는 한국 보수적 교회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쳐진 선언이다. 우리는 이것이, 이번 로잔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신 분들이 이런 비난을 감수할 정도로 노력한 결과라는 것으로 여기면서 높이 사야 한다. 또 한편에서 〈한국교회반동성애 교단연합〉에서는 이 서울 선언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 결국,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은 죄를 정당화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정죄하며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반성경적 문서임을 드러내었다. 우리는 이런 로잔 선언문에 대하여 우려를 넘어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것에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43]

이렇게 로잔 4차 대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서울 선언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은 정말 매우 큰 수고를 하시고서 앙 편에서 상당히 대립적인 내용의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에 로잔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던 사람도 서울 선언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3차 케이프타운 대회와 당시 신학위원장으로 케이프타운 서약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번에도 둘째 날 주제 발표의 사회자 역할을 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서울 선언 작성 초기엔 무기산업과 군산 복합체에 대한 비판,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결국 삭제됐다"고 밝혔다고 한다.[44] 한국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 그룹에서 3차 케이프타운 대회의 한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던 바의 내용으로 진전되지 않

42) 오요셉 기자,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비판 목소리 커져…'근본주의로의 퇴행'", 2014년 9월 26일자 CBS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219330).

43) http://www.reformanda.co.kr/Archive/183620.

44) 오요셉 기자,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비판 목소리 커져…'근본주의로의 퇴행'"에서 인용되었음.

은 것에 대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또 다른 분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고 한다.

> 이 문서가 다음세대들이 선교적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동기 부여하는데 과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음세대는 케이프타운 서약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서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수호해야 합니다'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방어적입니다.[45]

> 신학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구성이 얼마나 균형 있게 돼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선언문이 저희 논의랑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약간 몽둥이로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 이게 안 들어갔지?' 이런 의아함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46]

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로잔 운동이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4차 대회가 마쳐진 정황 속에서 로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로잔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로잔 3차 대회를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열린 4차 대회는 어떤 분들이 근본주의적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할 만큼 한국의 보수적 교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세계 복음화를 논의하는 이런 '복음화를 위한 대회'에서 과연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을 참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논의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WCC가 분석하고 제시하는 해결과는 **명확히 다른 참으로 성경적 입장에서의 논의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 다른 모임에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그런 일을

45) 스위스 참석자인 디모테 조세, 오요셉 기자,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비판 목소리 커져… '근본주의로의 퇴행'"에서 인용되었음.

46) 마인츠 대학교의 전희경 목사, 오요셉 기자,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 비판 목소리 커져… '근본주의로의 퇴행'"에서 인용되었음.

하기 위한 복음주의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다. 좀 더 나아가, 로잔 운동 안에 그런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로잔 운동의 한 측면으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특별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경적 근거한 복음주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복음주의적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회를 할 때에는 그 시기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여겨진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과연 로잔 운동이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를 의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전부터도 그런 기미가 조금 있었지만) 특히 3차 대회 이후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 개념을 말하면서 이렇게 폭을 넓혀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회로 모일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략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로잔 운동에 대한 오해를 낳지 않게 하는 길이 된다. 지난 몇 년간 로잔 운동과 관련된 분들, 특히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남미의 여러 참여자들이 "총제적 선교"(통전적 선교)라는 말을 할 때 그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잔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결과를 낼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분들에게는 안 되었지만[*pace*])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상당히 손질을 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문제는 그동안 로잔 운동 일부에서 논의된 "총체적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런 대회 때에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단 이번 서울 선언에서는 "통전적 선교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위임을 항상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고[47] 아주 솔직히 인정하면서 일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시도였다. 그리고 사회적 관여가 그저 일반적 사회적 관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임을 말하여(75항) 결국 제자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제자됨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우리가 강조하는 사회적 제자도의 실현 과정임을 희미하게 시사하고 있다.

둘째로, 그와 연관해서 "선교"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WCC적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교회의 선교"를 강조한 서울 선언의 의도가 좀 더 잘 드러나는 식으

47) 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장, 71항-76항의 서문 중에서: "integral mission has not always fully integrated the command of our Lord to be disciples and his commission to make disciples."

로 앞으로 로잔 운동이 전개되어 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앞으로 로잔 운동이 나아가야만 방향이라고 이번 선언자들의 말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싶다. 지난 수십 년간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복음주의적 의미로 다시 정의해서 새롭게 사용하여 왔다. 그래서 WCC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는[48]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권은 초기에는 비판적이었는데, 1980년대 이후로는 이를 테면 "복음주의적 하나님의 선교"라고 다른 의미를 불어 넣어 이 용어를 말해 왔다. 미국의 좋은 목회자였던 팀 켈러도 그리하였고, 특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용어를 상당히 복음주의적 의미로 재정의하여 사용해 왔다.[49] 그러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논의에도 철저한 복음주의자들이 보기에 안타까운 점들이 있어서 많이들 논의하고 있다.[50]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 선언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51] "교회의 선교"(the mission of the church)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제2장 서문, 43-47항)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근본적이라고 선교적임을 우리들은, 소위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항상 주장해 왔거니와, 이번에 서울 선언이 교회가 선교적이며 선교의 중요한 기관(agent)이 되어야 함을 잘 드러낸 것이다. 이제 과제는 교회의 선교를 잘 드러내고 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로잔 운동이 과연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복음 전도의 우선성, 기본성, 근본성에 대한 강조를 아주 분명히 하여 다시는 과연 로잔 운동이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과연 강조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하였던 것을[52]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번 로잔 대회와 서울 선언에서 어느 정도를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이 아직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게끔 하는 기

48) 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칼 하르텐쉬타인(1894-1952)으로 1924년부터 이런 말을 하던 그가 세계선교사협의회(IMC)의 1952년 빌링겐(Willingen)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말하였다. 그 후에 Georg F. Vicedom, *Missio Dei: Einführung in eine Theologie der Mission* (1958), trans. Gilbert A. Thiele & Dennis Hilgendorf, *The Mission of God: An Introduction to a Theology of Mission* (Saint Louis: Concordia (1985)이 1958년에 이를 선교신학으로 제시하는 책을 내었다. 이에 대해서 이승구, 『교회, 그 그리운 이름』 (서울: 말씀과 언약, 2021), 127을 보라.

49) Cf.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VP, 2007); idem, *The Mission of God's People* (Grand Rapids: Zondervan, 2012), 한화룡 옮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50) 지금도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는 영남신학대학교의 선교신학 교수인 안승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로 이해한 것일까?" 「기독일보」 (2024년 5월 13일자 컬럼)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5130).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안승오. 『로잔 운동의 좌표와 전망』 (서울: CLC, 2023); 그리고 이승구, 『교회, 그 그리운 이름』, 121-36을 보라.

51) 19항과 72항에서 his mission으로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선교"로 번역되어 있기는 하다.

52) 예를 들어서, 이승구, "성경적 샬롬과 로잔 운동", 전인건강학회와 한국 성경신학회 공동 세미나, 2023년 6월 2일 발제문, "로잔 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 (충현교회) 발제문, 2024년 4월 18일, 그리고 "로잔운동과 제 4차 로잔대회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136인 성명서", 2024년 9월 9일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3590487219).

연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중요한 복음주의 운동이 복음 전도(evangelism)를 과연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왜 자꾸 나오게 하는가? 그러므로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이 쓸데없는 논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더 깊은 논의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로잔 운동은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아주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참으로 믿은 사람들의 진정한 제자도를 지향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 선언은 어느 정도 이를 수행하였다.

셋째로, 서울 선언 곳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강조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동성애를 끊어버리고 동성애를 실천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온전한 것이며 철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속해서 제자로서 살아 나가는 제자도(discipleship)의 실천이 강조된 것은 감사한 일이다. 이제 문제는 이 성경적 제자도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실천하는 일이다. 그것에 로잔 언약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사회적 관여가 포함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여는 제자도 실천의 한 부분이다.

우리들이 사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관여해 가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1974년부터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서구 사회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통과 된 사회 속에서 그런 법이 낳고 있는 문제를 잘 드러내면서 그런 법안이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분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사회적 제자도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로잔운동은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된 시회 속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그런 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을 지지해야 사회적 관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된다. 서구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 되지 않고 있고, 사회 일부에서 이를 대한 민국의 법으로 만들려 여러 법안을 내어놓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 이 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사회적 제자도를 실천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서 이번에 서울 선언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 되지 않도록 선언하는 것이 있기를 한국의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이 바랐던 것이다.

아직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안 되는 나라들에서는 앞으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서구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조하면서 앞으로 이런 성쥬류화(gender mainstreaming) 운동이 몰려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사회적 제자도

를 실현하는 것의 한 부부이다.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 서울 선언의 과학 기술 문화(technology)에 대한 선언(88항-97항)은 그런 사회적 제자도의 실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간명하면서도 분명하게 해 준 예로 높이 사면서 언급해야 할 것이다. 나라마다 과학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적적하고 옳은 반응을 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대답이 없는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런 대회의 선언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원회가 계속 논의할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제자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동성에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성경적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선언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향후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그리고 바라기는 모든 기독교 운동에서는 이런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모든 죄와 함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러나 동성애자들과 잠재적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듣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위한 목회적 돌봄도 제공하며 이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 집단(supporting group) 역할을 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성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 선언의 진정한 의도에 충실하게 모든 기독교 adnsehd이 나타나며, 이것이 사화에도 간접적 연향을 미칠 수 있기 바란다.

나가면서

전술한 네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로잔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핵심은 로잔에 1974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과연 복음주의자들의 세계복음화 운동으로 있을 것이지, 아니면 그 성격을 고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때 결코 하지 말하야 할 것은 (오랫동안 많은 소위 연성 복음주의자들(soft evangelicals)이 그렇게 한 바와 같이 복음주의라는 말의 범위를 너무 넓혀서 결국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만드는 일이다. 또한 복음주의를 너무 좁혀서 사회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후대의 근본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안 된다.[53] 그런 두 가지 극단이 아닌 "진정한 복음주의" 운동

53) 이는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팜플렛이 나올 때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을 강조하던 넓은 의미의 근본주의와 후대의 좁혀진 근본주의를 구별하여 하는 말임을 이 논의를 잘 이는 분들은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주의는 초창기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던 그런 운동이다. 후기의

을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이때 우리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난 40년 이상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을 살피면서 최근의 그 동향을 염려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근자에 나타내 보이는 잘못된 동향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음주의 운동**으로 나타나도록 제안하셨던 데이비드 웰스 교수나[54] 복음주의 신학의 방향을 제안했던 리쳐드 린츠 교수와 같은 분들의 제안이다.[55] 복음주의가 그런 방향으로 이해되고 발전해야 희망이 있다.

그리고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때때로 하는 로잔 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15여년 후에 있을 〈5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에서는 **각국의 대표자들이 소수로 모여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그것을 이번처럼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각국에서 시청하면서 참여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략을 짜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으로 나아 갈 생각을 하지 말고, 각국 대표자들이 논의하되 이번 4차 대회에서 일부 시행했고 서울 선언이 잘 밝힌 바와 같이 로잔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도 발전하는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넓게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복음주의적 성격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제발 로잔 운동이 **과연 복음주의적인 모임인지를 묻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으로 있어야만 한다. 로잔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의 성격을 상실하면 로잔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요청을 강하게 하려 한다.

(1) 성경의 무오성을 1974년 로잔언약에서 강조한 한 바와 같이 강조해야 한다. 그 동안 이점을 계속해서 분명히 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그 함의에 충실해야** 한다.

(2) 그러니 성경에 충족성(sufficiency)을 강조하면서 성경 외에 그 어떤 다른 계시가 더 해 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운동들이 다 배격되어야

좁은 의미의 근본주의는 칼 메킨타이어의 ICCC 중심의 근본주의를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초창기의 근본주의이지 후기의 좁아져서 사회와 문화와의 관여를 피하여 살려하던 잘못된 근본주의가 아니다.

54) Cf. David Wells, *No Place for Truth or Whatever Happened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3); idem, *God in the Wasteland: The Reality of Truth in a World of Fading Dreams* (Grand Rapids: Eerdmans, 1994); idem, *Losing Our Virtue: Why the Church Must Recover Its Moral Visi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idem, *Above All Earthly Powers: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2005);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하여 낸 *Courage to Be Protestant* (Grand Rapids: Eerdmans, 2008). 그리고 이 모든 책에 근거하여 데이비드 웰스의 현대 문화 분석과 현대 복음주의 운동 분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승구, 『데이비드 웰스와 함께하는 하루』 (서울: 말씀과 언약, 2021)을 보라

55) Richard L. Lints, *The Fablic of Theology: A Prolegomenon to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93).

한다. 신사도 운동이나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가진 운동들은 모두 배제되어야 한다.

(3) **성경에 참으로 복종하려는 모습**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말로만 성경의 군위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4) 우리 사회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한 그동안의 강조와 특히 이번 선언의 강조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5)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각 사회의 여러 문제 속에서 **사회적 제자도를 실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금 한국사회 속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그런 사회적 제자도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고 실천해야 한다.

발 표 2

제 4차 로잔대회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유종필
동산교회 담임, 선교학

들어가는 말

2024년 9월 22일~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The Fourth Lausanne Congress)가 열렸다. 200개국에서 5,394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100여 개국에서 2,000명이 참석하였다. 자원봉사자가 해외 494명, 국내 1,600명으로 2,094명이 수고하였다. 중보기도자로 6,888명이 헌신했고 161개국에서 30,000명 이상이 생중계로 대회를 시청하였다.[1] 더욱이 이번 대회가 1974년 1회 스위스 로잔대회 이후 5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

주제 강의로 “부흥” “선교적 공동체” “박해와 선교” “일터 사역” “섬기는 지도력”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있었고, 소그룹 협업 모임(GAPs)은 크게 여섯 개 영역에 25개의 주제가 있었다.

복음 전파 (REACHING PEOPLE)	(1)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The Global Ageing Population) (2) 새로운 중산층 (The New Middle Class) (3) 다음 세대 (The Next Generation) (4) 이슬람 (Islam) (5) 세속주의(Secularism) (6) 최소 복음화 민족 (Least Reached Peoples)
디지털 시대의 사역 (MINISTRY IN A	(7) 디지털 시대의 성경 (Scripture in a Digital Age)

1) https://youtu.be/6E8LDhntztc (제4차 로잔대회보고 영상)

DIGITAL AGE)	(8)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성 (Church Forms in a Digital Age (9) 디지털 시대의 제자훈련 (Discipleship in a Digital Age) (10) 디지털 시대의 전도 (Evangelism in a Digital Age)
인간됨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HUMANNESS)	(11) AI와 트랜스 휴머니즘 (AI and Trans humanism) (12) 성과 성별 (Sexuality and Gender) (13) 전인 건강 (Wholisic Health)
다중심적 선교 사역 (POLYCENTRIC MISSIONS)	(14) 다중심적 선교 (Polycentric Missions) (15) 다중심 자원의 동원 (Polycentric Resource Mobilization)
선교와 거룩함 (MISSION & HOLINESS)	(16) 정직과 반부패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17) 통합적 영성과 선교 (Integrated Spirituality and Mission) (18) 지도자 품성 개발 (Developing Leaders of Character)
공동체에서 증인 되기 (BEARING WITNESS WITHIN COMMUNITIES)	(19) 이주민 (People on the Move) (20) 도시 공동체 (Urban Communities) (21) 디지털 공동체 (Digital Communities) (22) 인종주의(민족주의)와 인종차별 (Ethnicism and Racism)
사회적 상호교류 (SOCIETAL INTERACTION)	(23) 기독교, 급진 정치, 그리고 종교적 자유 (Christianity, Radical Politics and Religious Freedom) (24) 창조 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Caring for Creation and the Vulnerable) (25) 사회적 신뢰와 기독교의 영향력 (Social Trust and Influence of Christianity)

행사는 강의와 간증, 토론 그리고 집회로 이어졌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를 경험하면서 몇 가지 평가와 전망을 해본다.

I.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이번 로잔대회는 한국교회의 역량을 입증하였다.**

① 호스트로서 한국교회의 역량이 수준급이었다. 개회 예배 때의 찬양대의 수준이 압도적이었고, 목요일 "한국인의 밤"에서 발표한 한국선교 역사를 12돌이라는 개념으로 발표한 것은 한국교회의 역사적 이해와 분별력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내용도 한국 기독교 역사의 명암을 객관적으로 본 것이 높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한국교회의 발전상과 함께 오늘날 한국교회의 한계와 반성은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보여주는 좋은 안목이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을 영상과 함께 뮤지컬로 선보이면서 K-Culture의 우수성까지 입증하였다.

② 스텝들의 섬김이 돋보였다. 스텝들은 대체로 상냥하고 친절했다. 참가자 중의 한 분은 "나는 한국보다 한국인이 더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깔끔하고 친절합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봉사자들의 태도와 밝은 표정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주었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라고 했다.[2] 이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③ 경비 조달이 잘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 행사를 위하여 들어갈 막대한 경비를 한국이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하였다. 하지만 한국 대표 이재훈 목사는 "행사를 치르는 데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한다. 이것 또한 한국교회의 저력으로 평가된다.[3]

④ 한국교회와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로잔대회는 기독교 행사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위상과 한국의 위상까지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는 가치이다.

(2)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써 의미가 크다.** 전 세계인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도 복음을 중심으로 세

2) Ibids.

3) 이 부분은 향후 구체적인 재정 보고를 통하여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최 측에서는 재정 보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만 보고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주최 측에서 직접 제공하는 결산을 보고 관련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 비록 외부 공개는 아니더라도 재정의 투명성은 짚고 가야 한다. 일부에서는 총경비 규모와 정부 보조금과 사용 내역에 의문을 품고 있다. (참고, <크리스천 투데이> "제4차 로잔대회에 즈음한 기독교의 방향 모색" 2024년 1월 22일 기사.

계인이 하나가 되는 자리는 복음의 능력이 세계적임을 보여준다. 복음 안에서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지구촌을 품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지구촌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나아가 누구나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다는 성경적 증언의 실현이다.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며 교제할 때, 각 나라의 실상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한 여인의 인신매매 경험담은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크리스천들의 고백을 통해서는 적대국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도 보여주었다. 나아가 로잔대회에서 만난 인연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형성은 세계 크리스천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는 역할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4차 로잔대회는 모임 자체로 의미가 크다.

⑶ **21세기 선교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강조되었던 선교 사상이나 단어는 향후 세계선교의 균형과 효과를 더할 것이다.

① **“선교와 연합”**: 이번 대회에서는 유난히 “collaborate”이나 “Together”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세계선교에서 필수임을 일깨웠다. 1910년 에든버러 대회의 개최 동기나, 그 후 다양한 교회 연합 운동은 세계선교가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는 이루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 또한 하나됨이고 연합이라는 점에서 이런 강조는 지당하다. 이러한 강조가 오늘날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합과 하나됨은 고사하고 계속 분열하는 기독교의 역사는 현 기독교가 풀어야 할 난제이다. 그러기에 이번 로잔대회에서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 것은 다시 한번 세계 기독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여전히 교회는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외침은 귀한 일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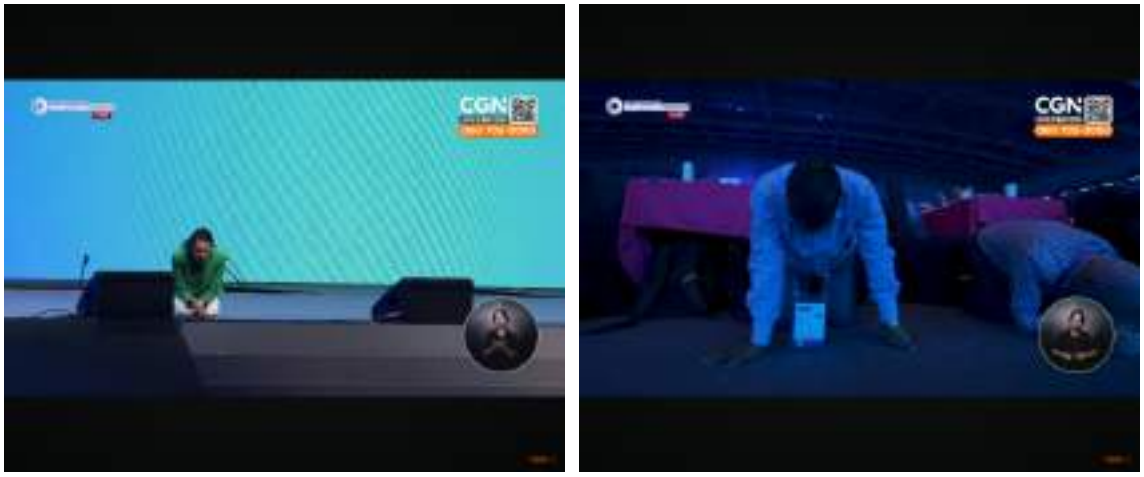
②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 1963년 멕시코 시티 선교대회

에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를 천명하였다. “육 대륙에서(in) 육 대륙을 향한(to) 선교이다.”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선교이다. 선교는 모든 지역,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선교의 출발지는 교회가 있는 모든 곳이고, 선교의 목적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곳이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1909-1998)이 인도에서 사역하고 본국 영국에 돌아갔을 때 ‘영국은 이미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다. 한때 선교국이 피선교국이 되고, 피선교국이 선교국이 되고 있다. 선교 주최지와 피선교지의 개념이 바뀌었다.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선교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선교하는 쌍방향의 선교 시대가 되었다. 20세기 선교가 서구 중심의 선교였다면 21세기 선교는 “다중심적 선교”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선교이다. “다중심적 선교”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선교”(partnership mission)로도 이해된다. 서로서로 필요로 하는 선교이다. 국경, 문화,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이다. 한때 “선교”를 “기독교 제국주의(Christian Imperialism)” 혹은 “기독교의 종교적 식민지화(Christian religious colonization)”로 오해한 적이 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으로 선교(특히 기독교 선교)는 힘 있는 나라에서 힘없는 나라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속시키는 식민 행위로 본 것이다. “다중심적 선교”에서는 최소한 그런 주장을 불식한다. “다중심적 선교”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하는 대등한 위치의 상호협력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선교이기 때문이다. 로잔대회는 다중심적 선교의 필요성을 보았고 확인하였으며 선포하였다.

③ “**회개와 부흥**”(Repentance and Revival): 종교다원주의의 종교 간 대화는 “회개”를 금한다. 기독교가 “회개”를 강조하는 순간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화하려는 독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우월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종교 간 평화를 유지하기 이해서는 “회개”를 말하지 않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기독교의 회개는 모든 종교가 오직 기독교로 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하고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공통으로 회개의 역사

가 있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래서 이번 로잔대회에서는 첫째 날부터 “회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회개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나선 세라 브뤼엘(Sarah Bruel)[4]은 1857년부터 1858까지 맨해튼의 10% 사람이 정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였고, 모라비안들의 100년간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1727년 현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1904년 한국의 부흥도 웨일스의 부흥 운동의 결실로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부흥 운동에는 회개의 역사가 필수였음을 말한다. 그녀는 강조한다. “**회개가 부흥의 길을 열어 준다.**”(Repentance paves the way for revival) 그 사례로 성경의 요시아의 개혁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회개 사역을 들었다. 이렇게 회개가 수반된 부흥 운동이 웨슬리 때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다양한 성경협회가 만들어졌으며 오늘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9개 중의 6개가 그 결과임을 말하였다. 그녀의 말처럼 회개는 복음 활동의 기본이고 부흥 운동의 필수이다. 선교에서 회개 운동이 없다면 기독교 부흥도 기대할 수 없다. 회개는 기독교의 기본인데 실제 선교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에 “회개”를 수반한 “부흥”의 강조는 복음의 본질을 되새겨주며 향후 선교가 이러한 선교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자료 사진 1〉



4) 세라 브뤼엘(Sara Bruel)은 기독교 잡지 Christianity Today의 ‘33세 이하의 33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Revival Europe의 설립자이다. 현재 그녀는 Revival Europe의 총괄 디렉터로서 로마에서 교회 개척자로 활동하며 부흥과 복음 전도에 철저히 헌신하고 있다. (제4차 로잔대회 본부 제공)

④ "**세상을 품는 선교**": 이번 대회에서는 25개의 협업 소그룹(Gap) 중의 하나가 "세속주의"(Secularism)이다. 여기서는 "세속주의"를 "세속화"(Secularization)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세속 사회 속에 심어질 수 있는지 토론하였다. 기독교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복음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세속의 죄악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죄를 금하고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용어상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과 죄인을 품고 그들을 선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Issue)는 다양하고 수시로 바뀌기에 세계 기독교인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네트워크도 구성하였다. 현존하는 세계적 문제는 성도가 각개전투로 이기기 힘들기에 연대하는 팀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것이 세계를 품은 기독교의 세계선교를 이루는 방법임을 말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단지 이론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팀 구성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는 자리였다. 향후 세계선교의 좋은 시도로 보인다. 기독교가 세계를 품지 못하면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은 계속되는 과제이다.

〈자료 사진 2〉

⑤ "**젊은 지도자들(Younger Leaders)에 대한 부름**": 로잔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목한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주고 밀어준다. 대표적인 예로 2026년에 젊은 리더를 위한 브라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무적인 사역이다. 이 땅의 복음주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며 같이 고민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

도 많은 젊은 리더들을 참여시킨 것은 기독교의 다음 세대 준비에 좋은 기여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기독교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⑥ “Integral(Holistic) Mission”(통합적-총체적 선교): “통합적 선교”와 “총체적 선교”를 따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하지만, 취지는 같다. 복음의 사회적 책임이다. 세계선교에서 로잔이 이바지한 것 중의 하나는 “복음의 우선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강조이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사회적 책임이 없는 복음의 우선성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복음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고 사회적 책임은 복음으로 가능함을 말한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한다. 비록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복음으로 사회를 책임지겠다는 천명은 성경적이고 바람직하다.

정리하자면 제4차 로잔대회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로잔대회가 한국교회의 역량을 입증하였다는 것과 복음 안에서 인류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나아가 21세기 선교 메시지는 “연합”의 당위성,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의 필요성, “회개와 부흥”(Repentance and Revival)의 필요성, "세상을 품는 선교" “젊은 지도자들(Younger Leaders)에 대한 참여” 그리고 “Integral(Holistic) Mission”(통합적-총체적 선교)으로 “복음의 우선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와 같은 것이다. 그 외에 25개의 GAPs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2. 부정적 평가

(1) 신학적 혼란

① **로잔의 정체성 혼란**: 로잔의 신학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일부 로잔대회를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로잔이 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유는 창설자 존 스토트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복음주의자가 아니어서 초기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로잔이 실제로 복음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복음을 복음 자체로 강조하기보다 복음이라는 이름으

로 사회적 책임에 치우쳐서 가톨릭이나 이슬람과의 형제 의식, WCC와 맥을 같이한다고 본 것이다. 로잔 내부에서는 이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자신들이 순수 복음주의자라고 하지만, 보여지는 신학적, 선교학적 모습은 다르다. 그 실제와 변증이 충분하지 않다. 로잔 선언에서 발표한 것만으로 복음주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로잔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변증이 부족하여 로잔은 여전히 그 정체성에 의문을 남긴다. 이것은 단순히 로잔에 대한 시기나 질투, 혹은 트집 잡기로만 여길 수 없다.

② **성령론에 대한 혼선**: 이번 로잔대회에서는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 사역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교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수 신청을 했더니 정교수가 되었다는 간증이나, 성령의 역사로 '흙이(?) 밀가루로 바뀌고 물이 기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간증이다. 말레이시아 감리교 목사이면서 교수인 화 융[5]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선교" 강의에서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불빛(Fire ball)을 제시하였다.

〈자로 사진 3〉

화 융은 이러한 역사를 제시하면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강의를 마쳤다. 첫째, 성령이 오늘날 기적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것과 무엇이 다른가? (First, for those of us who have been taught that the

5) 화 융은 말레이시아 감리교회의 명예 감독이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목회자로서 평생 전도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보여왔다. (로잔본부 제공)

Holy Spirit no longer does miracles today, how does this story differ from what we read in the New Testament?) 둘째,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 100년간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중동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는가? (Second, are we aware that this is not an isolated story but one that has been repeated in many places in Africa, Asia, Latin America and the Middle East in the past 100 years?) 셋째, 복음 사역과 선교, 교회 개척, 전략적인 계획 등 얼마나 많은 공간을 성령에게 주어야 하는가? (Third, how much space do we give the Holy Spirit in our ministry of evangelism, mission outreach, church planting, strategic planning and the like?) 그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룬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비록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고 때로는 초자연적이며 초이성적인 역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보편적 현상이나 정설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사한 현상들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처처에서도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 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령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복음을 깨닫게 한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한다.

[개역개정]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개역개정]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개역개정]고전 2: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개역개정]고전 2: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하였노라.

③ **사도신경의 차이**: 이번 로잔대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the holy catholic church"를 “the holy universal church”로 바꾼 것은 기존의 가톨릭교회와 구분 짓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그리고 “he descended the hell”을 “he descended the

dead"로 바꾸어서 고백하였다. 아마도 라틴 원문과 영문에 충실한 고백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이 분분하고 오해의 여지가 커서 한국교회에서는 고백 되지 않는다. 굳이 이것이 고백 되어야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지옥 강화설"이나 루터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승귀"의 첫 단계인지, 혹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혼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국제 로잔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면 한국 로잔에서라도 밝히는 것이 좋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로잔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④ **기도의 중보자는 누구인가**? 로잔에서 한 분이 기도를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한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혼란으로 평가된다.

⑤ **한국 이단에 대한 무지**: 아프리카에서 온 몇 참여자 중에는 한국교회의 이단 구분이 전혀 없었다. 어떤 이는 "만민중앙교회"와 "베뢰아" 심지어 "신천지"까지 연관되어있었다. 그들은 이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단에 대한 인식 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로잔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가능한 한 신학적 차이를 수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수용과 연합을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신학적 차이를 다 다루기에는 양이 방대하다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로잔본부는 강사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신학적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정한 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선교학적 혼란

① **"복음과 사회적 책임"의 양비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로잔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개의 날개(영역)를 서로 연결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도식은 "복음"

과 “사회적 책임”을 동등한 무게를 지닌 두 축으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 대등하게 대조될 성질인가? “복음”과 “사회적 책임”은 “이것과 저것”이라는 양비론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복음”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약화 혹은 간과 될 수 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한다. 성도의 “사회적 책임”은 “복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현상이다. (로잔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현상에 오해가 있다) 오늘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날개를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하고 무엇이 복음적 삶인지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삶이 복음 자체를 능가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삶도 능가하는 힘이다. 즉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동등한 무게로 동일선상에 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복음적 삶을 배워감으로 사회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날 성도들의 과제는 복음적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적 삶인지 배우는 것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문화 속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 복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의 구원의 완성은 미완성 사역으로 전락한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꼴이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양비론으로 전제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로 평가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로잔에 의하여 복음이 약화되거나 간과되는 것을 우려한다.

② **“온전한 복음”과 “온 세계”와 “온 교회”란 무엇인가?** 로잔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선언이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온 교회”란 교회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때도 그것이 복음과 사회참여의 균형이나 상호적 긴밀성 정도로 말한다면그것을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더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온 세상”은 또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1980년 멜버른 선교대회에서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가난한 사람을 향한 선교”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선호하기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단지 적선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착취와 빈곤을 만드는 제도적 사회적 힘에 맞선 투쟁을 권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힘없이 차별받고 소외된 주변인으로 보았다. 그들이 선교가 가야 할 세상이었다. 즉 선교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이라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해한 것이다. 로잔도 이런 개념으로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온 세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기존의 "온 세상"을 지리적인 영역으로써 "전 세계"로 보았다면 19세기에 "온 세상"은 "가난한 자"가 있는 곳이었다. 순수한 복음주의에서 "온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이 가정일 수 있고 지구 반대쪽의 사람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부요한 사람일수 있다. "온 세상"의 핵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로잔에서 "온 세상"이 어디를 말하는지 분명히 설명하지 않으면 로잔의 선교 정신은 오해받는다.

③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 이번에 강사로 참가한 루스 빠딜라 드보스트(Ruth Padilla DeBorst)[6]는 "정의"를 강의하였다. 그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말하며 하마스의 침공과 납치사건도 잘못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이란의 공격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한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작금의 이스라엘의 공격행위는 정의(Justice)에 반하는 불의(Injustice)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미국도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녀의 "정의"에 대한 강의는 일파만파가 되었다. 강의 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침내 조직위원장(Congress Director) 데이비드 베넷(David Bennett)은 다음날 참가자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 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로잔이 아직도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라며 비판하고 비서구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7] 현존하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을 보면서도 무엇이 정의인지 엇갈리는 시선이다. 로잔은 여전히 정의(Justice)를 말하지만,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부터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8] 정의와 불의를 규정하는 근거는 무

6) 루스 빠딜라 데보리스트(Ruth Padilla DeBorst)는 미국 Western Theological Seminary의 부교수로서 코스타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걸쳐 평생 헌신해 왔다. (로잔본부 제공)

7) CBS 뉴스(2024. 10. 7) 참고

8)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은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에서 도덕적 신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도덕적 딜레마가 생길 때 이성의 역할이 필요함을 말한다. 정의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 원칙으로도 결정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고 국가나 법이 이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의 한계도 말한다. 나아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도덕론"이나 평등을 강조한 존 롤스(John Rolls)의 이론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정의는

엇인가? 그 논의부터 필요하다. 누군가의 정의는 다른 누군가에게 불의가 되고, 누군가의 불의는 또 다른 누군가에 정의가 된다. 그런의미에서 빠딜라 드보스트 교수의 단정은 너무 주관적이고 성급했다는 인상이다.

(3) 연합(union)과 일체(unity)

복음주의는 복음의 기본 틀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수용하려고 한다. 이것의 장점은 순수 복음(Pure Gospel)을 수호하면서 그 복음을 중심으로 신학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회적, 시대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의 지적처럼 이것은 "닫힌 복음"이 아닌 "열린 복음"이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도 그런 성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즉 신학적 차이로 인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다.

우리는 "연합"에 대하여 WCC(세계교회협의회)식의 연합으로부터 이미 역사적 교훈을 받았다. WCC 연합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의 포용주의(Inclusivism) 연합이다.[9] 한 걸음 더 나아가 용공주의(容共主義)와 동성애 주의자를 포함하여 성 소수자들(LGBTQ[10])들까지 수용하는 **혼합주의(syncretism) 연합**이다.[11]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순수한 정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텔로스"에 합한 "좋은 미덕"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열린 질문(open-ended question)**으로 본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좋은 삶을 함께 고민하며 이에 따르는 이견을 수용하는 문화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정의란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선으로 단정할 수 없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이성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로잔을 비롯하여 인류는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단정하기에는 난해함이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성경적 개념으로 "공의" 함께 논할 때 그 차이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공의와 정의의 다른 점을 어떻게 말 해할지 그 의미는 더 심오해진다. 한국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히브리어 미쉬파트(**fP;v]m**)와 쩨데카(**hq;d;x]**)를 반대로 번역하였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음을 보인다.

[개역개정]렘 9: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dseje)과 정의(hq;d;x])와 공의(fP;v]mi)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개정]암 5:24
오직 **정의(hq;d;x])**를 물 같이, **공의(fP;v]m)**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9)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다원주의를 거부한다. 즉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같은 한 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며 믿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 종교의 어떤 신과 같이 취급될 수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시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다른 구원자와 동일시될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부여한 제2, 제3의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김영한 박사의 지적처럼, WCC는 종교의 다원성(plurality)을 표명하면서 종교다원주의(pluralism)에 빠졌고 기독교 선교를 포기하게 했다. 이는 선교 유예(猶豫)(mission moratorium)로써 반 개종(anti-proselytism) 선언이다. (김영한, "WCC는 종교 대화, 개종, 에큐메니컬 운동을 기독교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행할 수 있어야" 제19회 기독교학술원 영성 포럼, 2013. 5.3) WCC 포괄주의는 연합과 일치에 대한 혼돈의 결과물이다.

10)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본다. **WCC 연합의** 개념오류는 **"일체"(unity)**와 **"연합"(union)**에 대한 혼돈이다. 즉 신학적 일체와 문화적(사회적) 연합의 혼돈이다.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속성 중 하나는"통일성"(unity)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지체로서 "하나의 교회"(una ecclesia)를 말한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영적인 일체(unity)이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 중심의 정치적인 일체(하나)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미 하나로 교회의 통일성(일체성)을 가지고 있다. (갈3:28; 고전 10:16, 17; 12:12,1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미 교회는 하나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다르면 교회는 일체(하나)가 되지 않는다. G.C. 베르까우어는『개혁주의 교회론』에서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이 존재한다."라고 하였고 "교회의 (외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교회 연합(ecumenism)이 있음"을 강조한다.[12)]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신학의 일체와 그것을 근거로 한 연합이다. 신학적인 일체(하나됨)가 전제된 연합이 바른 연합이다. 즉 바른 연합은 근본적으로 신학적 일체에서 나온다. 오늘날 교회 연합 운동의 문제는 부적절한 대상과 부적절한 일체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WCC 연합이나 정치적 연합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신학의 공통분모로 공교회성을 확인하면서 함께 할 목표에 따라 연합할 때 건강한 연합이 된다.

로잔은 효과적인 세계선교에 있어서 세계 교회의 연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교회가 연합할 때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학적인 불일치로 인한 연합은 가시적인 연대에 불과하다. 내적인 일체감은 없다. 단순히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그것은 성경적인 요청이라는 단순 논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연합을 말하면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넓은 아량의 사람으로 치부하고, 연합을 거부하면 고집적이고 폐쇄적이며 졸렬한 분파주의자라고 단정 짓는 것도 편협한 사고이며 허세이다. 기독교를 언급한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을 말한다고 다 성경적이 아니듯이 연합을 말한다고 다 바른 연합은 아니다. 연합은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연합"은 경계할 일이다.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지 연합의 대상도 중요

11) 2013년 부산 제10차 WCC 대회를 앞두고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대타협 선언문을 보수진영의 주장에 맞추어 발표한 적이 있었으나 그 선언문은 신학성과 진정성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아직도 WCC에 대한 공방은 남아 있으나 역사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들은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2) G. C. 베르까우어.『개혁주의 교회론』나용화. 이승구 역 (서울: CLC, 2008) p. 390.

하고 신학적 일체도 중요하다. 결국 일체(unity)가 없는 연합(union)은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분열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신학적인 일체성을 찾는 것이 사회적인 연합을 찾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이다.

(4) 소통의 한계:

① 대체로 영어를 중심으로 소통하였으나 개중에는 영어가 익숙지 않아서 언어적 장벽으로 참가자들과의 소통의 한계가 있었다.

② 참가자와 비참가자들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로잔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오해나 편향된 이해로 인한 비판자와 반대자들의 목소리, SNS를 통한 로잔 운동에 대한 반대 영상들 즉, 로마 가톨릭에 우호적인 신복음주의에 동조. 신사도 운동, 종교다원주의, WCC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름의 반론 영상으로 대응한 점은 잘했다.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 언급이 없어서 동성애에 대한 가능성을 연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③ 로잔대회 당일 대회장 밖에서 로잔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주장에도 아쉬움이 있다. 일단 그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이나 피켓이 세계인이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The anti-discrimination law is the law of the anti-christ."라고 쓰여있다.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은 적그리도 법이다.”라는 문구이다. 이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로써 반대한다는 전후좌우 내용이 없다. 그냥 ‘차별금지법이 적그리스도 법이라’는 문구는 외국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 이 또한 소통의 한계로 보인다.

〈자료 사진 4〉

정리하자면, 부정적 평가로는 먼저 “신학적 혼선이다. 로잔의 정체성과 성령론에 대한 혼선, 사도신경의 차이, 기도의 중보자에 대한 이해 차이, 그리고 한국 이단에 대한 무지이다. 선교학적 혼선으로는 “복음과 사회적 책임”의 양비론, “온전한 복음”과 “온 세계”와 “온 교회”에 대한 이해, “정의”에 대한 이해와 같은 것이다. 나아가 연합(union)과 일체(unity)의 혼선과 소통의 한계로 참여자들의 소통, 참가자와 비참가자들과의 소통의 한계이다.

II. 전망

1. **로잔대회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어야 한다.** 로잔대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다. 이 사명은 꺼지지 않고 꺼질 수 없다.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신성한 명령이다. 세계 교회는 세계 복음화라는 명제를 어떻게 실현할지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민해야만 한다. 그 과정과 방법의 일환으로써 로잔대회는 그 역할이 독특하다. 혹자는 그 정도의 경비와 에너지를 한시적인 집회에 사용하기보다 이미 정착하고 활동적인 다양한 세계 선교활동을 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로잔대회는 로잔대회만이 주는 효과가 있다.

(1) **로잔대회가 기존의 선교개념을 바꾼다**. 로잔대회는 세계에 흩어진 사역자들이 자기의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는 장이다. 기존의 선교는 선교부에서 파송된 사역자들에 의한 선교라면, 지금의 선교는 이미 교회를 구성하고 사역하는 세계 현장의 사역자들에 의한 선교방식이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선교”이고, “보편 선교에서 개체 선교”가 아닌 “개체 선교에서 보편 선교”로 가는 선교이다. 선교의 핵심은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변적인 상황에 심는 것이다. 선교의 상황성은 곧 시대성과 현실성을 말한다. 상황성이 있는 선교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런 선교를 로잔대회가 돕는다.

(2) **로잔대회가 전 세계 성도를 하나로 묶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세계 속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 확인은 큰 격려가 된다. 마치 내 주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아직 7,000명이 있다는 사실 확인에서 오는 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며 격려하고 격려될 뿐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과 회개를 하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자기만이 새롭게 깨닫는 교훈을 얻는다. 나아가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

가 다르고 나라와 이념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요한계시록 7장의 천상의 예배를 맛보며 그날을 사모하게도 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계 7:9~12)

(3) **로잔대회는 사역자로 세계를 품게 한다.** 지역 현장에 갇히기 쉬운 사역자들에게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준다. 현장에서 행하는 나의 작은 사역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역할이라는 긍지를 갖는다. 마치 마당쇠가 단지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역하는 것과 같다. 로잔대회에서 지구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들으며 보다 실제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공조하게 된다.

(4) **로잔대회는 사역자의 지구촌 네트워크 구성에 도움을 준다**. 당일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로 맺어진 네트워크도 있지만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이슈 트랙 같은 것을 동하여 네트워크 구성이 쉽다.

2. **로잔은 도전을 계속 받을 것이다**. 하나는 신학적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당면 과제로 인한 도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잔은 명실상부한 팅크 탱크(think tank)가 필요하다, 검증된 로잔 전문 위원들이 구성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신학과 선교학, 목회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복음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계속 주어지는 도전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대안을 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 밀려오는 도전에 응전할 수 없다면 로잔은 물론 기독교는 무력해질 것이다.

3. **로잔은 복음적인 다음 세대를 세운다**. 세상은 흉흉해도 복음에 목마르고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은 젊은이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싶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 조금만 여건을 만들어줘도 힘있게 싸울 수 있다. 로잔이 국제적으로 뜻있는 젊은이를 모으고 도전을 주고 격려한다면 그들은 다음 세대 복음화에 큰 일꾼이 될 것이다. 이번 로잔대회에서 만났던 젊은이들의 사모함과 의욕을 보면서

세계 교회의 참 값진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4. **로잔의 위기도 올 것이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로잔이 제도화되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는 것이다. 지금도 4차 로잔대회를 치르며 일각에서는 이 또한 WCC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한다. 로잔의 위기를 초래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1) 로잔이 복음의 능력을 잃을 때이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잃을 때 로잔은 더 이상 복음적인 사역은 안 된다. 그 능력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기에 이론으로 말할 것이 아니다.
   (2) 로잔이 정치화될 때이다. 로잔이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 로잔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복음은 이념까지 초월하여 하는 것인데, 도리어 정치적 이념으로 좌우된다면 로잔은 더 이상의 그 역할을 못 하게 된다.
   (3) 로잔에 소속되어 실무를 보는 사역자들이 로잔의 정신인 HIS- 겸허함(Humility), 순수함(Integrity), 검소함(Simplicity)을 잃을 때 위기가 온다. 사심과 사욕을 버리고 사도 바울같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무친 마음으로 생명까지 내놓은 헌신자들이 로잔의 실무자로 서야 한다.

5. **하나님은 로잔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로잔의 장점은 “복음의 우선성”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이다. 로잔의 순수성과 신학적인 건강함과 방법론적인 지혜가 더해짐으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실 것이다.

정리하자면 향후 로잔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도 로잔대회는 계속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이유는 로잔대회가 기존의 선교개념을 정리하고 전 세계 성도를 복음으로 묶으며 성도로 세계를 품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로잔대회는 지구촌의 모든 사역자를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로잔은 복음적인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도 로잔은 도전을 계속 받을 것이다. 하나는 신학적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당면 과제이다. 로잔의 위기도 올 것이다. 그때는 로잔이 복음의 능력을 잃을 때이고 정치화되며 로잔의 봉사자들이 HIS- 겸허함(Humility), 순수함(Integrity), 검소함(Simplicity)을 잃을 때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로잔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으로 본다.

나가는 말

2024년 9월 22일~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차 서울-인천 로잔대회”(The Fourth Lausanne Congress)는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가 만든 큰 역사이다.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역량을 보여주었고 복음 안에서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리고 21세기 선교를 위한 다양한 핵심 메시지를 남겼다. “선교와 연합”의 필요성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의 필요성, “회개와 부흥”(Repentance and Revival)의 필요성, "세상을 품는 선교" “젊은 지도자들(Younger Leaders)에 대한 부름” “Integral(Holistic) Mission”(통합적-총체적 선교)으로 “복음의 우선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교와 같은 것이다. 그 외에도 “일터 선교”와 “디지털 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적 이슈를 남겼다. 비록 신학적인 혼선 있어서 로잔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성령론에 대한 혼선과 사도신경의 국제적 차이, 그리고 기도의 중보자와 한국 이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고, 선교학적으로 “복음과 사회적 책임”의 양비론이나 “온전한 복음”과 “온 세계”와 “온 교회”에 대한 이해, “정의”에 대한 이해, 연합(union)과 일체(unity)에 대한 혼선과 소통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로잔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다. 로잔대회는 필요하다. 로잔대회는 시대적인 선교개념을 정리하고 전 세계 성도를 복음으로 묶으며 성도로 세계를 품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로잔대회는 지구촌의 모든 사역자를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로잔은 복음적인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로잔은 계속 신학적 도전과 시대적 지역적 당면 과제로 도전받을 것이다. 이것을 잘 대처하면 한층 선한 영향력이 크겠지만, 대처하지 못하면 큰 위기도 예상된다. 로잔이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치화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다. 그리고 로잔의 모든 봉사자는 겸허함(Humility)과 순수함(Integrity)과 검소함(Simplicity)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로잔을 귀하게 쓰실 것으로 기대된다.

발 표 3

로잔 제4차 대회 평가와 전망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학

I. 들어가는 말

로잔운동과 필자의 관계는 비교적 길고도 깊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한국로잔교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때 교수회장으로 봉직한 경험도 있다. 2024년에 로잔 4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로잔운동의 좌표와 전망』[1]이란 책을 집필하여 로잔운동을 널리 알렸고, 여러 기독교 신문들에 로잔 관련 글들을 기고한 후 그 글들을 보완하고 편집하여 *The Future of the Lausanne Movment*[2] 라는 영문책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금번 로잔 4차 대회에서는 24년 9월 21일 토요일에 개최된 지도자 리셉션부터 마지막 날인 28일 토요일에 행해진 성찬식까지 참여하였다. 즉 필자는 로잔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로잔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연구와 참여를 하였다.[3]

이 글은 기독교학술원의 요청으로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2장에서는 로잔 제4차 대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로잔 제4차 대회의 개요 및 간략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로잔 4차 대회의 주된 기여점 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로잔운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여하는 운동이 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로잔 4차 대회의 전과 후로 로잔 4차 대회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은 많이 나왔지만 학술적인 글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로잔 운동의 지속적

1) 안승오, 『로잔운동의 좌표와 전망』(서울: CLC, 2023).
2) Paul Seung-0h An, *The Future of the Lausanne Movement* (Amazon: Global Mission Research Center, 2024).
3) 로잔과의 연관성에 대한 필자의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글의 4부에서 제시하는 로잔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필자가 로잔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로잔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미리 밝히고자 하는 마음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술된 이 평가와 전망은 로잔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로잔 제4차 대회 행사의 개요 및 내용

1. 로잔대회의 기본 개요 및 성격

로잔 제4차 대회는 2024년 9월 22일~28일 대한민국 인천(서울)에서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대회는 222개국으로부터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로도 161개국의 3만5천 명 이상이 참여한 복음주의권의 가장 대표적인 회의로서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교회의 선교 과제를 논의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4)]

로잔 4차 대회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 소개 글에서 로잔 4차 대회의 기본적인 성격과 방향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에 “모든 로잔 문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지역에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와 사회 분야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생생하게 지속되는 대화의 일부이다.”[5)]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이번 4차 대회가 기본적으로 복음 전도, 교회 세움,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양성,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교류와 연결 등을 지향하는 모임인 것을 말하고 있다.

2. 대회의 주제

대회의 주제라는 것은 그 대회의 핵심 목표를 표현한 문구로서 그 대회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금번 대회의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인데, 대회 홈페이지에는 이 주제의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

4) 대회 홈페이지에 대회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는데 그 중의 일부를 보면, “로잔운동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을 연결하는 것을 핵심 사역 방향으로 삼고 있다. 1974년(스위스 로잔), 1989년(필리핀 마닐라),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이어 2024년(대한민국 송도)에 50주년 기념 제4차 대회가 열린다.”고 기술되어 있다.
로잔운동, “제4차 로잔대회 개요,” https://lausanne.kr/outline/, 접속일자. 2024. 10. 20.

5) 로잔운동, 서울 선언 소개, https://lausanne.org/ko/korean-ko/blog-ko/%ec%84%9c%ec%9a%b8-%ec%84%a0%ec%96%b8-%ec%86%8c%ea%b0%9c. 2024. 10. 23. 접속.

구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한다.

첫째, “Let the Church, Together”는 온 교회(하나님의 백성)가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로잔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표어 중 하나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는 구호 중에서 ‘온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연관하여 대회 홈페이지는 로잔 대회의 성격을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대회”로 소개하고 있다.[6] 즉 로잔은 세계 모든 기독 일꾼들의 아이디어와 영향력을 총결집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세계에 미치고자 하는 대회라 할 수 있다.

둘째, “Declare and Display”(선포하고 나타내자)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이며 동시에 소 목표라 할 수 있는데,[7]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드러냄을 말한다. 이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문장 중에서 ‘온전한 복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로잔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whole gospel)[8]이란 복음이 언어뿐 아니라 삶을 함께 포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온전하지 못한’ 또는 ‘불완전한 복음’이란 의미다. 따라서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바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Christ'(그리스도)인데, 모든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 세상(the whole world)에 전해야 할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의 핵심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길은 없으므로 교회가 전하고 보여야(declare and display)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가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라는 주제로 열리면서 하나님을 강조한 경향이 있었다면, 제4차 인천(서울) 대회는 그리스도에 더 강조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3차 대회에서 로잔이 다소 WCC의 에큐메니칼 진영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로 인해 로잔의 방향을 좀 더 복음주의적인 방향으로 조

6) 로잔운동, “제4차 로잔대회 개요,” https://lausanne.kr/outline/, 접속일자. 2024. 10. 20.

7)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최종 목표를 이루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이 최종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소 목표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declare)과 나타내는 것(display)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선교 과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은 해당 과정에서 성취되어야 할 작은 목표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8) ‘whole’이란 용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full(가득한), complete(완결된), important(중요한), not broken (깨지지 않은) 등의 의미로 나타난다. 즉 whole은 가득하고 완결되어 중요한 상태를 표현하는 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Sally Wehmeier, ed.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7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743.

정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대회의 주된 프로그램

대회 기간 중인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매우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다. 이 다양한 행사들을 다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오전에는 사도행전 성경 강해, 주제 강의, 그리고 앞에서 다룬 사도행전 강해와 주제 강의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토의가 열렸다.[9] 사도행전 강해와 주제 강의 시간에는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등이 강사로 활약하면서 5천여 명의 기독교 리더들에게 큰 도전과 감명을 주었다. 주제 강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부흥, 선교적 공동체, 핍박과 선교, 일터선교, 섬기는 지도력 등의 주제였다. 특별히 의미 있던 것은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강해한 것이었다. 로잔운동의 핵심 리더 중 하나였던 존 스토트(John Stott)는 선교와 성경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상실할 때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도 사라지곤 했다. 반대로 성경에 대해 확신할 때마다 그들은 결연히 복음전도에 나선다."[10]라고 설파한 바 있는데, 이번 4차 대회에서 선교의 모델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한 점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둘째, 매일 오전과 저녁에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 전체가 모이는 행사였다면, 오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또는 작은 강의가 행해졌다. 거기에는 이슈 네트워크, 일터 사역, 지역 네트워크, 그리고 25개의 GAPs 등이 있었다. 이 모든 모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와 전략들을 논의한 자리였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25개의 GAPs 모임이었다.[11] 25개의 GAPs(소그룹 모임)의 주제들은 크게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는데, 오늘의 선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주제들이며, 각각의 카테고리들은 1. REACHING PEOPLE (복음 전파), 2. MINISTRY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사

9) 이 소그룹 토의는 대략 900개 정도였는데 이 소그룹 모임에 관해 잠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로잔 4차대회는 참여한 약 5천 명의 인원 모두에게 각자의 고유한 지정석을 제공하였는데 좌석을 테이블 별로 정렬하고 한 테이블 당 약 5-6명으로 구성하여 결과적으로 약 900여 개의 소그룹이 만들어졌다. 이 소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내내 함께 교제하면서, 소그룹 토의 시간이 주어지면 함께 토론하였다. 필자도 이 소그룹에 참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선한 도전과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10) John Stott, "세계 복음화와 성경," in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편,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서울: 예수전도단, 1999), 42.

11) 로잔운동, "제4차 로잔대회 개요," https://lausanne.kr/outline/, 접속일자. 2024년 10월 20일. GAP(갭)이란 용어의 의미는 '차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과 현재 상황 사이에 놓인 거리 또는 차이를 찾고 분석하고 그 차이를 채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였다.

역), 3. UNDERSTANDING HUMANNESS(인간됨에 대한 이해), 4. POLYCENTRIC MISSIONS(다중심적 선교사역), 5. MISSION & HOLINESS (선교와 거룩함), 6. BEARING WITNESS WITHIN COMMUNITIES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7. SOCIET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교류) 등이었고, 각 카테고리 하에 2-5개 정도의 소주제들이 주어졌다.[12]

셋째, 매일 저녁에 전체 집회가 행해졌다. 매일 저녁마다 행해진 전체 행사의 개요를 살펴보면, 9월 22일(일, 첫날): 모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는 전 세계교회, 9월 23일(월, 둘째 날) : 권고 –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향한 세계, 9월 24일(화, 셋째 날): 기쁨 – 로잔 운동 50년. 전 세계 교회를 옹호하다. 로잔 50주년 행사. 넷째 날. 9월 25일(수) 성찰 –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서기, 다섯째 날. 9월 26일(목): 갱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성찰, 여섯째 날, 9월 27일(금): 화해 – 깨어진 영역에 대한 교회의 책임 등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큰 틀에서 볼 때 로잔 저녁 행사는 첫날에 모두 함께 모여 선교에 참여하는 전 세계교회가 하나 됨을 확인하고, 둘째 날에 선교의 장이 되는 세계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셋째 날에는 선교의 핵심 운동 중 하나인 로잔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며 축하하고, 넷째 날 박해받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고자 했고, 다섯째 날에는 세계 선교의 모델 중 하나이며 금번 4차 대회를 섬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여섯째 날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현장을 보면서 화해를 위한 교회의 책임 등을 나누었다.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행사는 9월 26일(목) 밤에 행해진 "한국의 밤 : 한국교회의 열두 돌"[13] 행사였다. 이 극을 통해 한국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함과 동시에 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한 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III. 로잔 4차 대회의 주된 강점과 기여점

1. 3차 대회의 기류에 제동을 건 점

로잔 운동은 처음 태동부터 '세계 복음화'를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와 DNA'로 삼고 시작되었고, 이 목표를 위해 모든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이 힘을 모으자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화'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12) 각각의 소주제들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로잔운동, "제4차 로잔대회 개요," https://lausanne.kr/outline/, 접속일자. 2024. 10. 20.

13) 이 행사는 '길갈의 12돌'(여호수아 4:4~7)을 테마로 10명의 목회자들이 12개의 돌과 연결되는 한국 교회사의 상징(사건, 인물)들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는 총체극이었다. 이 극은 총 3막으로 구성되었는데, 1막은 부흥, 2막은 선교지에서 선교국으로, 3막은 길 위의 한국 교회을 담아내면서, 한국교회 14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극이었다. 퐁당미디어센터,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안내," https://fmcenter.stibee.com/p/25. 접속일자. 2024. 10. 24.

많은 논의들이 오갔고, 지난 2010년에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복음화의 우선성(Primacy)보다는 복음화와 사회적 책임이 동등하게 여겨지는 총체성과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가 더 강조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3차 케이프타운 대회는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선교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보다는 세상 전체를 품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는 넓은 선교 개념을 추구한 경향이 강했다. 아울러 초청된 리더들 중에는 로마가톨릭, 정교회, WCC 등에서 온 인사들도 있어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적 인상을 보여준 면도 없지 않았다.[14]

이런 경향을 보면서 로잔 4차 대회를 주최하는 한국교회에서는 일부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염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고신총회에서는 "최근 로잔 운동의 흐름을 보면 복음의 총체성을 내세우면서 복음전도의 우선성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15]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예장합동 산하의 광신대학 신학부 총동문회도 "선교의 본질과 동성애에 대한 미온적 대응, 모호한 성경관 등 한국교회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16]라면서 성명서 발표의 취지를 전하였다. 아울러 "국제 로잔대회가 선교의 근본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소위 총체적 선교개념을 내세워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한다. ...복음전도 우선이라는 선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려 함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17]고 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 등이 일정 부분 로잔 4차 대회 준비위원회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번 로잔대회는 3차 대회와는 강조점이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었다.[18] 일단 주제부터 3차 대회에서는 "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 세상, 화해 등의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WCC 총

14) 손재익, "로잔대회,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 없다,"《개혁정론》, 2024. 3. 22 일자. http://reformedjr.com/board01_01/1735819. 접속일자. 2024. 10. 23.
15) 손재익, "로잔대회,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 없다," 접속일자. 2024. 10. 23.
16) 고성욱, " '찬성' '반대' 주장 속에서 '로잔대회' 준비 박차," 《기독교신문》. 2024. 8. 2 일자. http://gdknews.kr/m/page/view.php?no=16725. 2024. 10. 25. 접속.
17) 고성욱, " '찬성' '반대' 주장 속에서 '로잔대회' 준비 박차," 《기독교신문》. 2024. 8. 2일자. 고성욱은 우려와 반대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교에 있어 사회봉사 이전에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의 무오성 진술로 올바른 성경관을 확립해야 한다 △WCC와의 신학적 관계성을 구분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종교통합이라는 에큐메니칼 신학을 포기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18) 3차 대회가 WCC의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 방향과 다소 유사한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의식해서인지, 로잔 4차 대회는 대회의 기조를 보면 상당 부분 복음주의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느낌을 준 것이 사실이다.

회와 다소 유사한 분위기를 보였던 반면, 4차 대회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에서 교회, 그리스도, 선포와 나타냄 등의 용어를 통해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4차 대회에서 발표한 서울선언 등에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서울선언 서문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적 우선순위에 대한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한다.”[19]는 표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이다.”[20]라는 표현 속에서 복음화를 시급한 과제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울러 서울 선언 43항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위임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순종을 가르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모든 신자를 모든 곳으로 초대한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Christ-filled presence),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Christ-centred proclamation),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Christlike practice)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마 28:18-20).[21]

여기에서 로잔은 교회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 ‘그리스도를 닮은 실천 등’을 통해 대위임령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번에 발표된 ‘지상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화를 강조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19)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서문. 접속일자. 2024. 10. 23. https://lausanne.org/ko/statement/%ec%84%9c%ec%9a%b8-%ec%84%a0%ec%96%b8.

20)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서문. 2024. 10. 23. 접속.

21)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43항. 접속일자. 2024. 10. 23.

> 왕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대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메시지, 즉 죄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영광 받을 때까지 왕국의 사명과 모든 민족의 세계 복음화를 추구합니다. 이 중요한 왕국의 가치가 그들을 이끕니다.
>
>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의 제자, 학생, 추종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에게서 배우고 있다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유하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입니다(요한복음 15:26, 16:14).[22]

이상의 내용에서 로잔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대위임령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며 모든 민족의 세계 복음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의 복을 누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23]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로잔 4차 대회는 3차 대회 때 다소 좌클릭 방향으로 갔던 모습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고 다시 본래의 복음주의적 경향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대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24]

2. 동성애 등의 죄성을 선언한 점

---

22) Matthew Niermann,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로잔운동, 대위임령 현황. 5. https://lausanne.org/ko/report. 접속일자. 2024. 10. 24.

23) 이러한 경향은 국제 로잔의 대표인 마이클 오(Michel Oh)의 폐회사 일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벌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찾아 더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백성들의 몸이여, 함께 일어나 겸손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의식과 목적, 집단적 공동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사회 모든 곳과 세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는 말 등에서 잘 나타난다. 아울러 그는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자 삼기'(disciple-making) '양육하는 제자도 실천'(disciple-maturing),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의 창의적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김영한, "4차 로잔대회 개최한 한국교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크리스찬투데이》, 2024. 10. 22 일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4499. 접속일자. 2024. 10. 24.

24) 이 점에 대하여 김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차 로잔대회에서 그동안 WCC에 의해 정치사회 해방적으로 해석되어 오도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호켄다이크)' 개념이 본래 선교 주체이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선교사는 그의 도구로서 보내심을 받은 미전도종족을 향한 복음 선교와 헌신과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명백하게 정의됐다."김영한, "4차 로잔대회 개최한 한국교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접속일자. 2024. 10. 24.

이번 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한국 교회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는 동성애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대부분 동성애 문제가 이미 합법화되고 대세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기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 다소 둔감해진 면이 없지 않지만, 사실 동성애로 인한 폐해는 참으로 심각하다.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면서 청소년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화체계이므로 종국적으로 기독교의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다.[25]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막아야 할 서구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저지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서구교회의 안일한 생각,[26] 잘못된 윤리의식,[27] 거대하게 밀려오는 성혁명 세력 앞에 선 서구교회의 무력함 등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동성애 세력들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사회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이며 반지성적인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UN과 EU 등의 세계적인 조직들이 동성애를 강하게 지지하면서 동성애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구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비인간적이고 비지성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은근슬쩍 동성애를 용인하게 되었을 것이고, 동성애를 수용한 이후 서구교회들은 심각한 교세 감소세를 보여주는 상황이다.[28]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동성애의 합법화 시도를 막아왔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강력한 공감대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로잔 4차 대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해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하였고, 특별히 4차 로잔대회의 공동위원장인 이재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로잔 지도부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

---

25) 이 동성애는 글로벌 성 혁명세력으로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곽혜원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려면 이를 지탱하는 가족 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 세력의 핵심 공격 대상 중의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다. 곽혜원,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기독교의 과제," 이동주 편,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서울: CLC, 2022), 185.

26) 여기에서 '안일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의 파괴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27) '잘못된 윤리의식'이란 세상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서 LGBT(레스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의 약자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동성애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한 점이다.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달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최종 목적을 염두에 두는 윤리라 할 수 있다.

28) 곽혜원,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기독교의 과제," 185.

29) 이런 과정과 연관하여 이재훈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언문 중 동성애 관련 문구의 수정은 한국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한국교회가 성경적 기준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승연, "이재훈 목사 "로잔대회 통해 세계교회서 한국교회 역할 확인"," 《기독일보》, 2024. 10. 19 일자.

그리하여 다행스럽게도 로잔은 이번 서울선언에서 동성애의 죄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선언 57항은 “우리는 섹슈얼리티(sexuality, 성[性])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생물학적 성(sex)과 성별(gender)은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 … 또한, 우리는 성별 유동성(gender fluidity,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라는 주장)이라는 개념도 거부한다.“[30]라고 선언하였다. 로잔은 성적인 왜곡을 통탄하고 잘못된 성인식을 거부한다는 표현을 통해 동성애 등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잔은 동성애를 죄로 표현하는데, 68항의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31]고 선언하였고, 이어서 복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대하여 68항 후반부에서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32]고 선언하였다. 서구사회가 대부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더 이상 동성애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로잔이 동성애를 분명한 어조로 죄로 선언하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왜곡 행위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로잔 4차 대회의 주된 성과 중 하나라 하겠다.[33]

3. 선교 현황 보고서 발간과 비서구 교회의 약진

1) 지상대위임령 현황(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보고서 발간

앞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로잔 4차 대회의 기여점은 참으로 많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하자면 가장 먼저 지상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발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약 150명의[34] 선교 전략가들이 최고 수준의 글로벌

---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9913#share. 접속일자. 2024. 10. 21.

30)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7항. 접속일자. 2024. 10. 23.

31)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68항.

32)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68항.

33) 물론 여전히 일부에서는 로잔이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오늘날에는 광범위하게 인터섹스[inter sex individuals]로 지칭됨)’을 일정부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이나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저지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국제적인 선언문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이 정도라도 선언을 한 것은 큰 성과라고 본다. 여기에는 한국교회 지도부들의 결단과 헌신이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며, 금번 로잔 4차 대회의 큰 기여점이라 할 수 있겠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획기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세계 선교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이 보고서의 성격에 대하여 서울 선언 소개 글은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는 지역별 응답과 함께, 다가오는 10년을 맞이하며 전 세계 교회와 세상을 형성하는 경청 과정에서 나타난 40개의 주요 요인과 트렌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50년을 더욱 내다보며, 이 보고서는 더 큰 전략적 협력 행동이 필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5]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제1부 '대위임령 현황'은 광범위한 전통적인 선교학의 척도를 사용하여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펼쳐진 다양한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한다. 제2부 '오늘부터 2050년까지'는 다중심적인 기독교의 특성, 인류의 본질, 디지털 시대가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전 세계적인 변화에 관한 10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3부 '지역적 고려 사항'에서는 세계 12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한다.[36]

이 문서는 205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로잔이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기여할 것인가를 목표로 두고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2050년까지 중요한 이슈들과 필요한 전략적 협력 행동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종합보고서로서 이번 로잔 4차 대회의 가장 큰 산출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금번 4차 대회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 소개는 위에서 언급한 지상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와 서울 선언을 함께 사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37]

2) 한국교회를 비롯한 비서구 교회의 약진과 참여

금번 제4차 대회의 또 하나의 기여점은 세계 모든 교회들의 참여를 독려

34) 150여 명의 구성분포는 다음과 같다. 남반구를 대표하는 40%, 북반구를 대표하는 35%, 동아시아(global east)를 대표하는 25% 등이다. 여기에서 남반구와 동이시아를 합하면 약 65%가 된다. 이것은 금번 로잔 4차 대회에서 비서구의 참여가 컸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요소이다. 로잔운동, "로잔운동, 150명 이상의 선교 전문가들이 작성에 참여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를 소개한다." https://lausanne.org/ko/%EB%B6%84%EB%A5%98%EB%90%98%EC%A7%80-%EC%95%8A%EC%9D%8C/%EB%A1%9C%EC%9E%94%EC%9A%B4%EB%8F%99-150%EB%AA%85-%EC%9D%B4%EC%83%81%EC%9D%98-%EC%84%A0%EA%B5%90-%EC%A0%84%EB%AC%B8%EA%B0%80%EB%93%A4%EC%9D%B4-%EC%9E%91%EC%84%B1%EC%97%90-%EC%B0%B8%EC%97%AC%ED%95%9C. 접속일자. 2024. 10. 23.

35) 로잔운동, 서울 선언 소개, 접속일자. 2024. 10. 23.

36) 로잔운동, "로잔운동, 150명 이상의 선교 전문가들이 작성에 참여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를 소개한다." 접속일자. 2024. 10. 23 접속.

37) 로잔운동, 서울 선언 소개, 접속일자, 2024. 10. 23.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비서구 교회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우선 4차 대회가 아시아의 한국 땅에서 열렸다는 것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로잔 4차 대회의 중요한 기여점들 중에 3차 대회의 기류에 제동을 건 점과 동성애 등의 죄성을 언급한 점 등을 들었는데, 이 일들은 아마도 한국 땅에서 4차 대회가 열렸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천명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좌클릭으로 나아가는 로잔운동을 복음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기여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38]

기독교는 처음부터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된 종교가 아니라 다중심적(polycentric)인 종교였고, 다방향(multi-directional)으로 전파된 종교였는데, 로잔 4차 대회가 이런 성격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39] 특별히 금번 4차 대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교회의 참여가 돋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번 4차 대회는 한국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며, 로잔대회 프로그램 위원장은 홍콩 출신 패트릭 펑(Partick Fung, 국제 OMF 대표)이 맡았고, 다수의 아시아 선교학자와 선교 리더들이 신학 위원회와 프로그램 위원회 등에 참여하였다. 이런 사항들은 로잔 4차 대회에 비서구교회의 참여가 높아졌고, 그로써 로잔이 세계적으로 더욱 영향력 있는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40]

IV.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로잔이 고민해야 할 점들

1. 넓어진 선교 개념 문제

1) 넓어진 선교 개념의 정의

지금까지 로잔 4차 대회의 개요와 기여점 등을 살펴보았다. 로잔은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 운동 중 하나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필자는 로잔이 앞으로도 세계 복

38) 이런 점에서 이재훈은 한 인터뷰에서 "이전 대회들과 달리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남반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의 진정한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최승연, "이재훈 목사 "로잔대회 통해 세계교회서 한국교회 역할 확인"," 《기독일보》, 2024. 10. 19 일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9913#share. 접속일자. 2024. 10. 21.

39) 물론 로잔은 4차 대회 이전에도 다중심적인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3차 대회에서도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이 4차 대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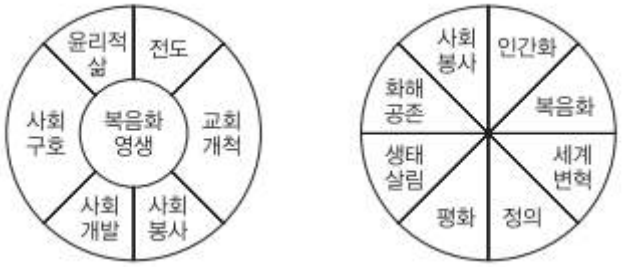
40) 문대원,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KMQ》2023년 가을호, 169.

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는 선교의 개념 정의 문제일 것이다. '개념'이란 "개개의 사물로부터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만을 추출해내는 사유의 한 형식"[4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개념이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규명하는 것이기에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명성과 명확성 등이다. 특히 선교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개념의 정립이 중요하다. 개념이 명확해야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실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지녀온 선교의 개념은 매우 선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래의 왼쪽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목표가 하나인 선교 개념이었다.[42] 즉 가운데 원 안에 쓰인 영생을 얻게 하고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선교의 목표이고, 큰 원 안에 있는 전도, 교회개척, 사회봉사, 사회개발, 사회구호, 윤리적 삶 등은 핵심 목표인 영생과 복음화를 돕기 위한 활동들이었다. 즉 이 개념에서는 선교의 목표는 영생과 복음화이고, 다른 사항들은 모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지녀온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 속에 사회적 행동이나 윤리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43] 하지만 여전히 선교를 말할 때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항상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화에 있었다.

1.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　　2. 넓어진 선교 개념



41) 김민수 외 편,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1), 91.

42) 이 도표는 필자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 통전적 선교와 총체적 선교와 같이 넓어진 선교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린 것이며, 복잡한 선교 개념을 도표로 그리는 작업은 모든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못하는 단순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학문은 때로 핵심을 단순하게 분석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43) 전통적 선교 개념에서도 사회봉사, 사회참여, 윤리적 행위 등이 소중하게 다루어졌다. 기독교는 이런 사회적 책임들을 만족스럽게 행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즉 전통적인 선교에서 선교의 방법은 다양하고 종합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선교의 목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와 같이 선교의 목표를 너무 확장시키면 선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선교는 하나의 복지운동, 정의 평화 운동, 인권운동, 환경 운동 등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John Corrie, ed., *Dictionary of Mission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007), 243.

1.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　　2. 넓어진 선교 개념

하지만 1952년에 Missio Dei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출현하면서부터 선교 개념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는 선교에 교회가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영생과 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며, 그 샬롬이란 개인 영혼 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직,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의 포괄적이며, 사회적 사건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44]

이와 같은 이해 위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 샬롬의 구체적인 모습을 JPIC (Justic 정의, Peace 평화,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질서 보전)로 제시하기도 하였다.[45] WCC는 초기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 함께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제시했지만, 1975년 나이로비 대회부터는 전략을 바꾸어 복음화와 인간화를 다 같이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를 주장하였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위에 있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전통적인 선교에서 말하는 핵심 목표라는 것이 없다. 세상에 샬롬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일 즉 인간화, 정의, 평화, 생명 살림, 화해와 일치, 복음화, 인간화, 사회봉사 등이 모두 선교의 개념 속으로 들어오면서 선교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46]

2) 로잔에 나타난 넓어진 선교 개념의 경향들

앞에서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 넓어진 선교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개의 선교 개념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교회의 세력만을 넓히는 이기적인 선교 개념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넓어진 선교 개념은 세상을 섬기는 것도 포함하는 이타적인 선교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반면, 넓어진 선교 개념은 세상을 넓게 포용하는 이타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넓어진 선교 관점에서

44) 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7-18.
45) 박종화는 JPIC가 샬롬의 다양한 의미를 세 가지 영역으로 압축한 개념이고 이런 점에서 샬롬의 대명사가 바로 JPIC 라고 설명한다. 박종화, "JPIC 세계대회 선언문 해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55.
46)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29.

본다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 개인 영혼을 위한 복음과 사회 구원을 위한 복음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복음이며, 너무 협소한 개념으로 비칠 수 있다.[47] 이런 점에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넓어진 선교 개념에 더 끌릴 수 있을 것이다.[48]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지 1975년에 WCC에 의해 넓어진 선교 개념인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개념이 제시된 이래로 로잔은 넓어진 선교 개념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해왔고, 결국 2010년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 WCC의 '통전적 선교'와 상당 부분 유사성을 지닌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로잔도 넓어진 선교 개념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49] 이러한 경향은 3차 로잔 대회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금번 4차 대회에서는 이런 경향에 제동을 걸면서 복음화를 좀 더 강조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넓어진 선교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선언 5장 서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운동을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맞서 사회적 관심을 심어 주기 위해 역사하셨다. 이러한 이중 강조점(dual emphases)은 종종 '통전적 선교'(intergral mission)라는 개념 안에 통합되었지만,..."[50]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로잔은 WCC의 통전적 선교 즉 복음화와 인간화를 동등한 책임으로 보는 통전적 관점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서울 선언은 "... 통전적 선교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위임을 항상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본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데 종종 실패했다."[51]라고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통전적 선교는 목표의 관점에서 복음화와 인간화를 다 같이 중요한 목표로 보는 통전적 선교의 관점이라면 뒤에 나온 통전적 선교는 선교의 방법에 해당되는 복음전도와 윤리적 삶

47) WCC,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컬 확언" 33항, 56. WCC, "Together Towards Life :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21항, in WCC,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김동선 역,『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79.

48) 특별히 학자들의 경우는 편협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세계 친화적이지 못한 신학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 개념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익도 안 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므로 넓어진 선교 개념은 자연히 학자들 가운데서 선호되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학자들로서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선교 개념보다는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선교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다. 아울러 넓어진 선교 개념은 연구해야 할 분야와 방향이 많아지므로 넓어진 선교 개념을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49) 로잔이 말하는 'Integral mission'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총체적 선교'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전적 선교'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금번 서울 선언에서는 '통전적 선교'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50)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장 서문. 접속일자. 2024. 10. 23.

51)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장 서문. 접속일자. 2024. 10. 23.

을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는 통전적 선교 관점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의 선교 개념 그림 도표에서 나타난 그림에서 로잔의 선교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의 모습으로 보이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넓어진 선교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52]

3) 넓어진 선교 개념이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

넓어진 선교 개념은 이타적이고, 포용적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선교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넓어진 선교 개념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문제점들 또한 내포하고 있다. 로잔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태동되었고 WCC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로잔은 넓어진 선교 개념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고 분명한 핵심과 목표를 지닌 선교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넓어진 선교 개념은 복음 전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학자로 알려진 이형기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는 1975년 나이로비대회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의미에서 로져 바샴 (Bassham)의 말대로 1975년의 나이로비 WCC는 '통전적 선교 (Holistic Mission)를 지향했다. 그러나 역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선교적 열의로부터는 멀어져만 갔다"[53]라는 말을 한 바 있다. 통전적 선교 개념을 내세우면서 복음화와 인간화를 함께 추구하면 복음주의적 선교열은 식어가고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복음화의 힘이 약화하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다.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54] 복음화가 중요하듯 인간화가 중요하고, 영의 구원이 중요하듯 육의 구원도 중요하고, 개인구원이 중요하듯 사회구원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55]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핵심이 있고 주변부의 일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여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하는 원리다. 모

52) 물론 로잔은 어떤 곳에서는 전통적인 선교 개념처럼 보이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넓어진 선교 개념에 해당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하나의 핵심 목표나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 모두를 다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53) 이형기, "에큐메니즘의 역사적 고찰," in WCC, *World Council of Churchs first 40 years*.『세계 교회 협의회 40년사』(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235-236.

54) 이런 이유로 통전적 선교와 같이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는 우선성이나 핵심 등의 단어를 매우 불편해하면서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는 이분법이라고 비판한다.

55) 이런 이유로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와 같은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는 우선성이 거절되는데 이것은 르네 파딜라가 제안하는 총체적 선교를 요약하면서 박보경이 "이 견해는 로잔선언문에서 처음 등장한 5항과 6항의 긴장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데, 즉, 교회의 두 가지 의무인 복음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 중에서 복음전도가 우선적이라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말에도 잘 나타난다. 박보경, "르네 파딜라(Rene Padilla)의 총체적 선교 연구",「복음과 선교」46(2019): 207.

든 일을 다 목표로 삼고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은 어차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꼭 해야 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집중시켜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티븐 니일은 넓어진 선교 개념의 위험성을 예상하면서 "모든 일이 선교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니다."[56]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깊이 새겨보아야 할 말이다.

둘째,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 함께 강조하는 복음화와 인간화는 둘 다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함께 가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반비례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하여 위르겐 몰트만이 잘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 교회가 현대의 문제들에 부심하고 관계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더욱 더 위기에 떨어진다. 반면에 이들이 전통적인 교리들, 전통적인 기득권들 및 전통적 도덕 표준을 주장하려 하면 할수록, 이들은 현대의 문제들에 더욱 무관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것을 "...'정체성-참여' (Identity-Relevance)의 딜레마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하다."[57]고 분석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의 약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전도를 강조한 교회들은 대부분 사회참여에 다소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회의 정체성과 사도적 책임을 강조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잘 감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58] 결국 넓어진 선교 개념을 가지고 복음화와 인간화를 동시에 다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은 논리적으로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WCC 성향의 교회들에서 잘 나타나듯이 실제로는 교회의 약화와 복음화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59]

셋째,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핵심원인이 무엇이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세상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근원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말

56) Stephen Neil,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1959), 81.
57) J. Moltmann, *The Crucified God* (New York: Harper & Row, 1974), 7.
58) 이와 연관하여 이원규는 "...진보적인 선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하면서 "... 전도와 복음화를 최대의 목표로 삼은 각 개체 교회들은 커지기 시작했고, 교단별로도 교회수가 증가하고 전체 교인수도 급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서울: 성서연구사, 1994), 242.
59) 넓은 선교 개념에서는 복음화나 인간화나 똑같이 중요한 선교 목표로 인식되므로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봉사나 개발 등을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선교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봉사나 개발 등도 좋은 일이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봉사나 개발만 하면서 구령의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선한 일이지 그것을 선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씀하고 있고,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바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한다.[60]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교회에만 주어져 있다. 다른 어떤 기관에도 이 복음이 맡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대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회 봉사나 사회 참여 등은 세상의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복음은 이 세상을 바꾸고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일인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1980년 태국에서 나온 태국 선언문(Thailand Statement)은 "... 로잔 선언문이 전도의 우선성을 언급한 것은 인류가 직면한 모든 필요들 보다 더 큰 필요가 바로 회개와 믿음을 거절함으로써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의 끔찍한 현실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로부터 회복되는 것임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61]라고 선언하면서,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긴급성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62]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와 같이 복음화와 사회적 책임을 동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넷째, 넓어진 선교 개념이 추구하는 다양한 선교 목표들이 과연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시고 선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의 선교와 일치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교의 목표는 인간이 고안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므로 예수께서 어떤 선교 목표를 행하시고 명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백성들은 예수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물질문제, 질병 치유 문제, 정치적 독립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주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 54-55)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당시 사회 구조악의 대표적 상징인 십자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셨다.

---

60)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마음에 살아계시며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의 구조들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이더는 "사회운동은 복음전도로부터 결과한다." 라고 주장한다. Ronald J. Sider,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복음전도와 사회운동』(서울: CLC, 2013), 280.

61) Edward R. Dayton & Samuel Wilson, eds., *Thailand Statement, The Future of World Evangelization: The Lausanne Movement* (Monrovia: MARC, 1984), 150.

62) Edward R. Dayton & Samuel Wilson, eds., *Thailand Statement, The Future of World Evangelization: The Lausanne Movement*, 150.

넓어진 선교 개념대로라면 아마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보다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지 못하셨을 것이다. 넓어진 선교 개념에서와 같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으로 보지 않고 선교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 당시 백성들의 요구와 비슷한 것이 될 것이고, 이런 개념에 의한 선교는 자칫 선교가 핵심도 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지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전락 될 가능성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63]

2. 선교와 윤리의 관계 문제

1) 로잔에 나타난 윤리에 대한 강조

로잔은 증인의 윤리성을 매우 강조해왔다. 복음의 메시지(message)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messenger)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64] 이런 점에서 마닐라 선언은 2부 7항에서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다."[65]라고 말하면서 증인에게 있어서 윤리적 삶이 필수적임을 언급한다. 아울러 2부 4항에서도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복된 소식과 선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음을 단언한다."[66]고 말한다.

금번 4차 대회에서도 윤리를 매우 강조하여 겸손, 정직, 단순성 등의 덕목이 많이 강조되었다. 서울 선언에도 윤리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44항은 "예수님은 온전함을 유지하여 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 땅의 소금'으로 제자들을 묘사하므로 제자들의 존재(presence)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깨닫도록 촉구하신다."[67]라고 말하고, 73항에서도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에서 분리될 수 없듯이, 개인 생활,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복음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68]고 선언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 선언은 그동안 교회가 윤리적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였

63) 박영환은 시대에 따라 선교의 방법은 변할 수 있지만 선교의 내용인 복음은 변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그러나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중심점은 있다. 선교의 내용인 복음이다."라고 강조한다. 박영환, "선교정책과 전략 형성 이전의 배경사," 「신학과 선교」32(2006): 97.

64) 문대원,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170-171.

65) Lausanne Movement, "마닐라 선언(1989)," in Lausanne Movement, ed.,*The Cape Town Commitment: Study Edition*,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IVP, 2014), 부록 247. 이하에서는 마닐라 선언의 부와 항으로 표기할 것이다.

66) "마닐라 선언," 2부 4항.

67)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44항.

68)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73항.

음에 대하여 "...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본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데 종종 실패했다."[69]고 말하면서, "그 결과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서 잘못된 재정 관리, 성추행과 학대,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이러한 실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 그리고 영적 빈혈과 미성숙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이어졌다."[70]는 말로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72항에서 "... 우리의 선교의 올바른 목표는 좋은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기 위한 변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71]고 말함으로써 선교의 목표를 영혼 구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자로서의 윤리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까지로 확대한다.

2) 선교에 있어서 윤리의 위치

로잔이 교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회가 보여 온 비윤리적인 자세를 교정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점은 원론적으로는 지당한 말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도의 책임은 윤리적 책임보다 우선성을 지닌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음을 증거하고 구령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복음의 나눔과 삶의 모범은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동일한 중요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꼭 구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또는 "교회가 좋은 곳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만으로 사람들이 꼭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72] 교회에 오는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을 나누고 교회로 초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 혼자 하면 되는 일이지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것은 비웃음, 멸시, 천대,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구령이 쉽

69)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장 서문.
70)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5장 서문.
71)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72항.
72) 한 사람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관계적인 손해 등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것과 불신자 자신이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할 때 가능하므로 윤리적 행위를 넘어 복음전파와 초청을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73] 그런 이유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는 미련한 것이고 윤리는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와 전도를 동일한 것으로 강조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전도를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것을 선택할 소지가 많다.[74]

전도에 있어서 윤리적 삶은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는 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필수적인 것이지만, 윤리만으로는 선교의 열매를 보장하기 어렵다. 여전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복음전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75] 윤리적 삶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복음전도와 동일한 중요도를 지닌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자신이 윤리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76] 윤리적으로만 옳으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선교 단체들이 선교지에서 윤리적인 사회봉사에는 열심을 내는 반면 구령을 위한 전도에는 거의 무관심한 경우가 바로 이런 부작용의 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음증거의 책임은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인 반면, 윤리적 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명령이다.[77] 예를 들어 동성애자를 품고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사랑인지는 보는 관점에

---

73) 오늘날 복음을 철저히 핍박하는 진영(공산권, 회교권, 일부 불교와 힌두권)과 복음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진영(서구 포스트모던 사회)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들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고. 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식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1998), 35-36.

74)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고전 1:17)이라고 선언한 후에 "...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 21) 라고 선언한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은 인간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75)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토익 800점 점수를 내야 한다고 하면 토익 800점은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토익 800점이 있다고 입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그 회사를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실력이 바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윤리는 하나의 필수조건은 되지만, 윤리만 있다고 구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있어야 구령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도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6)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윤리와 연관하여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은 물론 어떤 사람이 선교에 관여하려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교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신약의 교회조차도 너무 인간적이고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Christopher Wright,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하나님 백성의 선교』(서울: IVP, 2012), 128. 너무 윤리를 강조하면 선교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과 가장 왕성한 선교가 일어났던 신약시대의 교회도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라이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윤리를 복음전도와 동등한 것으로 볼 때의 위험성을 라이트 스스로도 일정 부분 말하고 있는 것이다.

77) 복음전도가 선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임에 대하여 스캇 선퀴스트는 보쉬의 글을 인용하여 "보쉬는 복음전도가 선교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핵심이라고 말하였다. 복음전도는 선교의 중심, 핵심, 그리고 초점이다. ...복음전도가 배제된다면, 선교는 없어진다. 그것은 선교를 멈추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Scott Sunquis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 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5), 594.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를 그대로 용인하고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응원하는 것이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로 살면 불행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동성애로부터 나오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 다 윤리적인 것이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즉 윤리적 명령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는 상대적 명령이다. 이러한 상대적 명령을 절대명령인 복음화와 동등한 선교 목표로 삼는 것은 상대명령과 절대명령을 섞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절대명령에 혼동을 주거나 절대명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78]

3) 윤리와 전도의 충돌 가능성

복음이 전해질 때 대부분의 상황은 영적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타종교와 타문화가 강하게 진을 치고 있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대부분 상당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냉엄한 현실이다.[79] 이런 점을 미리 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질 때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전도 상황에서 필요한 자세를 요구하신 것이다. 윤리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런 갈등과 충돌은 매우 비윤리적인 것이므로 윤리적 책임에 우선성을 두면 선교가 약화하면서 공존과 타협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복음전도의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평상시에는 함께 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도와 윤리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것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늘 놀라운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어찌되었든 갈등을 넘어 순교까지도 각오할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선교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리적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동등한 중요도로 보는 로잔의 관점은 전도를 약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80]

---

78) 사이더는 "사회 운동은 아무리 선하거나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오로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하는 복음전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목표를 향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복음전파의 노력을 사용하신다(롬 10:14-21)."라고 강조한다. Ronald J. Sider,『복음전도와 사회운동』, 267.

79) 한국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 왔을 때에 이런 충돌이 심하게 발생했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로 신앙을 지켜내었다.

80) 이런 점과 연관하여 광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김호욱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독교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V. 나가는 말

오늘날 기독교는 서구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이슬람과 같은 종교가 왕성하게 약진하고 있다. 퓨리서치 등의 조사를 참조하여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2070년경에는 무슬림 인구가 32%가 되면서 기독교를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종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81] 앞으로 약 50년 후에 기독교는 이슬람에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 WCC는 세계복음화의 과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가 세계 평화와 공존에 지장을 준다는 생각에서 인지 전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운동은 로잔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과 기대 속에서 이번 4차 대회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도전과 용기와 지혜를 얻은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로잔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제대로 기여하려면 고민해 보아야 할 점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과제 등을 강조하더라도 복음의 우선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더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선교에 포함하는 넓어진 선교 개념이 아니라 선명한 선교의 핵심을 견지하는 선교 개념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82] 사회적 책임과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중요도로 강조되는 것은 자칫 WCC와 유사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WCC는 WCC대로 나름의 관심 사항을 행할 것이다. WCC는 복음

엄연히 다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대신 기독교윤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로잔대회의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참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고성욱, " '찬성' '반대' 주장 속에서 '로잔대회' 준비 박차," 《기독교신문》. 접속일자. 2024. 10. 25.

81) 곽노필, "세계 종교 지형이 바뀐다," 《한겨레신문》, 2010. 10. 19 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86134.html. 접속일자. 2024. 10. 26.
물론 이슬람의 성장은 상당 부분 기독교 여성의 출산율 2.7명에 비해 높은 3.1명의 출산율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출산율이 높다고 종교의 성장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높은 출산율 자체도 이슬람 선교의 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82) 물론 로잔은 곳곳에서 복음의 우선성 그리고 긴급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복음의 총체성을 강조하면서 개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모든 책임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우선성을 지닌 선교이기 보다는 총체성을 강조하는 선교가 대세를 이룬다고 하겠다.

운동이 아닌 복지운동, 인권운동, 윤리운동, 환경운동, 정의 평화 운동 등을 선교라고 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복음 운동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WCC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시작된 로잔마저 복음화에 우선성을 두지 않고 넓은 선교 개념을 가지면 세계복음화는 점점 더 요원해질 수 있다. 복음화는 다른 목표도 함께 추구하면서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적인 헌신을 해도 쉽게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어려운 사명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제 남은 곳은 더욱더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로잔의 선교 개념을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83]

참고 문헌

곽혜원. “젠더 이데올로기의 도전 앞에 선 21세기 한국기독교의 과제.” 이동주 편. 『젠더 이데올로기
심층 연구』. 서울: CLC, 2022.

김민수 외 편. 『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1991.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김준섭.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점과 시사점.”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104(2015): 245-258.

문대원.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KMQ》 2023년 가을호, 160-171.

박보경. “르네 파딜라(Rene Padilla)의 총체적 선교 연구.” 「복음과 선교」 46(2019): 199-231.

박영환. “선교정책과 전략 형성 이전의 배경사.” 「신학과 선교」 제 32집(2006): 77-103.

83) 이런 주장은 넓어진 선교 개념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크게 문제도 안 되는데 공연히 너무 문제를 과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15.7 미터가 넘는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원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그 경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김준섭,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문제점과 시사점,”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104(2015): 251. 245-258.

박종화. “JPIC 세계대회 선언문 해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세계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안승오. 『로잔운동의 좌표와 전망』. 서울: CLC, 2023.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이형기. “에큐메니즘의 역사적 고찰.” in WCC. *World Council of Churchs first 40 years.* 『세계 교회 협의회 40년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An. Paul Seung-0h. *The Future of the Lausanne Movement.* Amazon: Global Mission Research Center, 2024.

Corrie, John ed. *Dictionary of Mission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Press, 2007.

Dayton, Edward R. & Samuel Wilson, eds., *Thailand Statement, The Future of World Evangelization: The Lausanne Movement.* Monrovia: MARC, 1984.

Hoekendijk, J. C. *The Church Inside Out.* 이계준 역. 『흩어지는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Lausanne Movement. “마닐라 선언(1989).” in Lausanne Movement. ed. *The Cape Town Commitment: Study Edition.*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IVP, 2014), 부록.

Moltmann, J. *The Crucified God.* New York: Harper & Row, 1974.

Neil, Stephen.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1959.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허성식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IVP, 1998.

Sider, Ronald J. *Good News and Good Works.* 이상원 박현국 역.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서울: CLC, 2013.

Stott, John. “세계 복음화와 성경.” in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편. 정옥배 역. 『미션 퍼스펙티브』.
서울: 예수전도단, 1999.

Sunquist, Scott.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 이용원 정승현 역. 『기독교 선교의 이해』.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5.

WCC. “선교와 전도: 에큐메니칼 확언.” 33항, in WCC,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김동선 역.『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Wehmeier, Sally. ed.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7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Wright, Christopher.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한화룡 역.『하나님 백성의 선교』. 서울: IVP, 2012.

고성욱. “ ‘찬성’ ‘반대’ 주장 속에서 ‘로잔대회’ 준비 박차.”《기독교신문》. 2024. 8. 2 일자.
http://gdknews.kr/m/page/view.php?no=16725. 2024. 10. 25. 접속.

곽노필. “세계 종교 지형이 바뀐다,”《한겨레신문》, 2010. 10. 19 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686134.html. 접속일자. 2024. 10. 26.

김영한, “4차 로잔대회 개최한 한국교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크리스찬투데이》, 2024. 10. 22 일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4499. 접속일자. 2024. 10. 24.

로잔운동. “제4차 로잔대회 개요,” https://lausanne.kr/outline/. 접속일자. 2024. 10. 20.

로잔운동. “서울 선언 소개.” https://lausanne.org/ko/korean-ko/blog-ko/%ec%84%9c%ec%9a%b8-%ec%84%a0%ec%96%b8-%ec%86%8c%ea%b0%9c. 접속일자. 2024. 10. 23.

로잔운동, “로잔운동, 150명 이상의 선교 전문가들이 작성에 참여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를 소개한다.” https://lausanne.org/ko/%EB%B6%84%EB%A5%98%EB%90%98%EC%A7%80-%EC%95%8A%EC%9D%8C/%EB%A1%9C%EC%9E%94%EC%9A%B4%EB%8F%99-150%EB%AA%85-%EC%9D%B4%EC%83%81%EC%9D%98-%EC%84%A0%EA%B5%90-%EC%A0%84%EB%AC%B8%EA%B0%80%EB%93%A4%EC%9D%B4-%EC%9E%91%EC%84%B1%EC%97%90-%EC%B0%B8%EC%97%AC%ED%95%9C. 접속일자. 2024. 10. 23.

손재익, “로잔대회, 한계에 주의하면서 참가하면 문제 없다,”《개혁정론》, 2024. 3. 22 일자.
http://reformedjr.com/board01_01/1735819. 접속일자. 2024. 10. 23.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접속일자. 2024. 10. 23.

https://lausanne.org/ko/statement/%ec%84%9c%ec%9a%b8-%ec%84%a0%ec%96%b8.

최승연, “이재훈 목사 “로잔대회 통해 세계교회서 한국교회 역할 확인”,“ 《기독일보》, 2024. 10. 19
일자.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9913#share. 접속일자. 2024. 10. 21.

퐁당미디어센터. “제4차 로잔대회 프로그램 안내.” https://fmcenter.stibee.com/p/25. 접속일자. 2024. 10. 24.

Niermann, Matthew.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로잔운동. 대위임령 현황. 5.
https://lausanne.org/ko/report. 접속일자. 2024. 10. 24.

논 평 1

2024 기독교학술원 영성포럼 발제문 논찬문

이동주 교수
前 아신대 교수, 바이어하우스학회장

기독교 학술원에서 부족한 저를 논찬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 4차 로잔운동 서울 선언문은 저의 기대 이상으로 세계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필자는 제2차 마닐라 대회와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석하여 로잔 운동의 진행을 지켜보았다.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6명씩 한 조가 되어 늘 같은 지정석에 앉았는데 우리 조원들은 다 젊은이 들이었고, 로잔운동이나 WCC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당시 **케이프타운에 가톨릭대표, 정교회 대표, WCC 대표들이 참석했다**는데 소개받지 못했다. 주최측은 영국까지 찾아가 J. Stott 박사의 인사말을 영상에 담아 와서 반복 상영해주었다.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참석하였으나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했다. 필자는 로잔 총회를 창립한 선교학자들이 잘 알려진 빌리 그래함, 존 스토트, 페터 바이어하우스, 도날드 맥가브란, 게오르그 피체돔으로 알고 있다. WCC에 대항해 발생한 로잔운동이 제3차 대회 때부터 WCC를 끌어들였으므로, 다시는 로잔운동이 WCC의 그릇된 모습을 지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프타운 공약"**(Cape Town commitment)은 "**We love ..."로 시작**하는 10개의 공약으로 되어 있다.

제 4차 로잔운동 서울 선언문에서 느낀 점

WCC 선언문에서 보이지 않았던 **복음**이 우선순위로 고백 되고, 예수께 대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 속죄, 부활, 심판, 재림에 대한 사도신

경적인 신실한 고백과, 우리 신앙과 삶에 유일한 척도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성경 읽기와 성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할 것과, **세계 복음화**와 **복음선포** 등의 용어들이 두드러지게 고백된 것은 로잔운동 창립 때 목적이었던 용어들이고, **WCC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용어들**이었다. 더우기 **WCC의 연합운동**이 **가시적인 연합**운동으로서 인류연합, **우주적 연합**[1] **등이** 사용된 반면, **교회**의 특징을 세속 공동체와 확실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고백한 것은 **WCC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또한 현대 **탈가부장주의 여성신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되어 기쁘다.

필자가 유학을 마치고 1986년에 귀국하여 모교인 이화여대 채플에 참석했었는데 그날 대표 기도를 맡았던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어색한 고백이 생각난다.

교회를 세속화되지 않은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함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선교에 대한 고백은 종교다원주의로 흐르는 WCC 운동과는 매우 다른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에 의한 구원론도 그렇다. 필자에게는 로잔 제4차 선언문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이 느껴진다(잠 25;13).

.

이미 60년대부터 WCC의 **세계관**과 **인간론은** 세속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죄론과 타락론을 분실하고, 영적 시각도 상실하고, 마치 유물론자들처럼 육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연합운동 내지 전체주의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참가자 규정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여러 자료를 입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서울선언문을 작성한 로잔 위원장 이재훈 목사님과 최형근 교수님께, 그리고 1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심심한 감사로 시작되는 이승구 박사의 인사말에 필자를 포함한 많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감한다.

---

1) 2013년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의 선교와 전도" 선언문 **제 61항은 "우리는 교회와 일치**에 대한 성찰을 **더 광범위한 일치 이해로, 즉** 인류의 일치 **및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전체의 우주적 일치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고백한다.**

필자는 로잔 운동이 왜 발생하였고, 로잔언약이 왜 선언되어야 했는가를 먼저 설명해야 쉽게 이해될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로잔운동의 결집과 시작이 WCC의 비성경적, 비기독교 신앙적 동향에 대한 응수였기에, 로잔운동의 발생 경위를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밝히며 발제자들의 원고에 관해 논찬하고자 한다.

로잔운동의 발생 동기

로잔대회에 대한 평론들이 필자의 견해와 대동소이하여 비평할 내용이 별반 없으나 안타깝게 여기는 점 하나가 있다.

즉 평가자 모두가 필자가 심히 중요시하는 로잔운동의 발생동기인 WCC의 세속화, 진리 왜곡과 세계선교 포기를 시정하고자 하였던 초기 로잔운동의 의도가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리려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로 제 3차 케이프타운 대회 이래 WCC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릇된 점을 지적하는 대회도 없었고, 로잔운동이 오히려 WCC를 초청해 들이는 대회로 변하였다. 이 점을 우려하는 평론들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 하나는 WCC를 시정할 필요 없는 비기독교 연합운동으로 간주하여 방치하거나, 아니면 비판 없는 고요함이 좋아서일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로잔운동이 흐른다면 로잔운동 역시 일반적은 복음주의 엽합운동과 다름 없을 것이다.

필자는 어쩌면 비복음적 세계연합운동으로 방향을 잡은 WCC에 휩쓸려 들어가는 세계추세를 염려했던 로잔운동의 초심을 살리고자하는 소원이 있다. 필자가 추측하기로 WCC는 결국 가톨릭 아래로 들어가게 되며, 그 이유로 WCC와 가톨릭은 둘 다 연합을 원하고 있는 바, WCC는 무조건적인 우주연합을 추구하는 반면, 가톨릭은 교황의 수위권과 그들의 교리를 추호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 종교운동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가톨릭은 WCC를 향하여 "갈라진 형제여 돌어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2)]

1961년 WCC 제 3차 뉴델리 총회는 **특별한 연합운동**을 경험했다. 첫째 에큐메니컬 선교회인 '세계선교협의회'(IMC)가 WCC총회로 합병되어 그 명칭이 '세계선교와복음회위원(CWME)로 개칭되었고, 둘째 구 소련에서 스탈린의

2)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 1장 3., 『제2 바티칸 공의회 문헌』, 313-16.
이동주, "가톨릭 교리의 몇가지 독특성에 관한 성경적 고찰",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핮운동 연구』, 이동주 편집, CLC, 2015, 99f.

사절단으로 온 **K.G.B.국가 보안위원회 외교관들이 WCC에 정교회 이름으로 회원**이 된 것이다. 당시 구소련의 지하교회였던 침례교회는 스탈린의 큰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도 큰 탄압을 받아 1300만명이 학살 당했다. 스탈린은 당시 자신에게 충성한 고위관리들과 많은 엘리트들을 다 숙청하고 개인숭배를 강요한 공포정치가였다.[3)]

그런데 왜 스탈린은 **정교회의 이름**으로 WCC에 소련의 국가안보위원들을 파송하였을까? WCC는 연합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밖의 것엔 무과심해서였을까? 아니면 WCC의 Missio Dei 신학자들을 이용해 세속 이데올로기를 유치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을까? WCC에 구소련 외교관들의 입회 5년 후에는 **R. Shaull**에 의해 WCC 안에 '교회와사회협의회'를 설립하여 **혁명신학**을 주창하고 **무력사용**을 용인하였다. 혁명신학은 "수백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사회구조"를 무력으로 성취하자고 한 것이다.[4)]

WCC는 이렇게 **성경관과 선교관이** 급속히 탈색되어 **해체되고,** 교회의 목표 내지 선교 목표를 이 땅에 **샬롬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 두었고, **1970년대의 WCC 총무 필립 포터(P. Potter)**는 선교사 3000명을 처벌한 **모택동을 "중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까지 주장하였다.[5)]

WCC 내부에서 '세계선교와복음화위원회'로 개명된 세계선교위원회는 결국 "선교국은 선교비 및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라"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6)] 그리고 모라토리움으로 축적된 선교비는 '반인종차별투쟁사업'(Program to cambat racism)비로 지출되었다.[7)]

WCC의 구원관도 역시 유물론적으로 변질되어 1973년 **CWME 방콕 선교대회 제2분과**에서는 **"구원은 착취를 항거한 경제적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고, 억압에 항거한 인권을 위한 투쟁이 있고, 인간사회의 소외에 항거해 단결을 위한 투쟁에 있고, 절망에 항거한 희망에 있다"**고 하며, **성경적인 구원관을 아주 떠났다**.[8)]

독일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는 세속화 신학이 정점에 오른 1968년 제4차 WCC 웁살라 대회가 끝나자 이와 같은

3) http://blog.daum.net/pnn518/7373864.
4) F. Feil, R. Weth(Hg.), *Diskussion zur "Theologie der Revolution"*, München, 1969, 292-296.
5) Schilling, W., Das Rätsel der ökumenischen Mao-Begeisterung, in : *Reich Gottes oder Weltgemeinschaft?* Bad Liebenzell 1975, 145f.
6) Beyerhaus, P., *Bangkok '73*, 1973, 102, 108.
7) E. W. Refever, 『암그테르담에서 나이로비 대회까지』, 전호진역,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147-172. 이때 WCC의 후원으로 독립된 나라가 서남아프리카이며 WCC는 이 나라에 남미비아라는 새 이름을 선사하였이다.
8) Moltmann, J. Plitische Theologie - Politische Ethik, München, 1984, 163f.

WCC운동에 저항하여, 1969년에 『인간화』(Humanisierung)라는 책을 출판하여 WCC의 선교개념 변동으로 일어난 선교의 이유와 목적의 혼돈에 대하여 선교학적으로 규명하였다. 이것이 1970년에 발표된 프랑크푸르트 선언문(Frankfurter Erklärung)의 기초가 된 것이다.[9)]

그는 에큐메니칼 선교관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중심 사상으로 변한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인간만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 찬양 없는 이웃사랑,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실현하려는 왜곡된 신념을 교정하고자 했다[10)]. 그는 동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사 대신 세속사관을 가지고, 수평적이고 사회적 관심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역사관**을 비판하고[11)], **성령을 통한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12)] 사회 혁명의 사명자로 이해한 교회관**과[13)] **그리스도가 비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한다**고 하는 식의 기독교인들의 한계와 왜곡을 교정하고자 하였으며, **WCC의 "Dialog-Programm"의 목적을 비판**하였다[14)].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인류가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보편주의와, [15)]**회심 없이 회심의 기능에만** 흥미를 가지고, 혁명적 변혁을 통해 내재적 갱생을 시도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구원관 및 종말관과 인간화의 목표인 **'참 인간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왜곡된 기독론**에 반하여 가장 먼저 가장 명료하게 비판하였다.[16)]

이 대회에 불참했던 Donald McGavran은 제2분과 제목인 "선교 갱신"(Erneuerung in der Mission) 강연 초안에 대하여 "제2분과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나 선교를 요하는 20억 인구에 대하여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sending messengers)에 대하여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웁살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아야 할 20억의 인구를 배신할 것인가라고 반문하였다.141) 그는 웁살라가 성경적인 선교관을 배반하고, 수평적인 관심에만 집중하고, 영적 기아 상태에 있는 무리들을 그릇 인도하며, 영 대신에 육으

9) Beyerhaus, P., Humanisierung, Bad Liebenzel,l 1980, 60-63.
10). Beyerhaus, P., Humanisierung, Bad Salzuflen, 1970, 60-63.
11) Ibid., 11.
12) Ibid., 53f.
13) Ibid., 39f.
14) Ibid., 41.
15) Ibid., 42.
16) Ibid., 54-58.

로 대치했다고142) 경고했다.[17]

로잔운동 발생 경위가 1961년 소련 정교회와 함께 들어온 유물론 사상과 위와 같은 **WCC의 공산주의와의 혼합신학 때문만은 아니다.** WCC가 강력하게 기독교를 파괴시킨 것은 **WCC 회원들 자신이 타종교와의 혼합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1961년에 **요셉 씨틀러**(Joseph Sittler)가 주장했던 **"우주적 그리스도론"(kosmische Christologie)**을 **대화 프로그램에 전수하였다.**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개념은 1961년 제3차 WCC 뉴델리 총회에서 **J. 씨틀러(Joseph Sittler)**가 제 3분과에서 "일치를 위해 부르심 받다"(Zur Einheit berufen)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그의 신학적 근거를 **"우주적 그리스도론"**(kosmische Christologie) 또는 "**포괄적 그리스도론**"(umfassende Christologie) 내지 "확대 그리스도론"(erweiterten Christologie)에 두었다. 그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피조물도 제외하지않고 비춘다는 이유로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였고, "포괄적 그리스도론"(umfassende Christologie)과 "우주 구원" (kosmische Erlösung)을 주장한 것이다.[18]

또한 이 제3차 WCC 인도 총회에서는 그리스도론 뿐만 아니라 성령론도 왜곡되었다.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다"(Zu Zengen berufen)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폴 데바난단(Paul Devanandan)은 성령 확대론과 혼합주의 성령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신 고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수립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세워졌음으로 인류는 분열과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타종교들을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이라고 주장하였다.[19] Devananden은(피조물의 영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영과 타종교들의 다양한 종교체험을 혼돈함으로써 영적 혼합주의적 종교 다원주의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다.

WCC에 1971년 창설된 **'대화-프로그램'의 초대 책임자 S. 사마르타**는 세계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 힌두교와 같은 범신론 철학체계를 수용하여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을 폐지하고 **존재론**을 중심으로한 확장된 진리개념을 제시하

17) Sautter, G., Heilsgeschiche und Mission, 229f. Beyerhaus, P., Humanisierung, Bad Liebenzell 1980, 30.
18) Sittler, J. A., "Zur einheilt berufen", hers. v. W. A. Visseir't Hooft, *Neu-Dehli, 1961,* Stuttgart, 1962, 513-523.
19) Devanandan, P., Zu zeugen berufen, in : *Neu-Delhi 1961*, hg. v. W. A. Visser't Hooft, Stuttgart, 1962, 495. "Eine Antwort auf das Schöpferwirken des Heiligen Geistes".

고, 기독론과 성령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즉 타종교와의 **대화**의 문제는 “그리스도 일원론”(Christo-monisumus)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론을 확대**시킴으로써(die Christologie ausweitet), 그리고 이 세상 종교들과 세속적 이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민감해짐으로써,[20] **“포괄적인 성령론”**(umfassende Pneumatologie)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21]

S. 사마르타의 뒤를 이은 제2차 ‘타종교와의 대화 분과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W. 아리아라자**는 교회연합을 넘어서 “**인류연합”이라는 “광범위한 에큐메니즘**” 주장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위한 “신학적 기초들을 다시 고안해 내야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들은 회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동행하는 순례자들로 이해한 것이다.

제 4차 WCC총회(1968년)와 제 5차 WCC총회(1975년) 동안 연속으로 **WCC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도 신학자 **M. M. 토마스는 1973년 Bangkok 대회**에서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하며,** 힌두는 '대화'를 통해서 종교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 공동체로 이동해 갈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문화 공동체에 그대로 속해 있으면서 "기독교적 힌두"(Christlicher Hindu)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 5차 WCC 총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Christozentrischen Syntretismus)를 주장하였다. 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혼합주의"란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기초로 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이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십자가는 타종교들과 이데올로기의 담을 헐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타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 하나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2]

위와 같이 WCC의 교회연합운동은 우리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짓밟고 반 복음적인 신학적 바탕 위에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 세속 이데올로기와 세속종교들을 수용하여 그들의 세계관 위에 세계연합운동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반역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영혼에 대하여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갈 1:6-9, 고후 11:4, 계 22:18-19).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20) Sensibel zu werden für das Werk des Heilgen Geistes in der ganzen Welt..
21) Bockmühl, K., p.132f.
22) B*ericht aus Nairobi 75,*, hg. v. H. Krüger u. W. Müller Römheld, Frankfurt, 1976. 245.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6-9)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 11:4).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이때로부터 세계선교와 복음전파에 위기를 느낀 복음주의자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빌리 그래함의 소집으로 로잔 창립총회를 열고 그 유명한 15개 조항의 로잔언약을 공표하였던 것이다. 1974년에 약 150개국에서 2,700명의 복음주의 대표들이 스위스 **로잔**(Lausanne)에 모여서 **세계선교를 위한 국제대회**(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를 개최하였다. 그 대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하여 **B. Graham**이 그의 연설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다[23]. "복음화의 사명"이란 의미는 온 세상이 다 개심하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게 함을 말한다[24].

로잔언약 머리말은 WCC가 짓밟아버린 구원의 복음을 모든 잃은 영혼들에게 선교하려고 로잔에 모여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르심에 결단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공표하였다.

...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온 인류에 선포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분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의

23) Graham, B., Warum Lausanne? in : Alle Welt soll sein Wort hören, Neuhausen 1974, Dokument Bd 1. pp. 54f. 사상에 대한 경고와 선언문들을 발표하였다. 서구 복음주의자들은 1966년 베르린 선언문이래,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문, 1974년 베르린 선언문 등을 발표하여 잃은 자들을 위한 세계 선교(복음 전파)의 절박성을 호소하였다. 성경적 복음과 그리스도와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역설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반성과 강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4) Ibid.

은혜로 결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과 그 결단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공포하려 한다.

로잔언약을 초안한 **J. Stott**는 성경적인 구원은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개인적인 해방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자유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인간화와 발전, 복지, 해방, 정의는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복음주의들이 이러한 정치, 사회적인 책임을 등한시한 죄를 고백하였다.[25]

1960년 대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WCC의 특징들은 아래와 같다:

교회와 세상의 이중 역사를 부정한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한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이웃을 만난다.
하나님께로의 회심이 없다.
하나님과의 화해 대신에 인류 공동체를 추구한다.
복음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한다.
다른 종교들 속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구원"을 인정한다.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한다.
종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복음선포는 해방운동 및 개발, 의식화 운동, 정의 및 인권운동 등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없으므로 성령의 역사도 없고(행2:28) 구원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

25) Stott, J., Die biblische Grundlage der Evangelisation, in: *Alle Welt soll sein Wort hören,* Neuhausen 1974, Dokument Bd. 1. 77-80. 이미 1968년 제 4차 WCC총회를 경험한 P. 바이어하우스교수는 『인간화』(Humanisierung, Bad Salzuflen, 1970).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로 인하여 독일의 고백공동체(Bekennende Gemeinschaft)가 주최한 신학 협회(Theologische Konvent)의 의장인 튀빙겐 대학교의 퀴네트(W. künneth) 교수가 의회를 소집하였고 그 결과로 1970년된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1. 이승구 박사의 “로잔 4차 대회와 서울 선언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 대한 논평

이동주

우선 이승구 박사의 훌륭한 서울로잔선언문 분석에 감사드리며, 이박사의 발제문 서두에:

관여하신 여러분들의 정말 지난한 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높이 사야 한다. 이재훈 목사님과 최형근 교수님께서 특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이분들의 강력한 항의와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선언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로잔 4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의 하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선언서가 나오게 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고 한 말씀에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이유는 필자가 후에 진술하겠지만, WCC는 아직도 기독교인가?하고 물을 지경으로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떠났다고 보는데, 그 비판대상이었던 WCC 소속 위원들을 제 3차 남아공 케이프타운 총회와 이번 제4차 인천 로잔회의에 초청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마닐라 대회만 제하고는, 그 다음 회인 제3차와 제4차 로잔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WCC를 다시금 로잔으로 영입한 것이다. WCC는 로잔의 제의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WCC를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제스처인가?

이 선언문은 “너무 방어적이다”, “근본주의적 방향으로 후퇴했다”는 비난과,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무기산업, 팔레스타인-가자지구 내용이 빠졌다”(p.21) 등의 불편한 심기들이 표출되는 와중에 작성된 성경과 복음 선교에 충실한 신앙적 선언문이 나온 것이 필자의 눈에는 신기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복음적 선언문을 작성해준 지도부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복음을 사랑하고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세계선교의 목표로 로잔운동을 창설한 분들의 초심 계승 없이는 작성할 수 없는 선언문이다. 이번 서울선언문은 로잔운동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며 소명감을 가진 지도자들 덕분에, 케이프타운 대회가 열어놓은 세속화의 문을 막아서는 업적이 성취된 것이라고 필자는 경하하고 있다.

이승구 박사가 “세계복음화를 논의하는 이런 복음화를 위한 대회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어진 모든 문제를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다고 여겨진다"(p.21f.)는 주장에 필자도 동의한다. WCC가 "통전적 선교" 내지 "총제적 선교"를 주장하며 세속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복음을 놓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부활, 재림, 심판, 예배, 성경,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추세가 이러한 문제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박사는 "WCC의 전문 선교용어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대신에 서울 로잔이 **"교회의 선교"를 강조한 점**을 잘 지적하였다(p.22). 필자는 WCC의 보고서를 읽을 때 "교회의 선교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선교"관에 마음이 상하곤 했었다.

필자는 잠시 여가에 일독을 희망하며 비선교학자들을 위하여 아래 Missio Dei 신학을 간명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선교"란 Missio Dei 신학자로서 세속주의 선교신학의 상징적인 인물인 J. C. 호켄다익을 손꼽고 있으나, 사실상 Missio Dei 신학의 최초 학자는 독일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칼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이다. 그의 선교관은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선교관으로서, 그 원천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내심, 곧 Missio Dei에 참여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Missio Dei는 Missio eccleciae 이상이며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서 가능해진다**고 확언하였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구원의 선포란 각 지역 교회가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Hartenstein은 교회가 이러한 선교를 포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며,[26] 그는 **1952년 Willingen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본래적인 교회론이 사라졌다**[27]고 통감하며, 하나님은 온 세계에 교회를 보내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강조하였다.[28]

---

26) Schwarz, G., *Mission, Gemeinde und Ökumene in der Theologie Karl Hartensteins,* Stuttgart 1980. 144-146.

27) Hartenstein, K., Theologische Besinnung, in: *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 hg. v. W. Freytag, Tübingen 1952. 71f.

1967년 보세이에서 출판된 **『세계를 위한 교회』**(1965년)[29]는 **서유럽연구협의회**(당시 서독과 동독)의 보고서 "세계를 위한 교회"와, "남을 위한 교회"(The Church for the World)라는 선교구조에 관한 **북미주연구협의회**의 보고서(1967년)가 합본 된 책이다.[30]

호켄다익과 **서유럽연구협의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목적을 **샬롬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며, 샬롬이란, 모든 피조물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 화해와 일치를 포함하여, 의, 진리, 사귐, 평화 를 지칭하는 사건이라고 한다. 이 평화(샬롬)는 개인이 홀로 즐길 수 있는 내적 평화(마음의 평화)가 아니고(26-29).[31]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호, 유색인종의 해방, 산업사회의 인간화에 대한 관심, 농촌사회 발전을 위한 각가지 시도, 직장윤리의 추구, 지적 정직성과 통합에 필요한 평화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에서의 자유운동(freedom movement), **프랑스**의 노동신부(worker priest), **영국**의 산업선교, 경제계, 행정계, 및 다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 운동, **독일**의 화해운도(Aktion Sühnezeichen)으로 교회는 샬롬임을 증언하였다고 한다(30)[32].

J. C. 호켄다익이 이해하는 **교회**는 "(남을) 위한 교회"(Pro-Existenz)라고 한다.[33] 남을 위한 교회란 뜻은 "교회의 모습(Statur)과 신분 (Status)을 사멸시키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하며, 그 성경적인 근거는 빌립보서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종의 형태를 입은 메시야의 삶"이라고 설명한다.[34]

---

28) "Theologische Besinnung", in: *Mission zwischen Gestern und morgen,* Hg. v. W. Freytag, Stuttgart, 1952, 54, 62. "Die Mission ... ist Anteilhabe an der Sendung des Sohnes, der **Missio Dei**, mit dem umfassenden Ziel der Aufrichtung der Christusherrschaft über die ganze erlöste Schöpfung", "**Aus der 'Missio Dei'** allein kommt die "'**Missio ecclesiae**'".

29) WCC, 『세계를 위한 교회』 박근원역,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30) 이 "**남을 위한 교회"**(The Church for Others)라는 문서는 선교구조에 관한 J. C. 호켄다익의 저서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8)의 내용과도 신학적으로 대부분 병행된다.

31) 대조: 롬 14:17, 요 14:27.

32) **괄호 안의 숫자들은 동일한 책 『세계를 위한 교회』의 페이지 숫자를 표기한다.**

33) Ibid., 21.

34). Ibid., 35f. "ihre ekklesiastische Statur und ihren ekklesiastischen Status absterben lassen".

WCC는 “**선교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전통적 교회의 입력구조(come-structure)**는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선교구조, 세상으로부터의 고립되고, 복음선교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Missio Dei를 방해하는 "이교적 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개종에만 몰두하는 전도는 선교와 정 반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Missio dei의 출력구조(go-structure)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구조이며, **모든 확장 개념을 버리는 뜻**이라고 한다(36-38).

이렇게 WCC의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불신자 구원관 내지 자동 구원관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유행 중인 공산주의 유물론을 신봉하기 때문일 것이다.

Missio Dei는 교회가 세속화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성경에 나타난 세상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며(20) 교회는 세속화를 받아들여야 하고(24) 신학의 지배로부터의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 Missio Dei는 영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변하는 상태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회적 신학적으로 간직 되어온 많은 상징들과 개념들이 그 타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67).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를 **‘참 인간’**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었던 유대인이며,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69), 예수를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는다.

Missio Dei의 예수는 “**인간** 해방자”임으로, 교회 대신에 **'세계**'에, 그리스도인 대신에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영혼구원 문제는 관심 밖이다.

북미주연구협의회 보고서도 ‘일원론적 역사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전통적 신학이** 이중적인 역사관을 지녔고, 교회역사와 세속역사를 그리고 구속사와

일반역사를 구별하여왔다고 비판한다. 새로운 신학적 스타일인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교회가 독자적인 역사를 가질 수 없고 역사는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속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찾아야 하며, 그 세속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 하지 않고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163-165).

위와 같이 WCC의 신학에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별되지 않는다(참고: 고후 6:14-18). WCC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국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이유로 오직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WCC는 회개를 통한 개인구원과, "불신자의 멸망"과 "미래적 천국"관을 상실하고, 그 대신 총체적 개념으로 "세계", "새로운 질서", "역사", "역사 속"이라는 단어들로 대체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기초로한 복음주의적인 입장은 사회 구원관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귀중한 성서적인 구원을 상실해 가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칭의(稱義)와 성화(聖化)와 같은 복음적 구원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행동주의에 빠져 버린 인본주의적 Missio Dei신학과 샬롬운동의 허상을 경고하게 된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개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서 사회 변화 운동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음주의가 이해한 현대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신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원론적 역사관**으로서 구속사와 세속사 내지 교회와 세상의 이중 역사를 부정한다. 사회복음주의 신학 이래 그와 유사한 해방신학 및 WCC신학의 공통성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도 제외될 수 없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 한 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모두 놓쳐 버렸다.**

2. 유종필 박사의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논찬

이동주

유종필 박사는 한국 로잔대회에 대한 평론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시작한다. 긍정적 평가 중에 스탭들의 섬김을 주목했다. 사실 밖으로 들리는 소리는 장거리에서 도착한 외국 회원들에게 스탭들이 한결같은 친절과 공손함으로 섬김에 대한 감동과 격려가 됐다는 감사의 말들이다. 그리고 **세계복음주의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의미가 컸다는 것이다. 시 133편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주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현실로 입증되는 대회였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연대감과 복음의 능력이 선교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다. 필자는 어느 한 선교단체에 참석했다가 가장 먼 나라인 남미에서 입국한 수백명의 로잔회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서로 만나 즉각적으로 많은 수가 북한선교에 헌신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현재 한국의 북한선교의 문은 꽉 닫혔지만, 주님은 북한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고백을 들었다. 그들은 북한 복음화를 위해 일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였다. 로잔 운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세계선교가 아닌가? 로잔이 선교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흔히 사용하지 않던 용어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를 이번 로잔이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는 1963년 멕시코시티 선교대회에서 쌍방향 선교 즉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를 천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선교는 서로서로 필요하여 피차 선교파트너가 되고, 상호 협력하여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발생한다는 것은 진실로 지구상 모든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다.

유박사가 WCC와 손잡은 가톨릭 권과 정교회 권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발생하는 **회개를 금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것은 감사한 일이다. WCC가 **회개**를 금하는 이유는 회개가 **개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회개는 타종교를 비하하는 것이며 우월의식이라고 폄하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이에 관해 유박사는 단호하게 **회개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를 통해서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강조하였다. 사실로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이고(행 2:38),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이었고, 필자

자신의 신앙적 체험이었다. 유박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공통으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며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 말은 틀림없는 정론이다.

WCC가 타종교권 선교와 회심과 개종을 금한 일은 사실이었다. WCC는 회심이라는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개종이라는 용어에 집착한다. 이미 유물론과 혼합된 **WCC가 아는 회심**이란 "이웃의 이익에로의 전향"이다. 그들이 아는 회심은 "내부인과 외부인이 연합하여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운동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합적인 차원에서 변한다는 뜻이다.[35] 이러한 개념으로 WCC는 반개종주의를 주장하였다.

WCC의 **"공동의 증언을 위한 소명: 신뢰관계의 선교와 개종주의 중단"**이라는 선언문은 **가톨릭교회**가 **WCC의 '신앙과 직제' 및 '선교와 전도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로 **WCC는 로마 가톨릭적 입장을 두둔하여 상호존중을 훼손하는 개종전도 활동이 교회일치와 '공동의 증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선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 개종전도 금지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 지역에 가서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톨릭 지역과 정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개종자를 얻는 행위를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개종"이며, 화해를 목표로 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역증거"이며,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비난 받아야 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36]

이와 같이 종교다원주의 흐름을 타고 있는 WCC는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회개를 귀중히 여기지 않고**, 가톨릭 권에서와 정교회 권에서 교인 쟁탈전을 벌이는 것으로 왜곡 해석한 것이다.

회개를 해본 일이 없는 기독교권에 참 그리스도인이 존재할까?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다(마 4:17)는 것은 회개와 구원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준 것이다.

유종필 박사는 용공주의, 다원주의, 성소수자 수용적인 혼합주의적

35) 『세계를 위한 교회』, 131-133.

36) Ibid., "제 2장 "공동의 증언을 위한 소명" 신뢰 관계의 선교와 개종주의 중단",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92-94. 또 "성상을 받드는 모습을 우상숭배라고 비난하는 행위, 마리아와 성인을 향해 우상이라고 비웃거나 죽은 자에 대한 기도를 비난하는 행위" 등을 WCC는 중단해야 할 역증거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WCC의 연합운동에 반하여 비판하며 **올바른 연합운동**에 관해 진술한다(p.11). 사실로 교회의 일치는 선교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그것은 유박사의 개념으로 "영적인 일치"와 "신학적 일치" 범주 내에서다.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크기를 부풀려 가시적인 일치를 추구하는 WCC 형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의 일치이다. 유박사가 계 7:9-12에 비교하여 로잔대회를 "전 세계 성도를 하나로 묶는다"로 평가한 것은 귀한 진실이다.

반복음적 전교조 교육에 물들어 그 많던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무수히 빠져나갔고, 교과서 출판사들은 모두 동성애 친화적이거나 이슬람 친화적 교과서만 출판하여 복음적 교과서는 사용될 수 없는 이때 유종필 박사가 로잔운동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운동**으로 본 것도 매우 귀하다. 사실로 그렇게 되면 복음을 사랑하는 교육가들에게는 더 원이 없을 것이다.

유박사는 로잔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로잔운동이 정치화 될 경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할 사태는 자명한 일이다. 로잔운동은 이 시대적인 세속적이며 타협적이고 위협적인 각가지 세파를 타게 되겠지만 오직 주님께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굳게 서 주기를 바란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9-13)

3. 안승오 박사의 "로잔대회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평

이동주

안승오 박사의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뜻을 대변해 준 것 같은 공감을 느꼈다. 이번 서울총회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를 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회 제목은 현 시대사조를 거스르면서 혹시 비판이나 비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택한 영적인 제목이며, 이러한 선택을 한 국제로잔 위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 마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로잔국제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이 다행으로 그나마 세속적으로 열리는 문을 닫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든다.

안박사가 소개하는 서울 로잔운동의 기본적인 성격과 방향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지역에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교회와 사회 분야에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생생하게 지속되는 대화의 일부이다.”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계 방방곡곡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임을 증거하는 성회라고 보인다.

이와는 정 반대로 제 10차 WCC총회가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되었을 때는 비록 개최지가 한국이었지만 한국적 신앙이 총회에 미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WCC의 간교한 이중 진술적 역효과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WCC 대회와 로잔대회의 차이는 그 구성원들의 차이로 인한 것이 틀림없다.

안승오 박사는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자”는 로잔 창립총회의 비전을 이어받은 서울총회의 목적를 피력하였다. 안박사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뜻을 “삶을 포함하는 의미와,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한 복음전도”로 설명하였다. 오늘날 불의와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형편이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이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번지는 이 시대에 변질되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갈 1:6-9)이 아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로잔운동이 존재하는 목적은 온전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변질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복음을 파수하고 보존하는 사명도 있다. 로잔에 모여든 정교회, WCC, 로마 가톨릭 인사들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적 인상을 보여주었는

데도(p.4) 로잔운동 서울 선언문은 그러한 영향을 잘 벗어난 것이다.

안승오 박사는 이번 총회의 부실했던 점도 지정하였다. 예장 합동 산하의 광신대학교 신학부 총동문이 지적한 바 동성애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과 "총체적 선교" 개념을 구실로 복음 전도 우선이라는 선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간의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도 한다.

필자는 이번 서울 로잔대회의 문서 전체를 접하지 못하였으나 서울 로잔운동은 동성애의 죄성을 선언하고, 서구의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심각한 폐해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정면 충돌하는 문화로 인한 기독교의 심각한 파괴현상을 직시하고, 이 비복음적 동향을 로잔운동 지도부에서 강렬하게 막아낸 것으로 알려졌다(p.7).

서울선언문 **수정문 69항 하반절-70절**: **"그러나 우리는 동성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교회들이 공동체 안에 동성애에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 이 문장에는 **동성애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없고, 비동성애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지적만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새사람이 되도록 인도해야 할 동성애자를 **아직 확실하게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조항은 교회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국한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정리(定理)는 죄짓는 현행범이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하셨다(요 8:2-11). 현장에서 잡히지 않은 남성도 같은 처지이다. 잡혀서 인간의 정죄를 당하거나 잡히지 않아서 인간에게서 정죄 받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주할 수 없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7-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행 17:30f.)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의 성정체성의 척도는 "끌림"이다. 이러한 척도는 철저한 무정부주의와 무법주의자들의 자기기만에서 만들어진 거짓 법이다. 모든 죄악의 뒤에는 마귀적 속임수와 끌림에서 발생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계20:2).

성경은 끌림을 유혹이라고 한다. 잠 17:21f.는 고운 말로 유혹하여 꾀임 받은 젊은이를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에 비유하였고, 벧후 2:14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를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였다. 눅 22;40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유혹 받은 자를 갑자기 멸하시고(신 7:4),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셨다(신 30:17f.).

안박사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무지로든 의식적으로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한 자들도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37]고 선언하였다. 서구사회가 대부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더 이상 동성애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로잔이 동성애를 분명한 어조로 죄로 선언하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 왜곡 행위에 대하여 통탄하면서 거부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로잔 4차 대회의 주된 성과 중 하나라 하겠다."는 설명으로 동성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p.8).

어느 기독교인도 동성애자를 골라서 미워하지는 않는다.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독교인은 악을 미워해야 하고, 사람은 사랑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37)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 68항.

온전히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동성애자나 비동성애자나 피차 복음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예수께는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군중이 있었으나 오직 12명만 부르시고 훈련하시며 제자로 삼으셨고 그 후에 그들은 성경을 쓰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다. 그런데 서울 로잔대회 제 70항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우선 동성애자들을 철저히 회개하도록 사랑과 인내로 돌보고 이끌어서 참 성도가 되도록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아직 거룩함을 입지 못한 단계에 있는 동성애자를 제자훈련 시켜야 된다는 말은 상당히 과하게 비약한 주장으로 보인다.

서울 로잔운동 대회는 단호하게 성주류화 (Gender Mailstreaming) 시대를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 낙태 법제화 반대, 현대 탈 가부장주의 여성주의의 시대적 주류를 거슬러 남편과 아내의 보완적 역할을 중시하는 담대한 주장을 읽게 한다(서울선언문 59-64항).

서울선언문 제 85항은 “단일한 국가 문화만을 가져야 하고 다른 국가는 없어야 한다... 어떤 현대국가도 하나님의 구원 통치의 특별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을 언급하며 그릇된 국가관을 비판한 점은 로잔 국제 위원들의 시대적 감각이 현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안박사의 진술에는 한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제 13쪽에 “복음화가 중요하듯 인간화가 중요하고”, “복음화와 인간화는 둘이 다 중요하다”는 진술은 WCC 맥락에서 반복음적으로 사용되는 “인간화”를 연상하게 함으로 다소 복잡한 개념인바, “인간화”가 인권운동인지, 노동운동인지, 복지운동인지, 동성애 입법화 운동인지 등 어떤 의미로 사용된 개념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안박사는 “넓어진 선교 개념”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교회 역사상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동의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박사가 “**죄 문제의 해결**은 바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한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교회에만 주어져 있다. 다른 어떤 기관에도 이 복음이 맡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대한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회 봉사나 사회 참여 등은 세상의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복음은 이 세상을 바꾸고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일인 것이다"라는 진술은 (P.14) 세계 복음화를 위한 탁월한 설명이라고 느껴진다.

복음전도자의 윤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박사의 언급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WCC는 복음운동이 아닌 복지운동, 인권운동, 윤리운동, 환경운동, 정의 평화 운동 등을 선교라고 하고 거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복음 운동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WCC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시작된 로잔마저 복음화에 우선성을 두지 않고 넓은 선교 개념을 가지면 세계복음화는 점점 더 요원해질 수 있다. **복음화는 다른 목표도 함께 추구하면서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전적인 헌신을 해도 쉽게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어려운 사명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결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안박사의 결론은 복음중심 선교의 확고부동한 이정표로서 그릇된 지상 박애우선주의 함정을 경계하는 지표이라 하겠다.

논 평 2

제47회 영성학술포럼 논평

최형근 교수
서울신대, 한국로잔위원회 총무

기독교학술원이 주최하는 제47회 영성학술포럼 주제로 제4차 로잔대회를 선정하여 귀한 세 분의 논문을 통해 로잔운동을 돌아보며 미래를 전망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기독교학술원에 감사한다. 세 편의 논문의 분량이 62페이지에 달하기에 짧은 분량에 담아 주어진 15분에 논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이승구 교수님의 논문의 주제는 서울 선언에 대한 평가와 로잔운동의 전망에 대한 본 논평은 세 논문의 논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논문이 제시하는 논점에 대한 논평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I. 이승구 교수의 서울 선언에 관한 논평

이승구 교수는 서울 선언을 보수적인 선언이며, 그 배경을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서울 선언은 로잔대회 문서들인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 케이프타운 서약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물론, 이전의 대회 문서들이 담아내지 않은 동성애와 과학기술 같은 이슈들을 언급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의 의제들에 대한 성경적이고 복음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 선언이 발표된 이래, 복음주의 내부에서 제기된 “사도적 우선순위”에 대한 상반된 반응은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총체적 선교라는 오래된 논쟁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임을 알게 한다. 서울 선언의 논의에 참여한 로잔 신학위원회의 회원으로 논평자는 대위임령의 해석에 있어서 “복음전도적 과업”과 “목회적 과업”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교회)의 사도적 과업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복음 중심성”이라는 표현은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의 구속을 위한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이다.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복음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성과 본질은 교회

의 정체성을 규명하며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그런데, 복음을 계시에 대한 증언으로서 유일한 이야기(the Story)로 주장하는 로잔 신학의 접근방식에 대해 계시의 본질을 손상할 위험성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의 염려도 일견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실로, 지난 50년 동안 로잔운동의 신학문서는 항상 복음의 계시적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초월하는 결정적이고 구속적인 거대서사로서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속, 그리고 새 창조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견고하게 구축해 왔다. 로잔운동은 출발부터 성경의 권위와 능력과 무오성을 핵심으로 제시해 왔다.

이승구 교수는 교회론에 관한 긴 평가에서, 서울 선언이 전통적인 교회론을 명료하게 기술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논조를 유지한다. 논평자는 로잔 신학이 교회를 하나님 백성으로 기술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이승구 교수는 성경에 관한 서울 선언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교회의 선교"를 강조한 부분을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핵심이라고 표현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관해서는 걱정과 우려를 표한다. 즉,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라는 표현의 적실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용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9항 "그리스도의 가시적 표현인 교회"에 대한 우려는,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제자로서 보냄받은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인간에 관한 서울 선언의 주장에 대한 이승구 교수의 평가는 조직신학자로서 해석학적 측면에서 약간의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포괄적 차원에서 그런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되는 것으로 언급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섹슈얼리티/젠더 연관성에 관한 서울 선언의 명료한 성경적 확인은 교리적 해석이나 진영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 접근으로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69~70항의 주장은, 논평자가 볼 때, 단순히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기술이라기보다 전 세계 복음주의 진영을 고려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선교와 제자도(그리스도인의 형성)의 관계는 복음의 증언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서울 선언은 단언한다. 73항의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 제자 삼을 수 없으며, 깨어진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해된다. 이 문장은 분리해서 해석할 수 없다. 제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이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불신자의 삶에 관여하고 깨어진 세상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세상에 관여하는 것은 제자의 소명이

다.

열방의 가족에 관한 서울 선언의 주장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차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교운동으로서 로잔운동이 대위임령의 수행을 위해 전 지구적인 전쟁과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열방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요청이다. 즉,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장으로서 교회의 선교적 참여를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승구 교수는 "비록 구체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이번 서울 선언은 복음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충실하게 발언한 균형 잡힌 좋은 선언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 선언에 대한 로잔운동 내부의 비판과 관련하여 논평자가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비판은 서울 선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대회 중에 일어난 팔레스타인 전쟁 문제에 관한 것이다. 논문에서 언급한 노컷뉴스의 내용은 한국 참가자 개인의 견해이며, 그런 견해는 지나치게 경도된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 4가지 문제점과 5가지 제언은 앞으로 로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유익할 것이라고 보며, 로잔운동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유익한 제언에 감사드린다.

II. 유종필 박사의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평가 및 전망"에 관한 논평

유종필 박사의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로잔대회의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교회의 역량(한국교회의 밤, 섬김, 대회 경비, 한국의 위상 알림), 세계 교회와 연합과 동역, 그리고 협업, 다중심적 선교, 회개와 부흥, 세계를 품는 선교(세속사회 속에 구현되는 복음의 중요성), 청년세대를 위한 플랫폼, 총체적 선교(복음의 우선성과 사회적 책임)로 언급된다. 이러한 긍정적 요소들은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가 제시하는 40개의 격차(Gaps)와 기회(opportunities)를 통해 대회 전에 참가자들에게 회람되었다. 유종필 박사의 평가 중 "세계선교에서 로잔이 이바지한 것 중 하나는 '복음의 우선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강조"라는 주장은 안승오 교수의 복음전도의 우선성에 대한 일련의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신학적 혼란과 선교학적 혼란, 연합과 일체의 혼란, 소통의 한계로 분류된다. 먼저, 신학적 혼란에 관해서는 로잔의 정체성과 성령론에 대한 혼선, 사도신경의 차이, 기도의 중보자, 그리고 참가자 일부의 한국 이단에 대한 무지를 언급한다. 로잔운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로잔대회 전에 유튜브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 로잔운동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비성경적 공격은 신학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성령의 현상에 관한 다수세계

신학자와 목회자의 주장에 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상의 성경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확신하는 신학적 검증을 제기하는 것은 로잔운동이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각 지역 신학자들의 노력과 역할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가톨릭과 루터파가 말하는 사도신경의 영어 표현이나 해석을 로잔운동이 언급하거나 수용한 적이 없다. 기도에 관해서는 대회 기간 중 수차례 질문을 받았다.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임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인 "축도"는 기도인가, 아닌가? 한국 이단에 관한 일부 참가자(주로 아프리카와 남미 등)의 무지는 한국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 로잔운동이 지난 50년간 주장해온 신학적 견해는 "경계 안에서 포용"(breadth within boundaries)이다. 이 신학적 접근방식은 성경과 복음의 빛에 비추어 전통과 경험과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성경적 백성이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백성이기에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로잔운동의 신앙고백이다. 로잔의 이런 주장은 연합과 일치에 대한 WCC의 주장과는 다르다. 로잔운동은 제도적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복음 안에서 일치하므로(단순히 다양한 신학들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협업하는 "선교운동"이다.

로잔운동의 선교학적 혼란으로 제시하는 복음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더이상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온전한 복음과 온 교회와 온 세상에 대한 선교학적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로잔 문서들은 이미 명확하게 설명한다. 더욱이 서울 선언은 복음과 성경에 기초한 교회론은 주장하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온 세상의 잃어버린 인간과 모든 미전도 종족을 말한다. 다중심적 선교와 다중심적 자원 동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유종필 박사는 로잔운동에 관해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한다. 하나님께서 로잔운동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격려와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의 플랫폼과 복음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로잔운동의 선교전략과 미래는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또한, 로잔운동이 십자가의 능력인 복음의 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정직과 단순함을 상실하면 제도화와 정치화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소중한 제언을 해주신 유종필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III. 안승오 교수의 “로잔 제4차 대회 평가와 전망”에 관한 논평

대회 주제에 관해 안승오 교수가 평가한 제3차 로잔대회는 “하나님” 중심이며, 제4차 대회는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주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이다.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선교의 삼위일체적 접근은 WCC의 미시오 데이(*Missio Dei*) 개념과 명료하게 차별성을 띤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에큐메니칼 진영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복음주의적이라는 말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음주의 내부에서 특정 용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혹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만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다. 제4차 로잔대회의 강점으로 제시한 “제3차 로잔대회의 기류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안승오 교수의 주장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본다. 논평자는 서울 선언이 로잔언약, 마닐라 선언, 그리고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역사적인 로잔 문서와의 연속 선상에서 기술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문서라고 확신한다.

안숭오 교수는 제3차 로잔대회가 WCC, 로마 가톨릭, 정교회 참여자들로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대회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논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로잔대회 전에 유튜브에 수없이 확대 재생산된 내용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안승오 교수 자신이 그렇다고 확신한다면, 로잔운동이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임을 논문에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로잔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도 로잔운동에 참여할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고 확신한다. 본 논문에서 안승오 교수는 로잔운동에 관한 비판적 기사와 내용을 발굴하여 로잔운동에 대한 반대 논지를 전개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준비위원회가 3차 로잔대회와는 다른 방향으로 강조점을 선회했다”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주장인가를 묻는다. 또한, 제3차 로잔대회가 “하나님, 세상, 화해 등의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WCC 총회와 다소 유사한 분위기를 보였다”라는 주장을 고려할 때, 하나님, 세상, 화해(화목)라는 용어는 어떤 진영이 전유하는 독점적 용어인가? 이 용어들과 “교회, 그리스도, 선포”라는 용어는 전혀 상반되는 용어인가? 안승오 교수가 제4차 로잔대회의 또 다른 강점으로 제시한 “동성애 등의 죄성을 인정한 점”에 대한 평가와 선교 현황 보고서(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발간과 비서구 교회의 약진에 관한 분석과 평가는 전반적으로 잘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승오 교수가 제기한 로잔운동의 문제점으로써 “넓어진 선교 개념”의 수용이 사실이라면, 로잔운동이 영생과 복음화를 주변부로 소외하거나 포기하고 인간화, 평화, 정의, 사회봉사, 생태 살림, 화해 공존, 세계변혁을 주로 추구했

다는 주장의 근거가 논문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로잔운동이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 갑자기 변화(회심?)했다는 말인가? 로잔운동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총체적 선교는 WCC의 선교 개념이나 호켄다이크가 주장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는 철저하게 다르며, 1960년대 에큐메니칼 진영의 세속화와 인간화와 연관된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한 강력한 반응으로 제1차 로잔대회가 열렸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LCWE)가 설립되었다. 각주 69번에서 안승오 교수는 "넓은 선교 개념에서는 복음화나 인간화나 똑같이 중요한 선교 목표로 인식되므로 전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봉사나 개발 등을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선교라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만일 로잔운동이 넓은 선교 개념을 선교의 목표로 했다면, 로잔운동이 복음화와 인간화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를 논문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교와 윤리(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관한 안승오 교수의 논리는 다분히 이원론적이다. 안승오 교수는 복음전도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축소하는(reductionism) 경향을 보인다. 복음전도의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분리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복음전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삶에 구현하는 제자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는가? 결국, 복음 중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최종성과 중심성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윤리와 전도를 동일한 것으로 강조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전도를 멀리하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것을 선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점에서 윤리적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동등한 중요도로 보는 로잔의 관점은 전도를 약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주장들은 논리적인 모순을 내포한다. 전도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말로 전하는 복음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자도가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닮고 따르는 것이 아닌가? 사도바울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착한 척하거나 착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들만 무수히 존재할 뿐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됨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최고의 선하심(goodness)으로서 모든 인간 윤리의 완

성이다. 안승오 교수는 로잔이 윤리적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동등하게 여겨 복음전도를 약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 논문에서 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로잔운동에 자극을 주고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 안승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종합하여 논평자는 이승구 교수님, 유종필 박사님, 그리고 안승오 교수님은 각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제4차 로잔대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본 학술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로잔대회의 서울 선언이 주창하는 신학적 견해와 주장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한국교회에 로잔운동의 정신과 선교적 동력을 확산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포럼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복음이 가져오는 영적인 변화의 능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